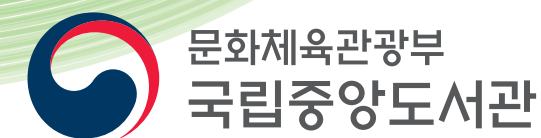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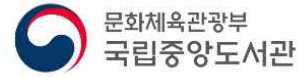
11-1371029-100004-01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발간등록번호
11-1371029-100004-01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제 출 문

국립중앙도서관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1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지 연

연구진

연구책임	이지연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공동연구	김성언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최성석 주식회사 퓨처누리 전무이사
	전정현 연세대학교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 전임연구원
연구보조	이고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전미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최예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유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김경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머릿말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보와 지식의 요람으로서 소중한 지식정보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민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식정보자원과 문화유산은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를 포괄하며, 특정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지식정보자원을 수집, 보존, 후대에 전승하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현행 자료뿐 아니라 과거의 가치 있는 문헌을 보존, 관리, 활용, 공유하는 아카이브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고문헌과를 설립하고 한국고문헌종합목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문헌에 대한 서비스, 보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1910년 이전 자료에 한정된 고문헌과는 달리, 근대문헌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직이나 시스템이 부재하다. **고문헌과 근대문헌은 시기적으로 구분될 뿐 아니라, 필사본 형태의 고문헌과 근대적 인쇄술 발달 이후 기계식 활판 인쇄로 간행된 근대문헌은 그 제작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근대문헌은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활용되고 있어 이용자의 요구가 높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서비스와 디지털화 사업이 미흡하여 근대문헌은 국내외 기관에 산재되어 있으며, 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근대문헌을 일반 서가에 비치하여 체계적인 장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2024년 일부 언론 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대학도서관에서 8,746,450권의 장서가 폐기되었으며, 그 비율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도연, 구동완, 박정훈, 2024). 공간 확보를 이유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장서까지 폐기하는 대학도 있어, 과거 장서 확보에 주력했던 도서관들이 장서 폐기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폐기 과정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도서를 선별하여 구제하는 활동도 진행되는데, 울산대학교의 경우 폐기 대상 도서 검토를 통해 한국전쟁 이전 출간된 1,500여 권의 중요 사료를 발굴하였다. 이처럼 **근대문헌의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고 있으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해결 방안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근대문헌의 유실과 훼손을 방지하고 활용하려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근대문헌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마련이 시급하다. 과거의 기록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지식 창출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내외 기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내부에서 근대문헌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국민들이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서고에 묻혀있던 근대문헌에 활력을 불어넣고 후속 세대의 지식정보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본 연구는 국가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근대문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근대문헌에 대한 선제적 관심을 가지고 국내외 근대문헌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헌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의 관리, 보존, 활용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용자의 정보 요구와 정보 행태를 파악하여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 서비스’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한다.

근대문헌이 고문헌의 하위 범주가 아닌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 문헌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민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지식정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문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디지털화된 자료 및 통합서비스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개화기에서 해방기까지의 근대 인쇄 출판물인 근대문헌의 가치
 -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사료이며 가까운 과거에 해당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참고 및 연구,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어 디지털화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높음.
 - 근대문헌이 하나의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의 개별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이용자가 이를 접근하기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근대문헌이 과거의 기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닌 현재의 지식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근대문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선도적 노력이 필요함.
 - 이에, 한국의 근대문헌에 초점을 두어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외의 한국 근대문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근대문헌 통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근대문헌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관리 환경의 개선이 필요함.
 - 근대문헌이 가지고 있는 학술적, 유산적 가치가 높음.
 - 근대문헌은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자료들로, 선제적 노력에 의해 망실과 훼손을 예방할 수 있음.

1.2. 연구 범위

- 국내 주요 도서관, 문화기관에서 제공하는 근대문헌 아카이브 서비스의 주요 구성, 기능, 서비스, 인지도와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이용자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정량적·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
-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적 측면, 제도적 측면, 생산관리 측면, 시스템 측면에서의 핵심 현황 및 시사점을 도출함.

1.3. 연구 방법

-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와 관련한 주요 용어와 개념 고찰
- 기존 근대문헌 관련 국립중앙도서관의 현황 분석
- 국내외 근대문헌 서비스 제공기관 사례조사
- 근대문헌 이용자 및 잠재이용자의 근대문헌 활용행태 및 요구 조사
- 근대문헌 서비스 담당자 면담
-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 및 운영방안 제안
 - 비전 및 목표
 - 정보화전략계획(ISP)
 - 추진 로드맵

1.4. 연구 과정 및 기대효과

- 연구과정
 -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해 근대문헌 개념 및 근대문헌 통합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검토함.
 - 국내외 서비스 기관 사례 분석을 통해 근대문헌 자료 운영 지침, 검색서비스, 서비스 특화 사례, 연계 및 협력 서비스 사례, 메타데이터 서비스 사례 등에 대해서 비교 분석함.
 - 이용자 및 잠재 이용자의 요구를 조사하여 이용목적, 이용경험, 이용자료 및 서비스, 타 기관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개선 필요사항, 세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의 항목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함.
 - 유관기관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늘날 기관들에서 근대문헌이 관리되는 현황 및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의견사항을 조사함.
 -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위한 주요 비전과 목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현행 시스템 분석과 문제점 검토, 향후 서비스 구축을 위한 목표 시스템 구성도 제안 및 독립형 서비스 구축의 장점과 고려 사항 등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제안함.

문헌 연구 및 사례조사	실증연구	서비스 개발 및 운영방안	시스템 방향성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대문헌 서비스 국내, 국외기관 사례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요구 조사 근대문헌 서비스 담당자 면담 및 전문가 자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 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 및 목표 정보화전략계획

○ 기대효과

- 근대문헌의 유산적 가치를 확장하고 보존·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근대문헌의 소재 및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및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국내외 근대문헌 서비스 운영 사례조사를 통한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 타당성 확보**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2. 이론적 배경

2.1. 근대문헌 개념 및 필요성

2.1.1. 근대문헌의 개념

가. 근대문헌의 시대 구분에 대한 논의

- 근현대사 시기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은 구체적인 전공 분야와 주제에 맞추어 구체적인 시기를 단위로 필요한 자료를 탐색해 왔기 때문에 근대문헌 자료를 구분하는 특정 시기와 경계를 강조할 학문적 요구나 필요는 분명하지 않았음.
- 이는 근대문헌에 속하는 개별 문헌 자료의 시대적 구분을 별도로 정의하기보다는 자료의 구체적인 발행(출판) 연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시사함.

나. 근대문헌의 범주 설정

- 국립중앙도서관(2022)은 한국의 고문헌 중에서도 근대문헌을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설정과 실행 방안 제안을 시도해 옴.
- 유춘동, 오영식(2021)의 연구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 경상대 중앙도서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의 고문헌 규정은 “근대계몽기부터 해방기까지, 또는 일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근대문헌이나 관련 자료”를 ‘준고서’ 또는 ‘근대문헌’이라 칭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는 시대 구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근대문헌을 고려하고 각 문헌의 발행 정보를 기준으로 1910년 한일합방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문헌을 근대문헌의 시기적 범위로 설정함.

다. 근대문학자료 관리

-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의 근대문학자료에 주목하며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해 옴.
- 근대문학의 생산 시기를 구분하는 기점을 1894년 계일의 천로역정(天路歷程, Pilgrim Progress)의 번역, 1895년 유길준(兪吉濬)의 서유견문(西遊見聞)의 출간으로 잡음. 그리고 그 하한선은 1945년 해방기까지로 설정함(국립중앙도서관, 2014; 2015; 유춘동, 오영식, 2021).

- 이를 토대로 근대문학자료 가치지수를 개발하여, 근대문학자료의 가치를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함.

라. 국내 근대문헌 시대 구분 사례와 시사점

- 국립중앙도서관이 기존에 구축·운영해 온 ‘고신문 디지털 컬렉션’은 대한제국(1987년 10월 12일 ~ 1910년 8월 28일), 일제강점기(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 군정기(1945년 9월 7일 ~ 1948년 8월 14일), 대한민국(1948년 8월 15일 ~ 현재)으로 시대를 구분함.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근현대사 아카이브는 주요 시기를 개항~대한제국(~1910년),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 광복~1950년대(1945년~1959년), 1960년 이후 10년 단위로 구분함(1960년대, 1970년대 ... 2020년대).
- 아카이브-문화 콘텐츠 중심의 역사정보자원서비스는 보다 총체적이고 망라적인 정보자원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와는 방향이 상이할 수 있지만, 타 기관의 시대 구분 사례 검토는 근대문헌이 국내 이용자 및 유사 서비스 제공기관들 사이에서 어떠한 지점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임.
- 근대문헌 통합서비스를 구축함에 있어, 개별 문헌의 시대적 구분을 별도로 정의하기보다는 자료의 구체적인 발행(출판) 연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함.

2.1.2. 근대문헌 통합서비스의 필요성

- 다양한 영역에서 근대문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제와 서비스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은 낮은 편임
- 우리나라의 근대문헌은 전국의 도서관, 박물관, 박물관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 문중, 개인 연구자 등 민간영역에서도 다수 확보하고 있으나, 적절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열악함.
- 1910년 이전 생산된 자료에 한정하는 고문헌과는 구분되는 근대문헌의 특성과 수요층이 명확하며, ‘가치 있는 정보자원’으로서의 재인식이 필요함.
-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실증자료로서 근대문헌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이며, 근대문헌의 유산적 가치를 확장하는 데 근대문헌 통합서비스가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2.2. 근대문헌 서비스 및 운영사례

2.2.1. 국립중앙도서관 기존 서비스 분석

가. 컬렉션 서비스

- 한국고문헌종합목록

- 국내 공공대학도서관, 박물관, 사찰, 문중, 개인 등 민간 소장 고문헌을 발굴하여 서지 및 원문 DB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국내 90개 기관, 국외 53개 총 143개 기관의 목록 DB 50만 건과 원문 DB 4만여 건을 서비스함(기준일: 2024.09.25.).
- 컬렉션에 속한 고문헌의 이미지, 서명, 기본적인 서지사항 및 설명뿐만 아니라, 해당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소장기관(한국고문헌종합목록의 참여기관)의 확인이 가능함.
- 하지만, 표제, 저자, 서적의 크기와 같은 기본적인 서지사항이 한문으로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 이용자들이 고문헌 컬렉션을 이용할 때의 어려움이 존재함.
-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이 제공하는 컬렉션 서비스는 근대문헌보다는 고문헌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대문헌 일반적인 자료 검색을 통해서 근대문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근대문헌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 탭은 존재하지 않음.**

○ 코리안 메모리(K-Memory)

- 도서관 및 문화예술기관의 자원을 디지털화하고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기반의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으로서 기능함.
- 주제컬렉션 중 근대문학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근현대소설(신소설)인 ‘한글판 딱지본 소설’을 제공하고 있음.

○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 ‘고신문 디지털 컬렉션’에 해당되는 ‘시대별 컬렉션’과 ‘주제별 컬렉션’을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정치, 학술 카테고리로 구분하였으며, 각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 고신문을 검색할 수 있음.

나. 검색서비스

- 많은 근대문헌 서비스에서 각각의 검색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주제별 디렉토리 탐색형 서비스를 ‘디렉토리 검색’, 키워드 탐색형을 ‘개요 및 자료 검색’으로 정의하고, 이와 더불어 다른 기관이 소장한 근대문헌을 검색할 수 있는 ‘연계기관 검색’에 대해 살펴봄.

○ 디렉토리 검색 : 이용자들이 별도의 전문적 지식이 없이도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은 디렉토리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연계기관 검색 : 많은 기관들이 고문헌 및 근대문헌과 관련된 디지털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문헌 서비스는 이러한 연계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을 제외한 근대문학종합목록, 코리안 메모리,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등은 해당 서비스와 연계된 기관의 단순 링크만 제공함.

○ 이용자들은 다른 기관을 통해 근대문헌 정보를 얻기 위해 각 참여기관의 링크를 직접 찾아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한 뒤 별도로 검색을 수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경험함.

다. 메타데이터 서비스

-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고문헌종합목록에서 근대문헌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항목은 ‘표제/저자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MARC’로, 해당 항목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한국고문헌종합목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
- 근대문학종합목록과 K-Memory의 경우, 제목(한글,한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 메타데이터 항목을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K-Memory는 자원 유형, 자원 형식/매체, 표준번호/부호, 제공기관, 소장기관, 저작권, 키워드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별도로 제공함.
-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는 신문명, 발행처, 발행일, 관련 주제어, 기사위치, 기사유형, 기사주제, 주기사항과 관련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함.

라.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현재의 서비스는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지적됨.
- 각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통합적인 검색 및 연계 기능이 미흡**하여 이용자들이 **여러 플랫폼을 별도로 탐색해야 하는 비효율**이 존재함.
- 근대문헌 통합서비스 구축을 통해 **자료의 중복성을 줄이고 검색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디렉토리 검색의 도입**을 통해 자료 유형에 따른 접근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자의 검색 용이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코리안 메모리의 컬렉션 기능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기반의 디지털 자료 관리를 추진해야 함.
 - **연계기관 검색의 고도화**가 필요함.

2.2.2. 국내 서비스 기관 분석

가. 조사기관 선정

- 국내 서비스 조사기관은 총 50개 기관으로 국립도서관 2개, 기록원 2개, 대학도서관 33개, 박물관 7개, 기타 기관 6개가 선정됨.
- 각 기관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근대문헌을 보존하고 관리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 국립도서관은 근대 시기의 국회·법원 자료는 물론 일반도서, 단행본 등도 제공하며 국회도서관은 국회 관련 자료부터 일반도서, 고서, 연속간행물, 학술 기사까지 폭넓게 근대 시기 자료를 서비스함.
 - 기록원은 근대 시기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여 근대사 연구의 필수적인 원천 자료를 제공함.

- 박물관들은 근대유물의 보존과 전시를 통해 근대 시기 자료를 이용자들에게 폭넓게 제공하고 있음.

카테고리	기관명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기록원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대학도서관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서울), 경기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서울),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서울),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천안 울곡도서관), 대구가톨릭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 동덕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 영남대학교, 용인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양대학교
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독립기념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전쟁기념관
기타 기관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뮤지엄 한미, 아카이브81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국내 서비스 기관 조사 범위

나. 근대문헌 자료 운영 지침

- 대학도서관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도서관의 규정 내에서 자료 운영 지침을 안내하고 있으며 소장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을 밝히고 있음.
- 근대문헌만을 한정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근대문헌이 포함된 고문헌 정책을 안내함.
- 국립도서관 및 박물관은 근대문헌만을 위한 자료 운영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전체적인 자료 운영 지침을 공개함.

다. 검색서비스

- 대부분 국내 기관은 ① 키워드 검색, ② 제한 및 상세 검색, ③ 디렉토리 검색의 형태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함.
- 키워드 검색은 이용자가 검색하고 싶은 문헌에 대한 정보,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검색이 가능함.
- 제한 및 상세 검색은 고문헌, 고서 카테고리나 상세 검색 내 고서만을 선택하여 고문헌 자료를 제한적으로 검색할 수 있음.
- 디렉토리 검색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각각 선택하여 검색하는 방식으로 고문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함.

라. 서비스 특화 사례

- 국내 서비스 기관들의 서비스 특화 사례는 ① 컬렉션 및 아카이빙 특화 기관, ② 높은 원문 접근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구분	기관명
① 컬렉션 및 아카이빙 특화 기관	경상국립대학교, 고려대학교, 국회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법원도서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② 높은 원문 접근성 제공기관	경상국립대학교(남명학교문헌시스템),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내 서비스 기관들의 서비스 특화 사례

마. 연계 및 협력 서비스 사례

- 대학도서관
- 대학도서관의 연계 사례는 주로 링크 연결을 통해 이루어짐.
 -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3개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집하지 못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과의 링크를 연결하여 이용자들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박물관
-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아카이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웹사이트에서 외부 아카이브나 문화유산 페이지로의 연계 링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함.
- 기타 기관
-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타 기관과 연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바. 메타데이터 서비스

- 국립도서관인 국회도서관과 법원도서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MARC를 사용함.
- 대학도서관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항목이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항목은 자료유형, 서명/저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청구기호, 언어, 등록번호, MARC 제공 여부 등이 포함됨.
- 박물관, 기념관, 아카이브 등의 기관은 메타데이터 표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메타데이터는 서명, 시대, 재질, 크기 등의 기본적 항목을 포함함.

사. 근대문헌의 온라인 서비스 미제공 대학도서관

- 근대문헌을 소장하고 있지만 서비스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대학 기관은 다음과 같음.

근대문헌의 온라인 서비스 미제공 대학도서관

강남대, 경기대, 국민대, 동덕여대, 서강대, 숙명여대, 숭실대, 용인대, 울산대, 장로회신학대, 전북대, 전주대, 조선대, 충북대, 한양대 (총 15개 기관)

- 각 대학도서관의 단계별 협력 방안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단기 계획	온라인 서비스가 잘 되어 있고, 콘텐츠를 많이 제공하며, 이용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을 중점으로 협력 추진 예)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단국대학교 천안 율곡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중기 계획	단기 계획에서 협력하지 않았던 대학도서관을 중점으로 협력 확대 작고 영세하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콘텐츠 측면에서 가치 있는 대학도서관에 디지털 원문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 예) 울산대학교 중앙도서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 숭실대학교 중앙도서관
장기 계획	디지털 원문서비스를 지원했던 대학도서관과의 협력 지속. 근대문헌을 소장한 모든 대학도서관이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대학도서관과의 단계별 협력 방안

아.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국립중앙도서관이 별도로 근대문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국내 서비스 기관들도 근대문헌만을 특화하여 서비스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통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근대문헌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고문헌 원문검색과 같이 주제별, 유형별, 시대별, 인물별로 검색 디렉토리와 컬렉션을 더 세분화해 직관적인 검색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디지털 원문 이미지 제공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 디지털 자료와 메타데이터를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연구자와 일반 시민이 근대문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각 기관마다 문헌 관리 방식과 메타데이터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근대문헌 통합서비스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자료 입력, 관리, 검색 방식에 대한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2.2.3. 국외 서비스 기관 분석

가. 조사기관 선정 및 조사 방향(총 29개 기관)

- 동아시아, 북미, 유럽권의 도서관 및 기록물 관리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근대문헌 관련 온라인 서비스 제공 현황을 조사함.
 - 조사 대상은 국가별 국가기록관, 대학도서관, 전쟁기록관, 영상기록관 등으로 한정함.
- 기관의 자료 소장 및 서비스 제공 현황을 다음의 3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함.
 - 자료 접근의 용이성: 온라인상 자료 검색이 수월한가?
 - 소장자료 및 컬렉션의 다양성: 양질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가?
 - 타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한국 기관을 포함 타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
- 조사 방식은 웹 검색 방식과 사서 문의 방식을 병행하였으며 총 9개의 기준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 정리함.

조사항목	분석항목
①수집 정책	자료 수집 · 관리의 체계성
②소장량, ③한국어 지원, ④부서 및 담당자, ⑤국내외 협력	타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⑥자료 검색 방식, ⑦온라인 서비스, ⑧디지털 자료	온라인 서비스 수준
⑨메타데이터 구성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수준

조사 항목 및 분석 항목

나. 자료소장 및 서비스 운영 현황

- 동아시아는 일본과 중국의 기관을 조사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한국 기관과의 협력 경험이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은 웹사이트 내 한국 자료 검색이 어려움.
- 북미의 경우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도서관과 한국학 서가를 운영함.
- 유럽의 서비스 기관들은 동아시아 및 북미 국가 기관들과 비교하여 한국 근대 시기 자료에 대한 명확한 수집 기준을 설정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음.

다. 자료 운영 지침

- 대부분의 국외 서비스 기관은 수집 정책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한국 근대문헌’ 과 같이 특정한 조건을 가진 자료에 대한 수집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국외 서비스 기관의 자료 운영 지침 제공 현황은 첫째, 웹 페이지의 기관 소개 항목에서 해외 자료 수집 정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 둘째, 한국 서가 페이지 소개 중 한국 자료의 수집 목적 및 경로를 밝히는 경우로 나뉨.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함.

- 한국 근대문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외 자료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설정된 항목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집 정책을 확인할 수 있음.
-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학 서가의 소개 페이지를 통해 한국어 자료 수집 경로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음.

라. 온라인 서비스 수준

- 대부분의 기관은 키워드 검색 방식을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컬렉션을 운영하는 일부 기관은 디렉토리 형태의 자료 일람이 가능하도록 검색서비스를 지원함.
- 디지털 컬렉션 운영은 웹페이지 내 다양한 디지털화 자료를 일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컬렉션과 같은 서비스는 운영하지 않으나 외부 사이트 링크를 제공함.

마. 타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 기관별 근대문헌 소장량, 한국어 검색 지원 여부, 한국 자료 부서 및 담당자 배치 여부, 국내외 협력 경험 유무 등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다른 기관(특히 한국 기관)과 협력할 가능성을 확인함.
- 조사한 모든 기관이 한국어 검색을 지원하고 있어 한국어 이용자들이 온라인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음. 다만, 대륙별로 한국 자료 관리 방식과 자료 접근성에는 차이가 있음.

바. 메타데이터 구성

- 기관별 메타데이터 구성 방식이 상이하며, 한글과 로마자 병기와 관련하여 메타데이터 항목을 구분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으로 나뉨.
 - 한글(및 한자)과 로마자 표기를 구분하는 경우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자료를 검색할 시 한글과 한자, 로마자를 이용한 검색이 모두 가능함.
 -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언어 표기를 독립적으로 다룬다는 공통점을 확인함.
 - 한글(및 한자)과 로마자 표기가 하나의 항목에 기록된 경우 한글과 로마자 표기가 하나의 메타데이터 항목에 병기되어 있으며 문자별로 메타데이터를 구분하지 않지만, 하나의 항목 내에서 한국어와 영어 검색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지원함.

사. 국외의 근대 시기 자료 수집 및 서비스 사례

-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은 일본의 근대 시기를 1853년 페리 제독의 내항과 일본 개국을 기점으로 설명하며, 메이지 유신 이후의 역사적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룸.
- 미국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의 컬렉션은 미국 남북전쟁에 관련된 자료가 풍부하며,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의 Houghton Library에서 보유 중인 인쇄물과 원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함.

아.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자료 수집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통합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의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 자료를 수집·관리하는 담당자 또는 관련 문의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한국 근대문헌 자료 관리에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항목과 구성이 기관별로 매우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비표준화된 메타데이터 구성은 효율적인 데이터 검색과 연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통합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통일된 메타데이터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이용대상자 및 유관기관 수요 조사

3.1. 이용자 및 잠재이용자 설문조사

3.1.1. 분석개요

- 국립중앙도서관이 근대문헌 서비스의 허브로서 역할/기능하기 위해서는 **근대문헌을 이용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와 타 기관의 잠재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는 2024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웹 설문을 진행함.
- 총 913명의 참여자 데이터 수집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근대문헌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인 61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인구통계학적 특성,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과 현황에 대한 인식, 업무 및 연구 시 활용하는 정보자원 유형 및 특징, 근대문헌을 활용하는 주요 기관, 타 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전문인력, 희망하는 근대문헌 프로그램, 근대문헌의 디지털 기술 적용, 전반적인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근대문헌 자료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인지는 서비스를 간단하게만 알고 있는 이용자가 대부분이며 **해당 분야의 연구자, 또는 교육자와 같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역사 자료에 대한 관심을 통해 근대문헌을 이용함.**
 - 주로 **온라인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접근방법이나 서비스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임.
 - 서적, 신문 및 잡지,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의 근대문헌을 활용하며 아카이브 또는 컬렉션 이용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의 디지털 원문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을 경험하지만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함.
- 국립중앙도서관 내 아카이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이유는 폭넓은 정보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나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자체가 제공되고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확인됨.
- 타 기관의 근대문헌 이용에 대한 용이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접근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음.
- 개선사항에 있어서 자료 검색 방법에 대한 불편함, 원하는 자료를 찾기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인식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서비스 개선사항은 자료의 다양성, 웹사이트 구성 및 접근 편리성, 최신 디지털 기술 접목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이용자 참여,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 외부자료 접근, 전시 및 행사에 대해서는 ‘보통이다’의 비율이 더 높음.
- 제공되기 원하는 서비스는 주로 원문서비스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였으며 시대별, 주제별 등 검색 접근성의 확대를 요구함.
- 근대문헌의 신뢰성은 주로 출처, 제공처 등의 명확성, 전문성, 결과물의 품질에 따라 평가함.
- 검색결과와 함께 관련 소장자료 목록, 전문 해제, 번역본이 함께 검색되길 희망함.
- 근대문헌을 활용하기 위해 접근하는 기관은 주로 국립중앙도서관이며, 공공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DBpia 등임.
- 정보검색 시, 서명검색과 키워드 검색 전략을 활용함.
- 전문인력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 번역 및 해제, 상세 검색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기를 희망함.
- 근대문헌 프로그램인 학술대회, 교육, 전시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높으나 유용성은 필요하다고 인식함.
- 근대문헌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접목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을 때 유용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근대문헌 서비스에서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이용자들이 자료에 접근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함.

3.2. 유관기관 담당자 면담

3.2.1. 유관기관 근대문헌 관리 현황

- 근대문헌 특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기관은 기존 고문헌 관리 체계 내에서 근대문헌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료 훼손 및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폐가식서고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함.

- 근대문헌에 대한 물리적 훼손과 멸실 방지 차원의 **보존과 관리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함.
- 사서의 개인 역량에 따라 고가치의 자료들은 별도로 분류되어 관리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임.
- 일반도서로 분류되는 **근대문헌의 경우 향후 제적 또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음**.
- 국가 유산 지정의 근대문헌의 경우 별도 지원이 있으며 예산 확보에 유리함.
- 체계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상시적 경로를 통해 보존 및 아카이브 예산을 확보함**.
- 전문연구자 외 개별 대학도서관 차원에서의 이용자 수는 많지 않음.
- 대학도서관의 경우 기증도서 중심으로 근대문헌을 확보함.
- **자료가치 평가 및 해제 작성 가능한 인력 혹은 연구 지원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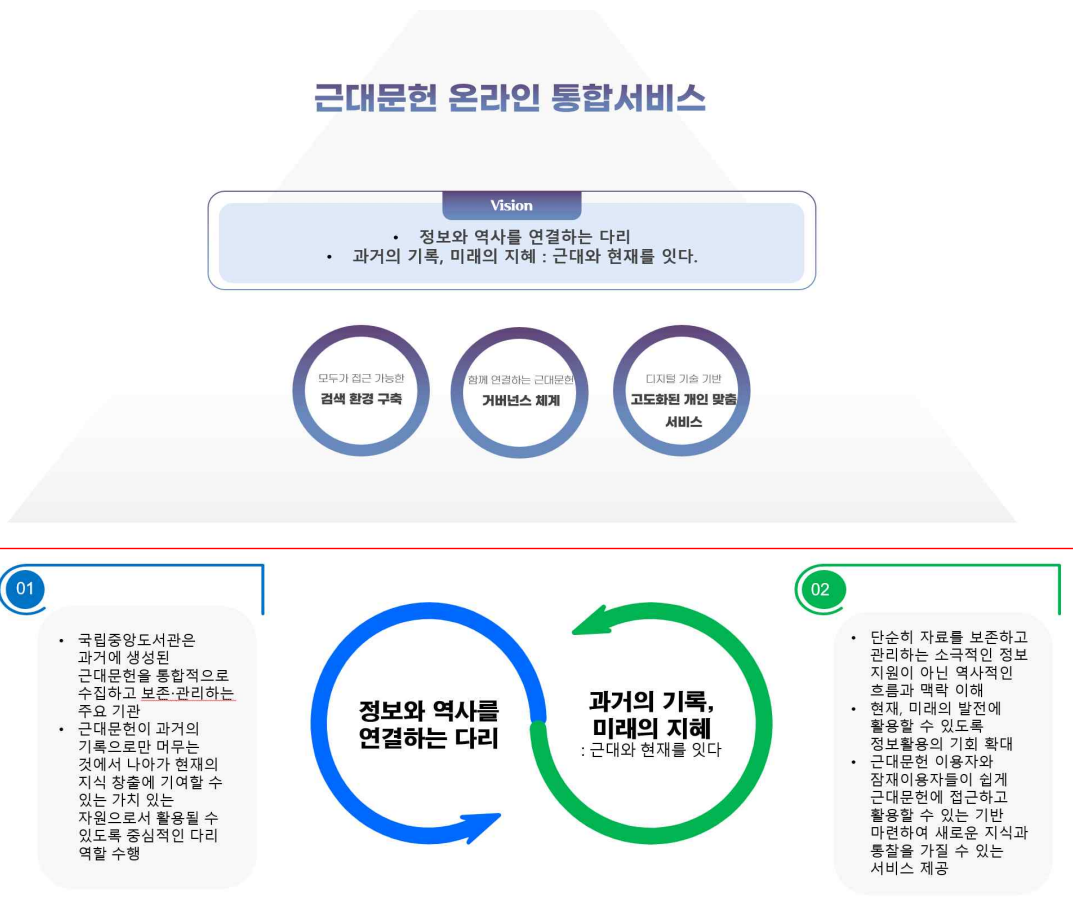
4.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 및 운영방안

4.1. 온라인 통합서비스 시스템 개발

-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 근대문헌 이용자 중 다수(설문응답자의 70% 이상)가 **온라인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근대문헌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서비스의 구축이 필요함.
 - 이용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및 기관에 접근하여 근대문헌을 활용할 때, 주로 소장자료 및 디렉토리 검색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검색 방법에 불편함을 경험함**.
 -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근대문헌의 디지털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은 기관을 지원하여 가치가 높은 **근대문헌의 디지털화 지원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타 기관에서 소장되어 있는 근대문헌이 한 번의 검색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함께 연계하여** 이용자의 정보탐색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와 기관 담당자 모두 **근대문헌의 전문 해제 서비스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임을 언급함.
 - 이용자들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스캐닝, OCR(광학 문자 인식), 데이터 시각화, AI 기반 자동 번역 기능, 그리고 연계 자료 추천 등의 **디지털 기술이 근대문헌 서비스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함**.
 - **전문인력의 지원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한국 근대문헌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며 국내외 근대문헌에 대한 검색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통합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됨**.

4.1.1. 시스템 비전

-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의 시스템 비전으로서 ① 정보와 역사를 연결하는 다리, ② 과거의 기록, 미래의 지혜 : 근대와 현재를 잇다를 제안함.
- 시스템 목표는 ① 지식의 연결고리로서의 검색 고도화, ② 근대문헌 통합검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③ 디지털 기술 기반 고도화된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을 제안함.



4.1.2. 시스템 목적

- 지식의 연결고리로서의 검색 고도화
 - 주제별, 시대별, 저자별 등 다양한 검색 접근점을 확대하여 보다 쉽게 근대문헌을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현재 한자(漢字)로 구성된 디렉토리 검색을 보다 쉬운 한글 번역 기능을 추가하여 정보 탐색의 용이성 확대
 - 이해하기 어려운 근대문헌 내용에 대한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료의 의미와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 근대문헌 통합검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근대문헌의 필요성을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공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디지털 기술 기반 고도화된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 ## 4.2.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방향

4.2.1. 기존 시스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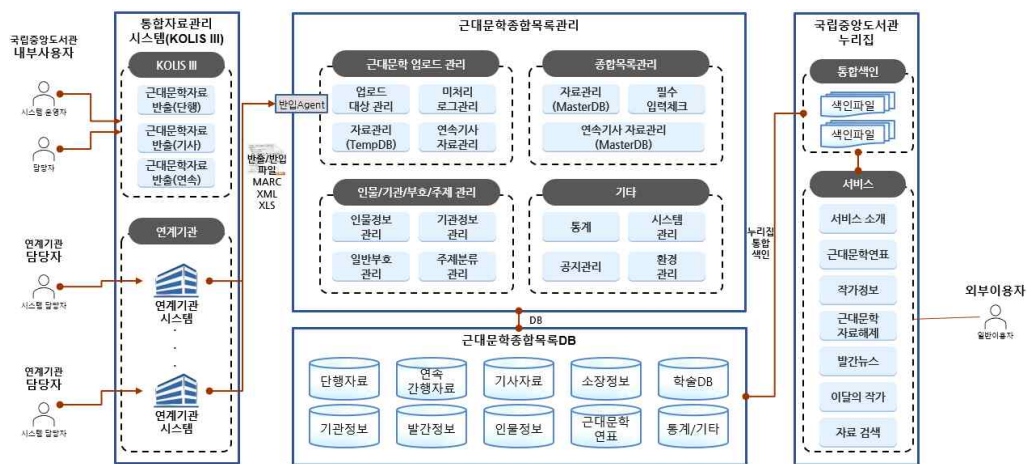
가. AS-IS vs. TO-BE 분석

- 본 서비스는 장벽 없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대국민 서비스이나, 연구자 및 근대문헌 소장 관련 기관들이 주요 수요자가 됨
- 주요 서비스는 ① 수집, 관리 서비스 ② 이용자 서비스, ③ 지능형 서비스로 구성이 되며, 주요 기능은 ① 최적화된 정보구조, ② 자료(원문, 문서, 영상) 관리, ③ 대용량 데이터 수집, 처리 엔진 ④ 디지털 콘텐츠 통합 관리 기능을 갖출 것을 제안함.



나. 현행 시스템 구성도

- 현재 운영 중인 근대문학종합목록의 시스템 구성 요소와 작동 방식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도구로 활용
-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 데이터 흐름, 네트워크 연결, 그리고 상호작용 방식을 이해
- 서버,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계층, 이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주요 요소를 포함하며, 각 요소 간의 연계와 데이터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



다. 현행 시스템 문제점

- 관리적 측면
 - 기존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학종합목록 시스템은 TempDB(근대문학업로드관리)와 MasterDB(종합목록관리)를 혼용함.
 - 업로드된 자료와 종합목록의 관리에서 두 개의 분산된 시스템으로 자료 관리를 할 경우, 데이터 동기화 또는 일관성 문제를 유발함.
 - 미처리 로그 관리의 역할이 불명확함.
 - 연속기사 자료 관리가 업로드 관리와 종합목록 관리에 함께 나타나는 등 시스템 내부에 중복 기능이 존재하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 일부 기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DB에서는 동기화와 일관성 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근대문학 자료 관리의 효율성이 저해됨.
 -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를 설계하고, 추가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함.
- 서비스적 측면
 - 근대문학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가 부족하며, 시각적 디자인이 제한적임.
 - 자료의 보존 및 관리의 문제 :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자료로 특별한 보존 관리가 필요함.
 - 중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 서비스가 부족함.
 - 콘텐츠 집중도 저하 우려 : 누리집의 다른 콘텐츠와 함께 근대문학 제공 시 근대문학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희석됨.

라. 시스템 구축 로드맵

- **1단계** :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 통합서비스 전략과 인프라 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함.
- **2단계**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와 연계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함.
- **3단계** : 한국 근대문헌 관리시스템 및 이용자 서비스 개발해야 함.
- **4단계** :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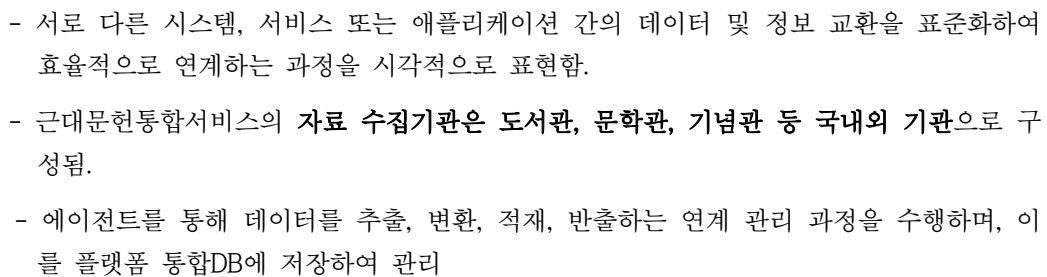


마. 시스템 구성도

- 목표 시스템 구성도
 - 다양한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하며 이용자는 디지털 인증을 통해 멀티디바이스, 웹/모바일 등의 채널로 접속할 수 있음.
 -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포털 서비스 : 서비스 Layer, 관리 Layer, 데이터 분석 Layer, 거버넌스로 구성하여 설계함.
 - 연계 서비스 : 오픈 API 기능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내부 시스템(KOLIS III, 코리안 메모리, 누리집)과의 연계뿐 아니라 반출-반입 기능을 통해 외부 기관과도 자료를 반입-반출 시스템을 통해 연계함.



- 데이터의 수집 경로, 저장 방식, 처리 단계, 그리고 활용방안을 명확히 정의하여 전체 데이터 흐름의 개념을 구성함.
- **데이터 수집 단계** : 다양한 출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
- **데이터 표준 단계** : 데이터의 수집, 등록, 정리, 관리, 활용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표준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와 데이터 설계 표준, 활용 표준을 정의함.



○ 표준 메타데이터

-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지 메타 표준과 온라인 자료 메타 데이터 표준을 적용해야 함.
- 서지 데이터의 경우 KORMARC을,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의 경우 MODS(최신 개정판 3.8)를 표준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함.

바. 독립형 서비스 구축의 장점과 고려사항

○ 장점

- 표준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독립형 서비스를 구현하면 정교한 검색 기능, 주제별 자료 분류, 심화된 메타데이터 활용 옵션을 시스템에 반영 가능함(맞춤형 설계).
- 근대문헌 자료의 특성에 맞춰 설계된 데이터 구조는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
- 자료 보안을 강화한 플랫폼 설계가 가능함.
- 이용자 경험(UX)과 인터페이스(UI)를 근대문헌 자료 탐색에 최적화하여 플랫폼 사용성을 높일 수 있음.

○ 고려사항

- 서버 인프라 설계, 도메인과 URL의 체계적 관리, 그리고 백엔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요구됨.
- 서비스에 특화된 프론트엔드 개발은 이용자 경험(UX)과 인터페이스(UI)의 최적화를 목표로 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제어와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백업 및 복구 프로세스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유실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함.
- 디지털 아카이빙과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체계를 활용해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콘텐츠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자료의 품질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함.
- 이용자 지원과 피드백 수집 체계가 필요함.

4.2.2. 정보화전략계획 프로젝트 개요

○ 기본개요

-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ISP 사업은 한국 근대문헌 자료 관리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립형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요구사항 및 범위

- 국내외 근대문헌의 소장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분석 자료를 제공해야 함.
- 한국 근대문헌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설계·개발하며, 데이터 저장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 요구사항을 제안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함.

- 국내외 근대문헌 자료를 **통합·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근대문헌 디지털 콘텐츠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메타데이터 표준과 보존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이용자 경험(UX)과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고려한 시스템 설계를 통해 **이용자 맞춤형 검색 및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고, 근대문헌의 디지털화 및 데이터 표준화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고품질 스캔과 메타데이터 태깅을 통해 효율적인 검색과 활용을 지원하며, **국내외 소장처와의 협력으로 자료 수집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함.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도입 여부를 검토하여 **최적의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예상 일정 및 예산

- 프로젝트의 주요 단계별 필요 항목과 비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요구사항 분석, 기획단계 : 국내외 근대문헌의 소장 현황을 조사하고, 서비스 개발을 위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연구 인력과 자료 조사 비용을 고려해야 함.
- 시스템 설계와 인프라 구축 단계 : 독립형 플랫폼 아키텍처 설계, 서버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됨. 시스템 설계 전문가와 인프라 엔지니어를 투입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장비 및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함.
- 서비스 개발 및 통합 테스트 단계 : 디지털화 및 메타데이터 태깅을 통해 자료의 품질을 높이고, 이를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개발 인력과 테스트 환경 구축 비용이 포함됨.
- 배포와 이용자 교육 단계 : 이용자 교육 자료 제작 및 홍보 캠페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서비스 초기 활용성을 높이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업데이트를 준비해야 함.
- 유지보수와 콘텐츠 업데이트 단계 : 유지보수 인력과 보안 점검 비용을 포함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 환경을 마련해야 함.

5. 결론

- 본 연구의 조사 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근대문헌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외에 산재된 근대문헌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여 자료의 접근성 및 연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국립중앙도서관, 국내외 근대문헌 소장기관 조사, 이용자 인식, 기관 담당자의 면담을 토대로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의 비전, 목표,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 방안을 제안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근대문헌의 서비스의 한계를 진단한 결과, **총체적이고 망라적인 근대문헌 시스템을 구현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함.

〈차 례〉

1. 서론	7
1.1 연구 배경 및 목적	7
1.2 연구 범위	8
1.3 연구 방법	9
1.4 기대효과	10
2. 이론적 배경	11
2.1 근대문헌의 개념	11
2.1.1 시기에 의한 구분	11
2.1.2 시기에 의한 구분문서 형태와 내용에 의한 구분	12
2.2 근대문헌 서비스 및 운영 사례	13
2.2.1 국립중앙도서관 기존 서비스 분석	13
2.2.2 국내 서비스 기관 분석	26
2.2.3 국외 서비스 기관 분석	50
2.3 통합서비스의 필요성	65
3. 근대문헌 이용 행태 및 서비스 제공 현황 분석	67
3.1 이용자 설문	67
3.1.1 분석 개요	67
3.1.2 분석 결과	68
3.2 근대문헌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인터뷰	94
4.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 및 운영방안	102
4.1 온라인 통합서비스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	102
4.2 시스템 비전 및 목표	105
4.3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방향	113

4.3.1 기존 시스템 분석	113
4.3.2 시스템 구축 로드맵	116
4.4 정보화전략계획 프로젝트 개요	122
4.4.1 기본개요	122
4.4.2 요구사항 및 범위	122
4.4.3 예상 일정 및 예산	123
5. 결론	124
참고문헌	127
부록 1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이용자 설문지	131
부록 2 근대문헌 서비스 기관 담당자 서면 인터뷰지	144
부록 3 기관별 근대문헌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정리	147

〈표 차례〉

〈표 1〉 국내 서비스 기관 조사 범위	26
〈표 2〉 대학도서관 고문헌 자료 운영 지침	28
〈표 3〉 국립도서관과 박물관의 자료 운영 지침	29
〈표 4〉 국내 서비스 기관들의 서비스 특화 사례	32
〈표 5〉 높은 원문 접근성을 제공하는 기관	40
〈표 6〉 대학도서관 메타데이터 항목	44
〈표 7〉 대학도서관과의 단계별 협력 방안	47
〈표 8〉 조사 항목 및 분석 항목	50
〈표 9〉 주요 동아시아권 서비스 기관	51
〈표 10〉 주요 북미권 서비스 기관	52
〈표 11〉 주요 유럽권 서비스 기관	53
〈표 12〉 근대문헌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69
〈표 13〉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이용자의 서비스 인지 정도 응답 결과	70
〈표 14〉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이용 목적	71
〈표 15〉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이용 방법	72
〈표 16〉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 근대문헌 서비스 비이용 이유	74
〈표 17〉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용하는 근대문헌 자료 유형	75
〈표 18〉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의 근대문헌 이용 서비스 유형	75
〈표 19〉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자료 이용 시 불편한 점(개방형 질문)	81
〈표 20〉 근대문헌 이용 기관	87
〈표 21〉 근대문헌 이용 위한 대학도서관 및 기타 응답 기관	88
〈표 22〉 전문인력이 필요한 근대문헌 서비스(개방형 질문)	90

〈그림 차례〉

〈그림 1〉 한국고문헌종합목록 ‘한국의 고문헌’ 컬렉션	14
〈그림 2〉 코리안 메모리 컬렉션 서비스 화면	16
〈그림 3〉 코리안 메모리 ‘자원’ 페이지	17
〈그림 4〉 한국고문헌종합목록 검색 페이지	21
〈그림 5〉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검색서비스 화면	22
〈그림 6〉 국립중앙도서관(좌)과 한국고문헌종합목록(우)의 메타데이터	23
〈그림 7〉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항목	24
〈그림 8〉 고려대학교 도서관 상세 검색 화면	30
〈그림 9〉 서울대학교 도서관 고문헌 원문검색 사이트 화면	31
〈그림 10〉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근현대사 아카이브 디렉토리 검색 화면	32
〈그림 11〉 국회도서관 고지도 컬렉션 화면	33
〈그림 12〉 국회도서관 소장 귀중자료 컬렉션 화면	34
〈그림 13〉 법원도서관 귀중본·고서 전자책 서비스 화면	34
〈그림 14〉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화면	36
〈그림 1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역사지리정보 화면	37
〈그림 16〉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근현대사아카이브 주제별 컬렉션 화면	38
〈그림 1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근대 자료 산책 컬렉션 화면	38
〈그림 18〉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원문 이미지 제공 화면	40
〈그림 1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하버드엔칭 한국본DB 화면	41
〈그림 20〉 국립중앙박물관 외국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유산 화면	42
〈그림 21〉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기록문화유산 면암선생문집 메타데이터 화면	46
〈그림 22〉 국외 기관 자료 운영 지침 사례 비교	55
〈그림 23〉 국외 기관 온라인 디지털 컬렉션 서비스 사례	57

<그림 24> 일본 도쿄대학교 오구라문고 타 기관(고려대학교) 협력 사례	58
<그림 25>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국제 협력 내역	58
<그림 26> 미국 예일대학교 도서관 한국학 서가	59
<그림 27> 미국 워싱턴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 한국근대문헌 메타데이터	61
<그림 28> 미국 하버드대학교 엔칭도서관 한국근대문헌 메타데이터	61
<그림 29>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고본 춘향전’ 메타데이터	62
<그림 30>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도서관 ‘은세계’ 메타데이터	62
<그림 31>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Modern Japan in archive’	63
<그림 32> 미국 하버드대학교 도서관 ‘Modern American Culture Collections’	64
<그림 33>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서비스에 대한 인지 수준	70
<그림 34> 근대문헌 활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이용 경험 유형	72
<그림 35>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이용 방법 분포	73
<그림 36>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 접근 경로	73
<그림 37> 근대문헌 활용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74
<그림 38>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종합목록 이외의 이용 서비스	76
<그림 39>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의 디지털 원문 이용 편의성 및 유용성 인식	77
<그림 40> 국립중앙도서관의 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지 않는 이유	78
<그림 41> 국립중앙도서관의 타 서비스 동시 이용할 때의 이점	79
<그림 42> 타 기관의 근대문헌 이용 용이성 및 접근 필요성	79
<그림 43>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자료 이용 시 불편한 점	80
<그림 44>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서비스 개선사항	82
<그림 45> 국립중앙도서관 세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83
<그림 46>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구축 시 향후 이용 의도 ..	84
<그림 47> 근대문헌 정보의 신뢰성 판단 기준	85
<그림 48> 검색 결과와 관련 자료 연결 필요성 및 선호 방식	85
<그림 49> 근대문헌 주제 중 문학 분야의 이용 비중	86
<그림 50> 정보 검색 시 선호 방식	88

<그림 51> 전문인력이 필요한 근대문헌 서비스	89
<그림 52> 근대문헌 서비스 이용시 직원 도움의 유용성	90
<그림 53> 근대문헌 프로그램 참여 여부	91
<그림 54> 근대문헌 관련 학술대회, 교육, 전시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유용성 ..	92
<그림 55> 근대문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92
<그림 56> 필요한 근대문헌 디지털 기술 및 기능	94
<그림 57> 근대문헌의 디지털 기술 접목 유용성	94
<그림 58>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 시스템의 목표 및 비전	106
<그림 59>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비전	106
<그림 60> 국립중앙도서관 기존 시스템 분석 (AS-IS, TO-BE 분석)	113
<그림 61> 국립중앙도서관 현행 시스템 구성도	114
<그림 62> 국립중앙도서관 시스템 구축 로드맵	116
<그림 63> 국립중앙도서관 목표시스템 구성도	118
<그림 64>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데이터수집·관리 체계 개념도	119
<그림 65>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표준 연계 체계도	120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기존의 도서관 소장자료는 물리적인 도서관 서가 공간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디지털화된 자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화 대상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고문서 등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자료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고문헌, 근대문헌의 경우에는 디지털화 범위와 속도가 다른 유형의 자료보다 더딘 편이다. 그 이유는 단행본이나 연속간행물, 비도서는 전자책, 전자자료의 형태로 출판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과거에 간행된 고문헌, 근대문헌은 모든 자료에 대하여 디지털화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기관에서 이를 진행하기에는 예산, 인력, 지원 등의 부담이 있다.

하지만 개화기에서 해방기까지의 근대 인쇄 출판물인 근대문헌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사료이며 가까운 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참고하고 연구와 교육을 위해 활용되고 있어 디지털화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높다. 또한 근대문헌이 하나의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의 개별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이용자가 이를 접근하기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근대문헌에 초점을 두어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외의 한국 근대문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서비스의 개발과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를 통합하여 이용자들의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는 역할을 선도하는 대표도서관으로서 근대문헌의 망실과 훼손을 막고 이를 보존, 관리하여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근대문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근대문헌이 과거의 기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닌 현재의 지식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근대문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근대문헌에 초점을 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문헌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관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고문헌에 대한 관심과 보존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고문헌은 외관상 구별이 쉽고, 오래된 사료로서 망실 및 훼손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도서관이 고문헌실을 별도로 갖추고 관리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근대문헌은 일부 특성화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개별 관리 방안이나 운영 체계를 갖추지 않은 기관이 대부분이며, 사서들의 근대문헌 관리에 대한 인식과 전문 지식도 미흡하다. 둘째, 근대문헌은

높은 학술적, 유산적 가치를 지닌다. 근대문헌은 한국 근현대사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 영역의 사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자, 창작자 등의 콘텐츠 개발 및 활용에 기초 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다. 셋째, 근대문헌은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자료이므로 선제적 노력으로 망실과 훼손을 예방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고문헌과를 중심으로 국내외 고문헌을 적극적으로 발굴, 수집, 정리, 보존해 왔으며, 고문헌의 중·장기 관리 발전 계획 및 운영 방안을 주기적으로 수립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장 가치가 있는 근대문헌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하여 연구, 교육, 콘텐츠 생산, 역사에 대한 관심 제고 등 다양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근대문헌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이용자들에게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구축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본 연구는 국내 주요 도서관 및 문화기관에서 수집하고 서비스하는 근대문헌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관리 및 서비스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향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근대문헌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국내 주요 도서관 및 문화기관의 근대문헌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종합목록이나 아카이브 형태로 제공되는 자료를 포함하며, 각 기관의 서비스의 주요 구성, 기능, 서비스 특징, 인지도 및 활용성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항목은 서비스 명칭, 자료 유형, 자료 세부 내용, 자료 수량, 핵심 주제, 주요 키워드, IA(Information Architecture) 구조, 메타데이터 세부 사항, 서비스 기능, 개발 환경, 시스템 안정성, 저작권 검토 등 자료 차원과 서비스 차원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였다. 특히, 한국고문헌종합목록, 한국근대문학종합목록, 코리안 메모리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의 컬렉션 구성, 검색 방식, 아카이브 기능, 서비스 특화 방향, 자원의 연계 및 협력 현황, 메타데이터 활용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

둘째,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이용자의 자료 이용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근대문헌 이용 경

협이 있는 10대 후반 이상의 이용자 619명으로 설정하였으며, 근대문헌 이용 목적, 이용 방식, 이용 빈도, 이용하는 자료 유형, 이용 편의성 및 유용성, 통합서비스 필요성, 전문적인 서비스 요구 정도,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 근대문헌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면담을 실시하여 근대문헌 관리 현황, 이용자 현황, 통합서비스 구축에 대한 의견, 향후 협력 방안 및 특화 서비스 요구 등을 파악하였다.

셋째, 국외 주요 기관의 근대문헌 자료 소장 및 서비스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서비스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웹 검색 및 사서 문의 방식을 병행하여 근대문헌 자료의 수집 정책, 소장량, 한국어 지원 여부, 협력 여부, 자료 검색 방식, 온라인 서비스 유무, 메타데이터 구성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주요 대륙별 한국 근대문헌 자료 소장 현황을 파악하고, 기관별 자료 운영 지침, 온라인 서비스 수준, 타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메타데이터 구성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정량적 및 정성적 연구 방법을 혼용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국내외 근대문헌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주요 도서관 및 문화기관의 근대문헌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문헌종합목록, 한국근대문학종합목록, 코리안 메모리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외 기관의 경우, 웹 검색 및 사서 문의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근대문헌 이용자의 인식 및 요구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지를 통해 이용자의 이용 목적, 이용 방식, 이용 빈도, 이용 자료 유형, 서비스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성적 자료 확보를 위해 대학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여 통합서비스 구축에 대한 의견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종합 분석하여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보 관리 및 서비스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향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외 서비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국내 서비스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로드맵은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도록 구성하였다.

1.4 기대효과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문헌의 유산적 가치 확장 및 보존·활용 기반 마련이다. 본 연구는 국내 근대문헌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온라인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근대문헌의 유산적 가치를 확장하고 보존·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보존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계획 수립이다. 본 연구는 근대문헌의 소재 및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용자 설문조사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도출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서비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근대문헌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기대효과는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 타당성 확보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방향 제시이다. 국내외 근대문헌 서비스 운영 사례 조사를 통해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ISP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실패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ISP 수립 및 실행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이론적 배경

2.1 근대문헌의 개념

근대문헌에 대한 정의는 학계나 실무에서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기존에는 고문헌의 범주 내에서 시대적 경계를 다소 모호하게 설정하여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다(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2022). 즉, ‘근대계몽기부터 해방기까지, 또는 일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근대문헌이나 관련 자료’를 근대문헌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근대문헌의 독자적인 개념 정립과 체계적인 관리 및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춘동과 오영식(2021)은 근대문헌을 근대계몽기부터 해방기에 간행된 문헌으로 정의하며,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 방향을 준용하여 근대문헌의 개념을 규정하고 시대적 범주를 설정하고자 한다.

2.1.1 시기에 의한 구분

근대문헌의 시기적 구분은 주로 정치·사회적 변혁기에 따른 문서 형태 및 내용의 변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갑오개혁(1894년), 한일합방(1910년), 3.1운동(1919년), 해방(1945년) 등이 주요 시기 구분의 기준점으로 제시된다(국사편찬위원회, 2020). 조연현(1985: 27-28)은 문학 자료를 중심으로 이러한 정치·사회적 사건들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이윤상(2006: 300-304)은 역사학계에서 한국 근대사를 크게 1876년 개항 무렵부터 1910년 한일병합까지의 시기와 1910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시기로 나누는 것을 지적하며, 전자를 ‘개화기’ 또는 ‘애국계몽기’로 부르는 용어의 보편화 추세를 언급하였다. ‘개화기’는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어문정책과 교육제도가 시작된 시기(1894년~1910년)를 의미하며, ‘애국계몽기’는 민족 자립을 도모한 움직임이 활발했던 시기를 강조하는 용어이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4)은 한국 근대문학자료 유산의 시기적 범위를 1894년~1945년으로 설정하고, 이를 ‘애국계몽기’로 명명하였다.

유춘동, 오영식(2021)은 ‘근대계몽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민족문화사연구소(2000)의 『근대계몽기의 학술·문예사상』은 1896년부터 1910년 사이에 발간된 서적을 포함하고 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로 불린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 시기를 다시 민족주의 발흥기(1911년~1930년)와 파시즘 체제와 해방기(1931년~1945년)로 세분화하여, 식민지 지배 통치 방식의 변화에 따른 문인들의 창작 문화 및 인쇄 출판문화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1.2 시기에 의한 구분문서 형태와 내용에 의한 구분

근대문헌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문서 형태와 내용 측면에서 변화를 보인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인 인쇄 기술과 출판 문화가 도입되면서, 한글을 사용한 서적과 잡지의 발행이 증가하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문헌들이 등장하게 된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통치의 영향으로 검열이 강화되고, 일본어를 사용한 문헌이 증가하며, 민족주의적 내용을 담은 문헌들은 탄압을 받게 된다. 해방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열망이 문헌에 반영되며, 다양한 이념과 사상이 공존하는 시대의 특징을 보인다.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2014)은 ‘근대문학자료유산 가이드’에서 근대의 기점으로 “언어, 제도, 사상 세 가지 측면”, “근대적 인쇄출판과 근대문학의 뚜렷한 상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 지점”을 제시하고, 1894년 계일의 천로역정 번역과 1895년 유길준의 서유견문 출간을 근대문헌 생산 시기의 기점으로 설정하였다. 하한선은 1945년 해방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근대문헌의 특징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시대적 범주를 설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근대문학 자료에 국한된 것이며, 모든 유형의 근대문헌을 포괄하는 기준은 아니다.

다른 기관들의 근현대 자료 아카이브 구축 사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개항부터 2030년대까지를 포괄하는 시대 구분을,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신문 디지털 컬렉션’은 대한제국부터 대한민국까지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대 구분 방식은 각 기관의 자료 특성과 서비스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근대문헌의 시대적 구분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며, 연구 목적과 자료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문헌의 발행 연도 정보를 중시하고,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여 근대문헌을 분석하고자 한다. 단순히 시기만으로 근대문헌을 나누기보다는, 문서의 형태, 내용, 출판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대문헌의 특징과 가치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된 시대 구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근대문헌을 고려하고 각 문헌의 발행 정보를 기준으로 1910년 한일합방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문헌을 근대문헌의 시기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다만, 근대문헌 전체를 포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유연한 접근방식을 통해 통합서비스 마련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2.2 근대문헌 서비스 및 운영 사례

2.2.1 국립중앙도서관 기존 서비스 분석

본 장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기존 서비스인 ‘한국고문헌종합목록’, ‘코리안 메모리’, ‘근대문학종합목록’,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가 제공하는 근대문헌 서비스를 종합 분석하고, 각 서비스의 특징을 비교·검토하여 근대문헌의 보존 및 활용 개선 방향과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컬렉션 서비스

① 한국고문헌종합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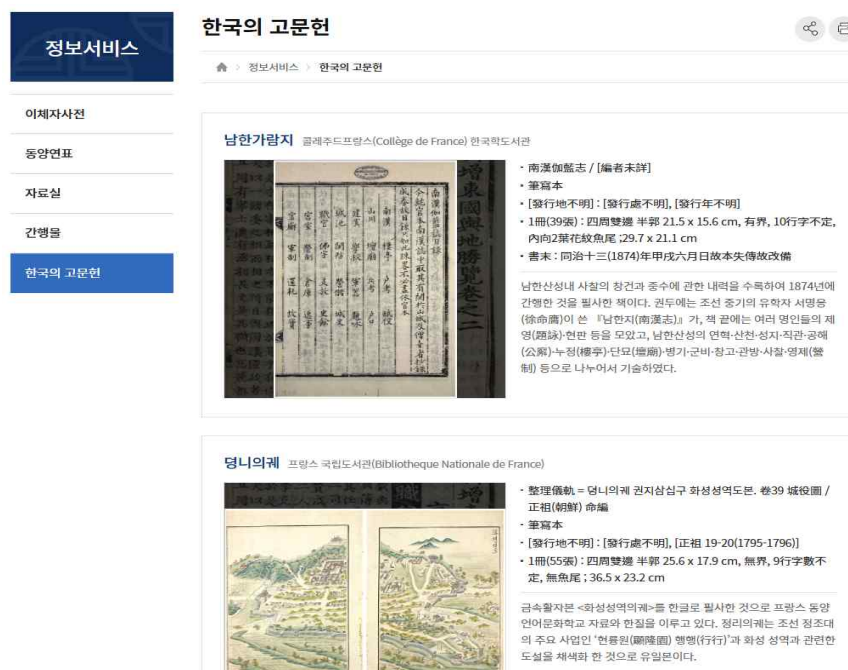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의 시작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으로, 2005년 정보통신부로부터 ‘국가지식정보자원’으로 지정받아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은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2004년 3월 창립) 회원기관 중 규장각 등 28개 참여기관으로부터 고서 목록 DB 37만 건을 제공받아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은 2021년 시스템을 개선하고, 변화된 정보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이용자 누리집·통합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였고, 2022년 1월 11일 “한국고문헌종합목록”으로 명칭을 바꾸고 신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은 일종의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이란 전통기록물의 서지정보, 해제, 원문 이미지, 원문 텍스트, 번역문 등을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웹 사이트 또는 웹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양기덕, 2016).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원문’과 독립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고문헌종합목록’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원문’ 두 서비스 모두 별도의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으로 분류된다(양기덕, 2016). 이러한 ‘전통기록물 정보시스템’은 전통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에 도움을 주어 자료의 공개성 및 보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연구가 활성화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남권희, 2003).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은 국내 공공대학도서관, 박물관, 사찰, 문중, 개인 등 민간 소장 고문헌을 발굴하여 서지 및 원문 DB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내 90개 기관, 국외 53개 총 143개 기관의 목록 DB 50만 건과 원문 DB 4만여 건을 서비스(기준일: 2024.09.25.)하고 있다. 한국고문헌종합목록에 참여기관의 유형에는 연구소, 공공도서관, 박물관, 대학도서관 등이 존재하며, 주요 참여기관은 대학도서관이다. 한국고문헌

종합목록은 영국, 중국, 일본, 미국 등 다양한 해외기관과도 연계하고 있으며, 각 참여기관들의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이 제공하고 있는 컬렉션은 ‘한국의 고문헌’이 있으며, 종합목록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기관의 소장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본 컬렉션의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장서각, 하버드대학 연칭도서관 등 국내외 기관과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고문헌의 소재를 바탕으로 서지 목록, 원문 이미지, 해제 등 관련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학문 분야의 발전과 전통문화 향유를 위함에 있다.



〈그림 1〉 한국고문헌종합목록 ‘한국의 고문헌’ 컬렉션

(출처: <https://www.nl.go.kr/korcis/oldBook/boardList.do>)

본 컬렉션을 통해 컬렉션에 속한 고문헌의 이미지, 서명, 기본적인 서지사항 및 설명뿐만 아니라, 해당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소장기관(한국고문헌종합목록의 참여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표제, 저자, 서적의 크기와 같은 기본적인 서지사항이 한문으로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 이용자들이 고문헌 컬렉션을 이용할 때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다.

위 내용을 통해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이 제공하는 컬렉션 서비스는 근대문헌보다는 고문헌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대문헌 일반적인 자료 검색을 통해서 근대문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근대문헌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 탭은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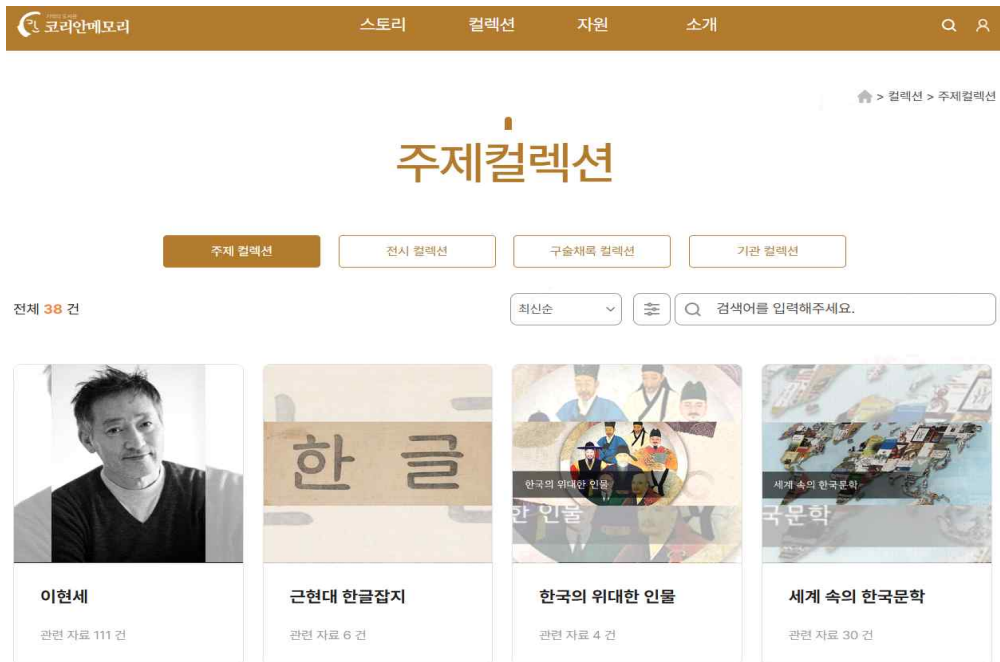
할 수 있다.

② 코리안 메모리(K-Memory)

코리안 메모리(K-Memory)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도서관 자료 중심 아카이브 서비스로, ‘한국의 개인 및 국가, 단체의 기억을 담은 국가지식문화자원’에 가치를 두고 있다. 또한, 도서관 및 문화예술기관의 자원을 디지털화하고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기반의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으로써 기능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코리안 메모리의 주요 추진 방향은 ‘지식자원 발굴 및 디지털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디지털컬렉션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공유’, ‘협업체 구성’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식자원 발굴 및 디지털화 추진의 경우, 전문 기관, 단체, 개인이 소장한 문헌, 비도서(음성, 사진, 영상, 필름 등), 구술채록 자료 등 개인 및 공동체의 기억이 담긴 다양한 자료의 디지털화 및 메타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디지털화 및 구축된 메타데이터 간의 연결을 통해 정보 확장성을 확보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형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추진 계획을 설정하였다. ‘디지털컬렉션 서비스’ 계획을 통해 인물, 장소, 사건, 시대별 콘텐츠와 연계 정보를 시각화된 UI로 제공하였으며, 문화기관 간 고아저작물 조사업무 협력 및 개방 공유를 위해 기존의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과 협력하고 연계하는 ‘디지털 콘텐츠 공유’ 추진을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협업체 구성’을 통해 도서관 등 문화기관과 같은 다양한 참여기관 간 협력 및 코리안 메모리 디지털 아카이브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진 방향을 통해 코리안 메모리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근대문헌을 발굴 및 디지털화하여 아카이브에 수록하고, 이를 디지털 컬렉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며 이용자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안 메모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 ‘스토리’, ‘컬렉션’, ‘자원’이 있으며, ‘자원’ 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자료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원, 구술채록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별도의 뷰어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원문 스캔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2〉 코리안 메모리 컬렉션 서비스 화면

(출처: <https://koreanmemory.nl.go.kr/USER/contents/SV0301000.do>)

코리안 메모리는 주제별 큐레이션을 통해 스토리 및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25일을 기준으로 스토리 273건, 컬렉션 105건(주제컬렉션 19건, 전시컬렉션 39건, 구술채록 컬렉션 3건, 기관컬렉션 44개 기관)이 존재한다. 또한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컬렉션 중 근대문학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근현대소설(신소설)인 ‘한글판 딱지본 소설’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컬렉션은 코리안 메모리에서 제공하는 분류인 ‘스토리’ 119건, ‘컬렉션’ 6건, ‘자원’ 122건을 제공하고 있다. ‘컬렉션’의 경우, 한글판 딱지본 소설과 관련성이 높은 소설 컬렉션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원’은 컬렉션의 스캔본, 서지정보, 설명, 관련 키워드 및 스토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원 유형	텍스트	자원 형식/매체	사진 이미지
발행자(창작자)	박건희(자음)	발행처(발행기관)	漢城書館
발행년도(발행일)	1916	표준번호/부호	
제공기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기관	국립중앙도서관
저작권	-	키워드	

자원 설명

『장백전』의 표지에는 장백이 원나라 황제의 항복을 받는 장면이 있다. 『장백전』은 명나라가 새로 건국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1914년 유일서관과 한성서관에서 공동으로 간행된 『장백전』이 딱지본으로 간행된 『장백전』으로는 처음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1914년 초판이 소장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1916년 한성서관에서 간행된 자료를 대상으로 해제를 진행한다. 『장백전』은 『유충렬전』 등의 영웅소설과 더불어 딱지본 고소설 중에서 가장 많이 유통된 작품이기도 하다. 물론 판소리계 소설의 간행 횟수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조동일의 연구에 의하면 15차례나 간행되었다고 한다. 『장백전』은 표지에 쓰여 있고, 『일세명장(一世名將)』인 장백이 펼쳐는 영웅의 일대기를 그대로 보... 더보기

관련 키워드(4건)

원제 (4) 주제 (3) 저자명 (1) 발행처 (0) 원소 (0) 식전 (0) 시대 (0)

〈그림 3〉 코리안 메모리 ‘자원’ 페이지

(출처: <https://koreanmemory.nl.go.kr/USER/contents/SV0200000.do>)

③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인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 제공되는 고신문은 1883년부터 1960년대까지 발행된,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로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DB구축 중장기 로드맵 사업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신문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고신문을 아카이브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고신문 디지털 컬렉션’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컬렉션에는 ‘시대별 컬렉션’과 ‘주제별 컬렉션’이 존재한다. ‘시대별 컬렉션’의 경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군정기’, ‘대한민국’ 4개의 시대구분으로 나뉘어 제공되며, 주제별 컬렉션의 경우 ‘부동산’, ‘물가’, ‘전쟁’, ‘선거’, ‘독립 및 해방’,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글’, ‘올림픽’, ‘감염병’, ‘독도/울릉도’, ‘하수’, ‘자연재해(천재)’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는 ‘고신문 디지털 컬렉션’에 해당하는 ‘시대별 컬렉

션’과 ‘주제별 컬렉션’을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정치, 학술 카테고리로 구분하였으며, 각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 고신문을 검색할 수 있다.

나. 검색서비스

일반적으로 검색서비스는 검색엔진을 통해 제공되며, 검색엔진은 키워드 탐색형, 주제별 디렉토리 탐색형, 그리고 이 두 방식을 결합한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신동민, 2001). 많은 근대문헌 서비스에서 각각의 검색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본 장에서는 주제별 디렉토리 탐색형 서비스를 ‘디렉토리 검색’, 키워드 탐색형을 ‘개요 및 자료 검색’으로 정의하고, 이와 더불어 다른 기관이 소장한 근대문헌을 검색할 수 있는 ‘연계기관 검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디렉토리 검색

디렉토리 검색은 주제어를 선택하여 검색하는 방식으로, 웹 문서 디렉토리 검색엔진의 분류 체계는 주제어 간의 상위·하위 관계 또는 연관 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주제 접근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제 언어 색인 시스템을 따르는 구조로 볼 수 있다(신동민, 2001). 이용자들은 디렉토리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전문적 지식 없이도 검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은 이러한 디렉토리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렉토리 검색은 내용형식별, 판종별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내용형식별 검색에는 ‘서지’, ‘문집’, ‘운서’, ‘법전’, ‘서화’, ‘금석문’, ‘방목/관안’, ‘족보/계보/세보’, ‘불전’, ‘주석/평주/해제’, ‘조약집/외교문서’, ‘통계’, ‘경전’, ‘지지’, ‘지도’, ‘고문서’ 16가지 내용형식 항목이 존재한다. 판종별 검색은 ‘금속활자본’, ‘목활자본’, ‘목판본’, ‘필사본’, ‘도활자본’, ‘포활자본’, ‘신연활자본’, ‘석판본’, ‘유인본’, ‘영인본’, ‘사진판본’, ‘미상’, ‘기타’ 13가지 항목이 존재하며, 각 항목의 하위 목록이 존재한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 검색 결과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을 제외한 다른 근대문헌 서비스에서는 대부분 디렉토리 검색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한국고문헌만의 차별화된 검색 특징으로 보인다.

② 연계기관 검색

정부차원에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를 장려하며 전통기록물 관련 국가 데이터베이스 사업이 실시되면서 많은 기관들이 전통기록물을 디지털화하기 시작하였다(양기덕, 2016). 디지털화된 전통기록물은 공유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근대문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의 연계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은 디지털화된 근대문헌 자료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한국고문헌종합목록’ 서비스도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MARC 데이터와 목차 데이터를 필요한 기관에 제공하여 각 기관의 고서 담당자들이 고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많은 기관들이 고문헌 및 근대문헌과 관련된 디지털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문헌 서비스는 이러한 연계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을 제외한 ‘근대문학종합목록’, ‘코리안 메모리’,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등은 해당 서비스와 연계된 기관의 단순 링크만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다른 기관을 통해 근대문헌 정보를 얻기 위해 각 참여기관의 링크를 직접 찾아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한 뒤 별도로 검색을 수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반면,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은 홈페이지에 ‘연계기관 검색’ 기능을 별도로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다른 연계 기관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직접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특징을 지닌다.

한국고문헌종합목록 연계기관 검색을 통해 타 기관의 소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고문헌종합목록 홈페이지 ‘연계기관검색’ 항목에는 ‘국가자료종합목록’, ‘디지털장서각’, ‘e뮤지엄’, ‘서울역사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다. 이 중, ‘국가자료종합목록’, ‘디지털장서각’, ‘e뮤지엄’의 경우, 정확한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을 통해 소장자료를 검색하고 있다. 이는, 검색 과정에 있어 이용자가 정확한 검색 키워드를 인지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서울역사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경우,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장자료의 리스트만을 제공하며, 검색 기능은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용자들이 두 기관에서 원하는 소장자료를 찾기 위해 직접 리스트를 검토해야 한다.

③ 개요 및 자료 검색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자료의 개요 및 서지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검색엔진

을 통한 검색 방식 중, 키워드 검색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대문헌 서비스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제공된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통합검색 창을 통해 국내외 소장자료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으며, 이 자료에는 근대문헌도 포함된다. 소장자료검색 창에서는 상세 검색 기능을 통해 발행년도와 자료 유형을 설정할 수 있고, 검색 결과로 서지정보, MARC, 소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문은 뷰어를 통해 제공되는 특징이 있다. 통합 검색 결과를 통해 검색 항목과 관련성이 높은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장 자료 검색 결과에서는 ‘관련분야 인기자료’도 함께 제공되어 근대문헌뿐만 아니라 잡지, 학술지, 기사와 같은 관련 문헌도 검색할 수 있다.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의 검색 방식은 크게 ‘간략 검색’과 ‘상세 검색’이 있다. ‘간략 검색’을 통해 검색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검색창이 존재한다. 검색창에는 검색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검색 조건에는 ‘전체’, ‘표제’, ‘저자명’, ‘발행자’, ‘키워드’가 있다. 아울러 근대문헌 및 고문헌의 특성상 한자어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다국어 입력기를 통해서 한글고어와 일본어 및 유니코드 한자 입력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검색 키워드 입력뿐만 아니라 소장기관 선택, 내용형식, 판종유형/판종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간략 검색을 통해 한국고문헌종합목록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 통합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상세 검색’에는 검색 연산자를 통한 논리적인 연산 검색이 가능하며 ‘표제’, ‘저자명’, ‘발행자’, ‘키워드’와 연산자를 함께 사용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간략 검색과는 다르게 분류기호, 검색유형, 제어번호, 발행연도 및 정렬 조건을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다.

검색 결과 목차, 해제, 원문 제공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중 원문은 뷰어를 통해서 제공된다. 현재 한국고문헌종합목록에서 연계, PDF, 텍스트 항목은 대부분 내용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간혹 관련 항목이 존재한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검색 결과에는 해당 항목을 찾을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림 4> 한국고문헌종합목록 검색 페이지

(출처 : <https://www.nl.go.kr/korcis/search/simple.do>)

근대문학종합목록은 국내 도서관, 문학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근대문학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근대문학종합목록에서는 연도별 작가 및 작품, 사건 정보가 가능하며, 근대문학자료의 해제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고문헌종합목록과 달리 기간 검색을 통한 자료 검색이 중심이며, MARC, 목차, 원문 확인은 불가하다는 특징이 있다.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는 크게 ‘키워드 검색’, ‘발행일 검색’, ‘신문 브라우징’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의 경우 키워드에 대한 연산자를 사용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찾고자 하는 기사의 문장 전체 또는 일부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다른 근대문헌 서비스와 달리 본 아카이브는 ‘문장 예시’와 같은 추천 키워드를 제시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용이성을 도왔다. 키워드 검색 페이지는 키워드 검색뿐만 아니라 ‘신문 선택’ 자료 검색 방식을 제공한다. ‘신문 선택’을 통해 검색하고 싶은 신문의 종류를 선택한 후, 특정 발행일 및 제외 일자를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22 -



〈그림 6〉 국립중앙도서관(좌)과 한국고문헌종합목록(우)의 메타데이터

(출처: : <https://www.nl.go.kr/NL/contents/search.do>(좌),
<https://www.nl.go.kr/korcis/search/searchResultDetail.do>(우))

② K-Memory와 한국근대문학종합목록

근대문학종합목록과 K-Memory의 경우, 제목(한글, 한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 메타데이터 항목은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K-Memory는 자원 유형, 자원 형식/매체, 표준번호/부호, 제공기관, 소장기관, 저작권, 키워드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③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는 ‘신문명’, ‘발행처’, ‘발행일’, ‘관련 주제어’, ‘기사위치’, ‘기사유형’, ‘기사주제’, ‘주기사항’ 과 관련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광고, 한장의 國債 護國의 彈丸, 栢田支署

MODSLOD원문

상세 정보

신문명	경남일보 [慶南日報]
발행처	慶南日報社
발행일	1950년 01월 25일
관련 주제어	관련 주제어가 없습니다
기사위치	2면 13단
기사유형	광고
기사주제	문학
주기사상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6 標記四二四八三三一年二十五日, 水曜日

태그 추가

입력하신 태그는 관리자의 검토 후 노출되며 검토 결과에 따라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태그는 #로 구분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확인취소

〈그림 7〉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항목

(출처: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87963276&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

라. 종합 분석 및 시사점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헌 서비스는 한국고문헌종합목록, 근대문학종합목록, 코리안 메모리(K-Memory),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등의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서비스는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각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통합적인 검색 및 연계 기능이 미흡하여 이용자들이 여러 플랫폼을 별도로 탐색해야 하는 비효율이 존재한다. 따라서 근대문헌 통합서비스 구축을 통해 자료의 중복을 줄이고 검색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디렉토리 검색의 도입을 통해 자료 유형에 따른 접근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자의 검색 용이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의 디렉토리 검색 방식은 체계적인 자료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전문가뿐 아니라 비전문가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디렉토리 검색의 적용은 근대문헌 서비스 전반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코리안 메모리의 컬렉션 기능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기반의 디지털 자료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코리안 메모리는 디지털 자원을 주제별로 큐레이션하고,

이를 통해 개인과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컬렉션 기능을 활용하면 근대문헌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전달하는 한편, 자료 간의 연관성을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연계기관 검색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연계기관 검색은 단순 링크 제공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용자들이 별도로 이동 후 검색을 수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기관의 디지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플랫폼 내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개선 방향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헌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디지털 아카이브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2.2 국내 서비스 기관 분석

본 장에서는 국내에서 근대문헌을 서비스하는 기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 기관의 현황과 서비스의 특징을 비교·검토하여 근대문헌의 통합서비스를 위한 제안 사항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조사기관 선정

국내 서비스 조사기관은 총 50개 기관으로 국립도서관 2개, 기록원 2개, 대학도서관 33개, 박물관 7개, 기타 기관 6개가 선정되었다. 각 기관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근대문헌을 보존하고 관리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표 1〉 국내 서비스 기관 조사 범위

카테고리	기관명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기록원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대학도서관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서울), 경기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서울),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서울),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천안 울곡도서관), 대구가톨릭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 동덕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 영남대학교, 용인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양대학교
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독립기념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전쟁기념관
기타 기관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뮤지엄 한미, 아카이브81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국회도서관과 법원도서관은 근대 시기의 국회·법원 자료는 물론 일반도서, 단행본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 관련 자료부터 일반도서, 고서, 연속간행물, 학술 기사까지 폭넓게 근대 시기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법원도서관은 근대 시기의 법령, 판례, 사업연감, 관보, 단행본 등의 자료 유형을 전자책으로 서비스하여 원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은 근대 시기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여 근대사 연구의 필수적인 원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기록원은 근대문헌을 디지털화하여 이용자에게 원문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에 의하면 457개의 대학도서관(2023년 3월 1일 기준) 중 근대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33개 기관으로 파악된다. 대학도서관은 근대 시기 문헌을 방대하게 소장하는 기관이며, 이용자들이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검색 환경과 시기별, 주제별로 구성된 컬렉션을 제공한다. 일부 대학도서관에서는 고문헌 담당자가 근대문헌을 함께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근대문헌을 포함한 고문헌을 위한 특별시설이 존재하기도 한다.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의 박물관들은 근대유물의 보존과 전시를 통해 근대 시기 자료를 이용자들에게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은 수집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원문, 텍스트본, 번역본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근대문헌은 다른 유물들과의 연계를 통해 디지털 전시로도 제공된다.

국사편찬위원회, 아카이브814(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기타 기관들은 방대한 근대사 자료를 수집, 정리, 제공한다. 특히, 아카이브814의 경우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역사 자료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보인다. 단순히 자료를 디지털로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제별로 큐레이션된 디지털 컬렉션과 지리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대사 자료를 보다 입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 근대문헌 자료 운영 지침

① 대학도서관

일반적으로 대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의 규정과 지침, 조직도 및 직원들을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도서관의 규정 내에서 자료 운영 지침을 안내하고 있으며 소장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을 밝힌다. 다만, 근대문헌만을 한정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근대문헌이 포함된 고문헌 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중 경상국립대학교는 별도의 고문헌도서관을 운영하며, 자료 운영 지침을 가장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일부 대학도서관에서는 근대문헌에 대한 자체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단국대학교에서는 ‘1910년 이후부터 1959년 이전까지 국내에서 간행된 유일본 또는 희귀본

도서’를 ‘준고서’라고 명명하며 관리한다. 연세대학교에서는 ‘개화기 이후 한국 전쟁기 이전에 국내에서 간행된 자료 / 한국전쟁기 이전에 국외에서 간행된 한국 관련 자료’를 ‘신서 귀중본’이라고 명명하며 관리한다.

〈표 2〉 대학도서관 고문헌 자료 운영 지침

대학 기관명	설명
경상국립대학교	별도의 고문헌도서관인 ‘남명학고문헌시스템’을 운영하며,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 운영지침(2020. 1. 16. 제정)]을 통해 수집 방법과 수집 범위, 조직인원 등을 안내함.
단국대학교	「고문헌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내규」를 통해 고문헌과 근대문헌의 정의 등을 안내함.
동국대학교	「고서실 운영 지침」을 통해 수집 정책과 수집 범위, 고문헌의 정의, 조직인원 등을 안내함.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 수증·수탁 관리 세칙」을 통해 고문헌에 대해 정의함.
서울대학교	「고문헌자료실 자료 관리 지침」을 통해 고문헌에 대해 정의하고 구분하여 관리함.
연세대학교	「고문헌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내규」를 통해 고문헌과 근대문헌을 구분하여 관리함.

② 국립도서관·박물관

대학도서관 외의 기관들도 근대문헌만을 위한 자료 운영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전체적인 자료 운영 지침을 공개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홈페이지에서 자료수집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자료수집 범위는 입법 지원자료, 국내자료(일반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회색문헌, 비도서), 국외자료, 특성화자료(독도자료, 통일자료, 영토자료), 전자자료, 기타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입, 납본, 기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법원도서관은 홈페이지에서 ‘법원도서관 자료수집에 관한 규정’과 ‘법원사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지침’을 통해 법원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 관리, 등록, 활용 방식을 상세히 안내한다. 자료는 구입, 수증, 교환, 납본 등의 방법으로 수집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박물관은 총체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집 정책에서 기반하여 소장품을 총체적으로 수집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예규편람(20240611)을 통해, ‘박물관 관련 자료’ 페이지에 소장품 구입 방식 및 절차, 관련 서류 양식을 제공한다.

〈표 3〉 국립도서관과 박물관의 자료 운영 지침

기관명	설명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의 자료수집정책 페이지를 통해 수집 기준 및 정책을 안내함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자료수집에 관한 규정」, 「법원사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지침」을 통해 자료 수집 및 관리 지침을 안내함
서울역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집 정책을 참고함 (서울역사박물관 국제학술강좌 제5집, 2006)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의 예규집(2023.6.21.)을 통해 수집 기준 및 정책을 안내함

다. 검색서비스

대부분 국내 기관은 ① 키워드 검색, ② 제한 및 상세 검색, ③ 디렉토리 검색의 형태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디렉토리 검색보단 제한 및 상세 검색을 통해 근대 시기 문헌을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물관에서는 근대문헌을 검색하기 위해서 디렉토리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지류’ 혹은 ‘문헌’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키워드 검색

키워드 검색은 이용자가 검색하고 싶은 자료의 서명, 저자, 출판사 등을 통해 직접 검색하는 기능이다. 이용자가 검색하고 싶은 문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검색이 가능하다. 국내 서비스 기관 중 경상국립대학교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자체 검색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키워드 검색 방식을 지원하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고문헌도서관인 ‘남명학고문헌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직관적인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원문검색’과 ‘목록검색’을 통해 키워드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데 원문검색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원

문 이미지를 검색 및 열람하는 기능이며, 목록검색은 경상국립대학교의 본 도서관 홈페이지의 소장자료 검색 화면으로 연계되는 기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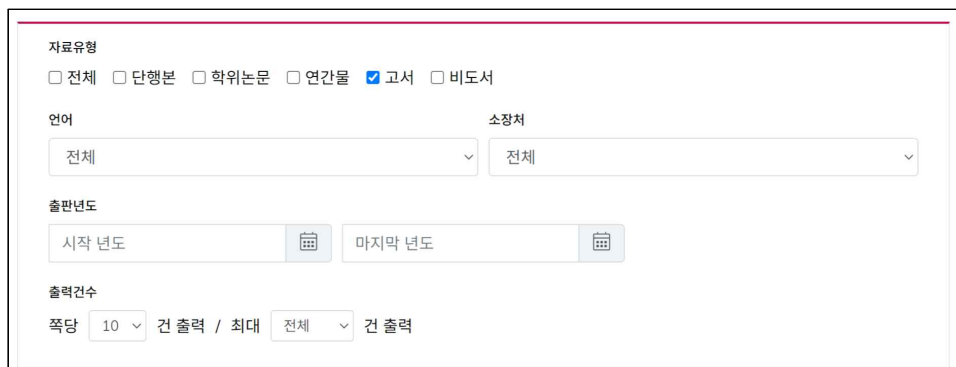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근대문헌을 검색할 수 있다. 기본적인 키워드 검색 외에도 상세 검색, 시소러스 검색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검색이 가능하다. 키워드 검색 시 ‘문자입력기’를 이용하면 ‘음가’, ‘코드’, ‘부수’, ‘총획수’, ‘신출한자’, ‘한어병음’, ‘일본어 음독’ 등의 입력 문자로 자료를 정밀하게 검색할 수 있다.

② 제한 및 상세 검색

키워드 검색 기능에는 제한 및 상세 검색을 제공한다. ‘고문헌’, ‘고서’ 카테고리나 상세 검색 내 고서만을 선택하여 고문헌 자료를 한정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이후 근대문헌 통합서비스에서는 전문 연구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더욱 구체적인 제한 검색 및 상세 검색이 지원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은 고서 카테고리를 통해 소장자료 중 고서만을 한정적으로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고서 카테고리를 통해 이용자는 방대한 자료 가운데 필요한 고서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고려대학교 도서관은 소장자료를 체계적으로 검색하는 세분화된 검색시스템을 제공한다. 특히 고서 자료유형을 선택하면 고서 자료에 한정된 검색 결과를 반환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고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자료유형
☐ 전체 ☐ 단행본 ☐ 학위논문 ☐ 연간물 ☒ 고서 ☐ 비도서

언어 소장처
 전체 전체

출판년도
 시작 년도 마지막 년도

출력건수
 쪽당 10 건 출력 / 최대 전체 건 출력

<그림 8> 고려대학교 도서관 상세 검색 화면

(출처: 고려대학교 도서관)

③ 디렉토리 검색

디렉토리 검색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각각 선택하여 검색하는 방식이다. 디렉토리 검색은 홈페이지 내 존재하는 정보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이 주제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디렉토리 검색은 키워드 검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전 지식이 부족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내 서비스 기관 중 디렉토리 검색 방식을 지원하는 기관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대표적이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검색서비스 특화 기관으로 고문헌 자료를 전문적인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별도의 ‘고문헌 원문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여 고문헌만을 한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이나 제한 및 상세 검색만을 지원하는 타 대학도서관과 달리 고문헌 원문검색 사이트에서는 주제별, 언어별, 시대별로 검색할 수 있는 디렉토리 검색을 통해 이용자에게 직관적인 검색 환경을 제공한다.



〈그림 9〉 서울대학교 도서관 고문헌 원문검색 사이트 화면

(출처: 서울대학교 도서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근현대사 아카이브’는 근현대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렉토리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주제별, 시대별, 유형별로 분류된 자료를 선택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주제별 디렉토리를 통해 특정 주제나 관심사로 세분화하여 자료를 제공하며, 시대별 디렉토리를 통해 역사적 흐름에 따라 자료를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유형별 디렉토리를 통해 자료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다.

디렉토리 검색					통합검색	
○ 주제별					○ 시대별	○ 유형별
○ 정치행정	○ 경제산업	○ 사회환경	○ 교육과학	○ 문화예술	○ 개항~대한제국 (1910)	○ 이미지
●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 문화	○ 일제강점기 (1910~1945)	○ 영상
○ 법률	○ 산업	○ 치안	○ 학술	○ 예술	○ 광복~1950년대	○ 음원
○ 행정	○ 건설(토목)	○ 여성	○ 역사	○ 체육	○ 1960년대	○ 도서
○ 사법	○ 금융	○ 환경	○ 과학	○ 종교	○ 1970년대	○ 기타
○ 외교	○ 무역	○ 자연	○ 기술	○ 언론	○ 1980년대	
○ 군사	○ 재정	○ 사회운동	○ 의학	○ 방송	○ 1990년대	
○ 통일(안보)	○ 기업	○ 환경운동	○ 통신	○ 문학	○ 2000년대	
○ 민주화운동	○ 공산품	○ 시민운동	○ 교통	○ 음악	○ 2010년대	
○ 독립운동	○ 노동운동			○ 민속	○ 2020년대	
○ 식민통치					○ 연도미상	

〈그림 10〉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근현대사 아카이브
디렉토리 검색 화면

(출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라. 서비스 특화 사례

국내 서비스 기관들의 서비스 특화 사례는 ① 컬렉션 및 아카이빙 특화 기관, ② 높은 원문 접근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컬렉션 및 아카이빙 특화 기관은 경상국립대학교, 고려대학교, 국회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법원도서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으로 9개 기관을 예시로 들 수 있다.

② 높은 원문 접근성을 제공하는 기관은 경상국립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으로 5개 기관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근대문헌 서비스 특화 기관은 근대문헌 소장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근대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33개의 대학도서관 중 서울대학교가 1위, 고려대학교가 2위, 경상국립대학교가 6위, 단국대학교가 8위이다. 이들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아카이빙과 디지털 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4〉 국내 서비스 기관들의 서비스 특화 사례

구분	기관명
① 컬렉션 및 아카이빙 특화 기관	경상국립대학교, 고려대학교, 국회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법원도서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② 높은 원문 접근성 제공기관	경상국립대학교(남명학교문헌시스템),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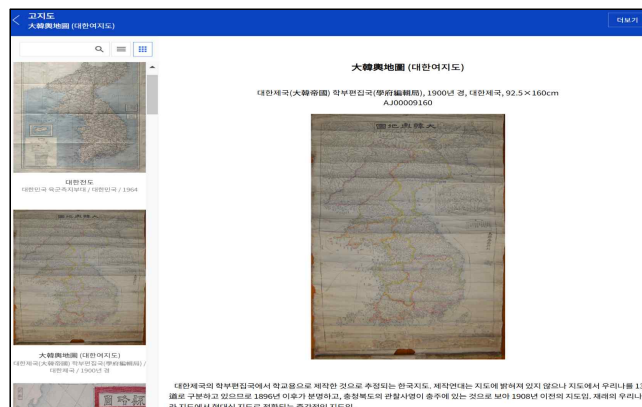
① 컬렉션 및 아카이빙 특화 기관

컬렉션 및 아카이빙에 특화된 기관으로는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의 국립도서관과 경상국립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대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근현대사 아카이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의 박물관 및 기타 기관 등이 있다.

위의 기관은 근대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컬렉션 및 아카이빙 서비스를 기획하여, 특정 주제나 시대를 중심으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제공하고 있다. 각 컬렉션 및 아카이브 내에서는 해당하는 자료의 목록을 살펴볼 수 있거나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의 정보 및 원문 이미지도 확인할 수 있다.

□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고지도’와 ‘국회도서관 소장 귀중자료’라는 테마 컬렉션을 운영하여 역사적, 학문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디지털로 전시하고 있다. ‘고지도’ 컬렉션에서는 독도 관련 국내외 고지도와 고해상도로 스캔하여 해제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소장 귀중자료’ 컬렉션에서는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귀중본 중 역사적, 학문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엄선하여 사진과 설명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림 11> 국회도서관 고지도 컬렉션 화면

(출처:

<https://dl.nanet.go.kr/theme/htmlView.do?themeId=6>)



<그림 12> 국회도서관 소장 귀중자료 컬렉션 화면

(출처:

<https://dl.nanet.go.kr/theme/htmlView.do?themeld=7>)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에서는 ‘귀중본·고서’ 컬렉션을 운영하여 ‘귀중본·고서 전자책 서비스’, ‘국역 조선고등법원판결록’, ‘국역 조선형사령석의’ 등의 귀중한 사법 자료를 제공한다. 각 컬렉션 안에는 해당 컬렉션의 자료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자료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귀중본·고서 전자책 서비스’를 통해 법원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법원 내외부의 귀중본과 고서를 검색하고 디지털로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 컬렉션에는 법령 컬렉션, 판례 컬렉션, 사법연감 컬렉션, 관보 컬렉션, 단행본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컬렉션 내에서 해당 자료의 서명, 저자, 발행년도 등의 상세 정보와 원본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다.



<그림 13> 법원도서관 귀중본·고서 전자책 서비스 화면

(출처:

<https://e-book.scourt.go.kr/precious/search?t=cate&lcate=003&k=&page=4>)

□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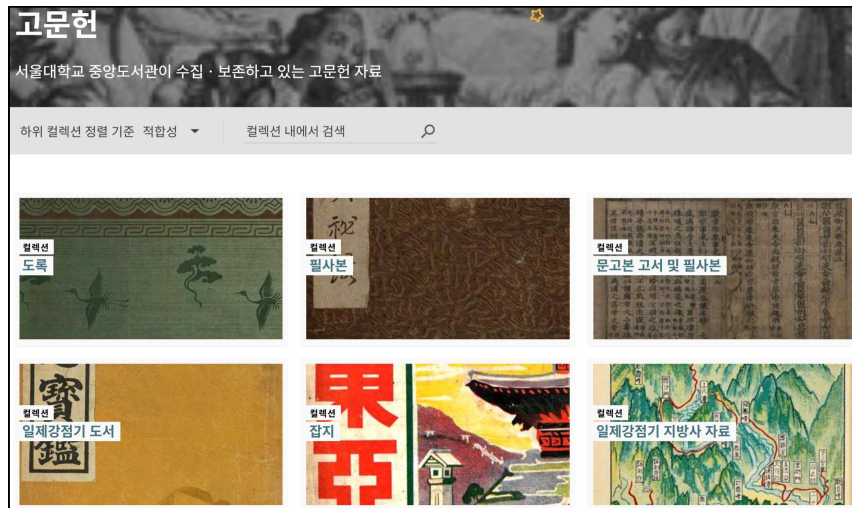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은 GNU COLLECTION의 ‘춘추문고 희귀본’ 컬렉션을 통해 소장 희귀본 자료를 제공하며, 연도별로 자료를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컬렉션은 1800년대, 1901~1910년, 1911~1920년, 1921~1930년, 1931~1940년, 1941~1950년, 1951~1970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연도별 페이지에서는 해당 연도의 자료 목록과 함께 춘추문고의 소장자, 기증자, 기증일자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이용자가 자료를 직접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의 소장 정보와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 고려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은 ‘아카이빙(Archiving) 메뉴’에서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학위논문, 고서(귀중서/일반), 고지도 등의 유형별로 원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아카이브 자료에는 ‘귀중서(고서)’, ‘귀중서(연속간행물)’, ‘귀중서(단행본)’, ‘희구서(고서)’, ‘딱지본/고소설’, ‘경성지방 법원 문서’, ‘고지도’, ‘고신문’, ‘고서전시/해제’, ‘고서배접’, ‘구한국 외교문서’ 등이 있다. 각 컬렉션 페이지에서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컬렉션의 목록, 서지 정보, 원문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다.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디지털 컬렉션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기관이다. 특히 고문헌 컬렉션에서는 ‘일제강점기 도서’, ‘개화기 도서’, ‘한국 근대문학 자료’, ‘딱지본’ 등 주제별로 컬렉션을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각 컬렉션은 주제와 성격에 따라 여러 차례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 컬렉션 > 고문헌 > 한국 근대문학 자료 > 한국어) 각 컬렉션의 페이지에서는 자료의 목록과 함께 키워드 검색을 제공하며, 해당 자료의 서지 정보와 원문 이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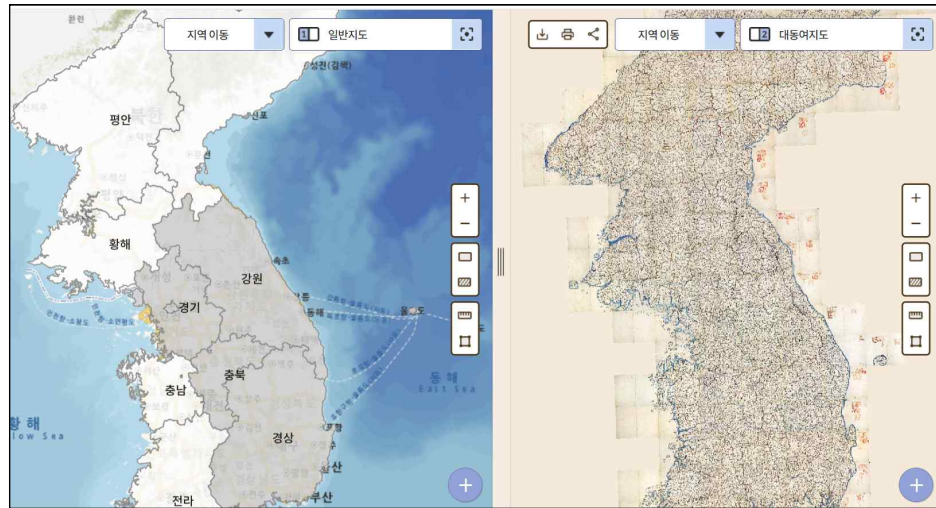
〈그림 14〉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화면

(출처:

https://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primo-explore/collectionDiscovery?vid=82SNU&collectionId=81704779720002591&lang=ko_KR)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고도서’, ‘고문서’, ‘고지도’ 등의 카테고리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컬렉션을 잘 구축한 기관이다. 각 컬렉션 내에서도 주제에 따라 도서를 분류하여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컬렉션 페이지에서는 자료의 목록과 함께 키워드 검색을 제공하며, 해당 자료의 서지 정보와 원문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역사지리정보 서비스’를 통해 지도, 지리지, 읍지 등 지리 자료를 디지털 지도로 시각화하여 제공하며, ‘규장각 역사문화콘텐츠’를 통해 규장각 소장자료와 기관의 역사에 대한 칼럼 및 도록을 열람할 수 있는 고문헌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그림 1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역사지리정보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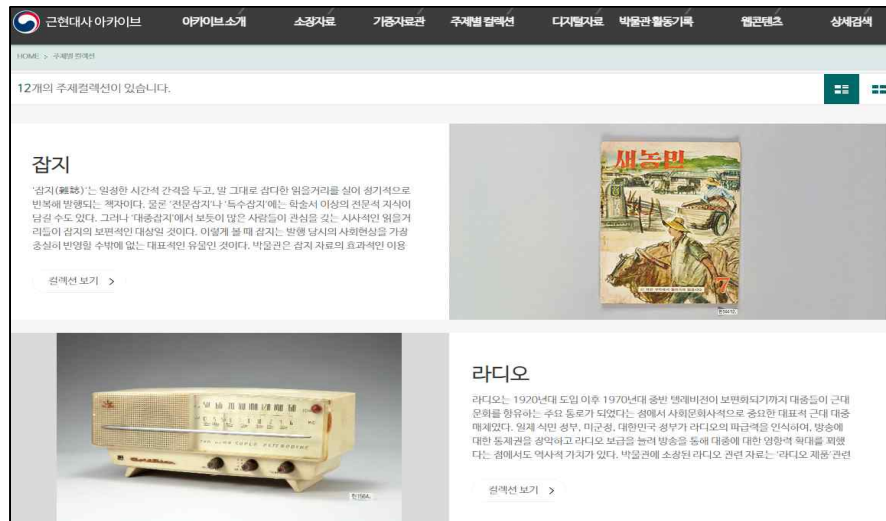
(출처: <http://kyuhgis.snu.ac.kr>)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사 연구 및 자료 아카이브 기관으로 ‘삼일운동’, ‘헌정사’, ‘조선시대 법령 자료’ 등과 같은 역사적 문헌과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디지털화한다.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세종대왕 실록’ 등 연구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며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한국의 역사적 행정구역과 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복원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제공한다.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근현대사 아카이브’에서는 ‘잡지’, ‘라디오’, ‘영화’ 등 12개의 주제 컬렉션을 제공한다. 각 컬렉션 안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기의 자료와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디지털로 전시하고 있다. 각 컬렉션 페이지에는 관련 주제의 설명과 함께 자료 목록이 제공되며 문서, 사진, 영상 등의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컬렉션 내에서는 세부 주제에 따라 여러 차례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예: 잡지 > 사회 경제 > 시사 > 개항~대한제국)



<그림 16>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근현대사아카이브 주제별 컬렉션 화면

(출처: <https://archive.much.go.kr/archive/subject/list.do>)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은 ‘근대 자료 산책’이라는 온라인 테마 컬렉션을 통해 근대 시기를 대표하는 주요 문헌들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개의 컬렉션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컬렉션은 주요 근대문헌의 원문 이미지와 함께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연구자와 일반 대중이 문헌의 역사적 맥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 1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근대 자료 산책 컬렉션 화면

(출처: <https://lib.aks.ac.kr/#/banner/list>)

② 높은 원문 접근성을 제공하는 기관

근대문헌의 디지털 원문 이미지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기관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의 국립도서관과 경상국립대학교(남명학교문헌시스템),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대학도서관으로 총 7개의 기관이다. 각 기관들은 디지털 원문 이미지의 제공 방식과 접근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회도서관은 일부 자료만 원문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검색 시 ‘원문 있는 자료’, ‘원문 없는 자료’, ‘음성지원 자료’, ‘다운로드 가능 자료’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원문이 제공되는 경우는 로그인 절차나 뷰어 프로그램 설치 없이 바로 원문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지만 일부 원문은 국회도서관 방문 후에 이용 가능하다.

법원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소장자료의 원문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으나 ‘귀중본·고서 전자책 서비스’ 컬렉션에서는 해당 자료의 원문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다. 별도의 로그인 절차나 뷰어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원문 이미지를 바로 열람할 수 있다.

7개의 기관 중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디지털 원문 이미지의 제공 범위와 접근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된다. 2개 기관은 로그인 절차나 뷰어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원문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어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자료를 디지털 원문 이미지로 제공하여 높은 자료 접근성을 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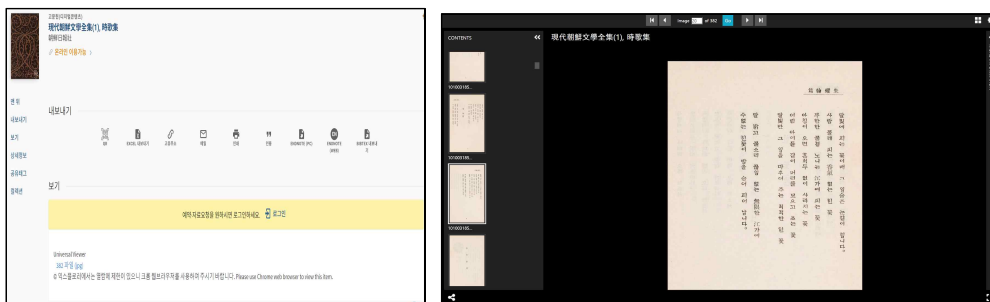
경상국립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우 로그인 절차나 뷰어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원문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자료만 원문 이미지화하였다. 또한, 경상국립대학교에서는 별도의 고문헌도서관 사이트인 ‘남명학교문헌 시스템’에서만 원문 이미지 열람이 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다.

반면 고려대학교는 대부분의 자료를 원문 이미지화하여 이용자들이 뷰어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원문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열람을 위해서는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며 일부 자료는 교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표 5〉 높은 원문 접근성을 제공하는 기관

대학명	로그인 여부	원문 이미지 제공 범위	접근 제한 사항
국회도서관	로그인 없이 이용	일부 자료	일부만 원문 이미지화, 일부 원문은 국회도서관 방문 후 열람 가능
법원도서관	로그인 없이 이용	일부 자료	‘귀중본·고서 전자책 서비스’ 컬렉션 내의 자료만 원문 열람 가능
경상국립대학교 (남명학교문헌시스템)	로그인 없이 이용	일부 자료	별도의 남명학교문헌 시스템에서 제공
고려대학교	로그인 필요	대부분 자료	일부 자료는 교내에서만 이용 가능
단국대학교	로그인 없이 이용	일부 자료	일부만 원문 이미지화
서울대학교	로그인 없이 이용	거의 모든 자료	제한 사항 없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로그인 없이 이용	거의 모든 자료	제한 사항 없음

* 기관 서비스 예시



〈그림 18〉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원문 이미지 제공 화면

(출처:

https://primoapac01.hosted.exlibrisgroup.com/primo-explore/fulldisplay?vid=82SNU&docid=82SNU_ALMAD1173350572000259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특정 자료를 검색한 후 ‘온라인 이용 가능’ 옵션을 선택하면 해당 자료의 원문 이미지를 즉시 열람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는 로그인 절차나 뷰어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원문에 접근할 수 있어 누구나 원문 이미지를 열람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문 이미지를 제공한다.

① 대학도서관

또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한국 기록문화의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에 소재한 한국학 자료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첫 번째 사례로 ‘하버드대학교 옌칭도서관’과 협력하였다. 하버드대학교 옌칭도서관에 소장된 한국학 자료 중에서 국내의 타 기관에서 당시까지 수집하지 않은 자료들을 선별한 뒤, 디지털 이미지화하여 제공한다. 하버드 옌칭 한국본DB에서는 전체 자료 목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키워드 검색을 통해 자료를 탐색할 수 있다. 각 자료는 서지 정보와 함께 원문 이미지가 제공된다. 원문 이미지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나 뷰어 프로그램 설치 없이 즉시 열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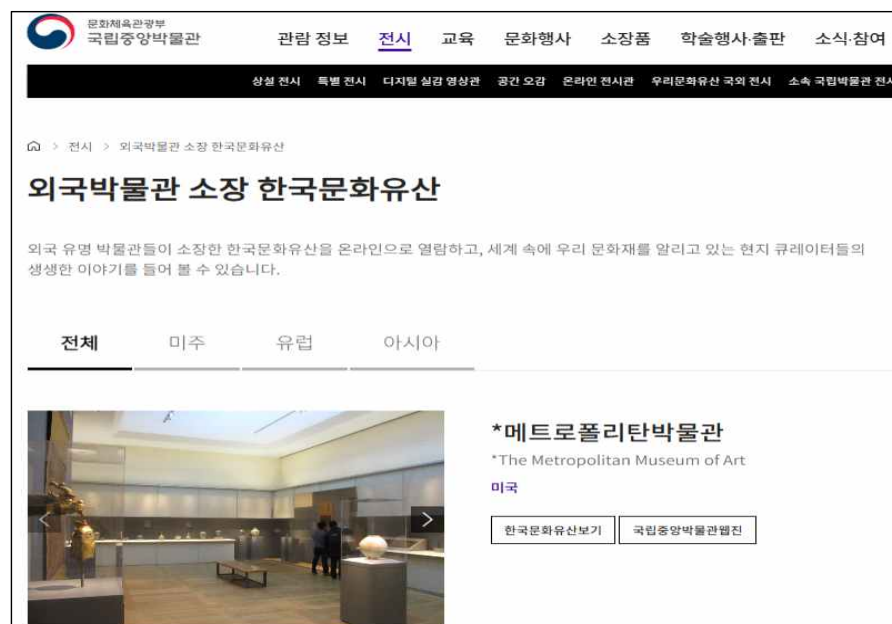


(출처: <https://kvudb.snu.ac.kr/book/list.do>)

② 박물관

박물관 역시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아카이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웹사이트에서 외부 아카이브나 문화유산 페이지로의 연계 링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서울역사아카이브’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연계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아카이브’는 서울의 기억과 역사가 남긴 흔적을 보존하여 약 3만여 점에 이르는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민속 아카이브’와의 연계 서비스를 통해 방대한 양의 민속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민속아카이브는 100만 점 이상의 민속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사진, 음원, 영상, 출판물뿐만 아니라 온라인 비공개자료 포함된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외국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유산 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외국(미주, 유럽, 아시아 등)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문화유산 열람 기능을 제공한다. 이 페이지는 외국 박물관의 유물 정보를 연결하는 단순한 링크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링크를 클릭하면 외국 박물관의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해당 박물관의 사이트로 이동한 후, 필요한 유물을 검색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그림 20〉 국립중앙박물관 외국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유산 화면

(출처: <https://www.museum.go.kr/site/main/exhiForeignMuseum/list/all>)

③ 기타 기관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 연구와 자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의 역사적 행정구역의 데이터베이스이자 각 역사적 행정구역의 경계를 복원한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규장각 역사지리정보’ 사이트로 연계되는데 ‘규장각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된다. 규장각 역사지리정보 사이트에서는 조선시대의 행정구역, 고지도, 지리적 데이터 등을 과거 지도와 현재 지도와 함께 비교하며 열람할 수 있다.

바. 메타데이터 서비스

①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메타데이터 표준인 ‘MARC’를 사용하고 있으며 ‘MARC 보기’를 통해 상세한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의 항목은 ‘자료명/저자사항’, ‘발행사항’, ‘청구기호’, ‘자료실(자료 위치)’, ‘형태사항’, ‘제어번호’, ‘주기사항’, ‘원문’ 제공 여부, ‘미리보기’ 등이다.

법원도서관이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표준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MARC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의 항목은 ‘자료유형’, ‘분류기호’, ‘논문/서명’, ‘저자’,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ISBN’ 제공 여부, 자료 위치 등이다.

②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의 경우,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의 항목이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는 MARC 메타데이터 표준을 사용하며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항목은 ‘자료유형’, ‘서명/저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청구기호’, ‘언어’, ‘등록번호’, ‘MARC 제공 여부’ 등이 포함된다.

〈표 6〉 대학도서관 메타데이터 항목

대학명	자료유형	서명	저자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청구기호	총서사항	일반주기	내용주기	분류기호	언어	MARC	등록번호	디지털원문	기타 (공통항목이 아닌 항목)
강남대	○	○	○		○	○	○						○	○		언어부호 Control Number
건국대	○	○	○		○	○	○						○	○		
경기대	○	○	○	○	○	○	○					○	○	○		이용제한사항
경상 국립대	○	○	○		○	○	○	○		○				○		
경희대	○	○	○	○	○	○		○			○	○	○	○		
계명대	○	○	○	○	○	○	○		○			○	○	○		
고려대	○	○	○	○	○	○	○		○	○			○	○	○	기타표제
국민대	○	○	○		○	○	○						○	○		
단국대	○	○	○	○	○	○	○		○		○	○	○	○	○	
대구 가톨릭대	○	○	○	○	○	○	○	○	○	○	○	○	○	○		
동국대	○	○	○		○	○	○				○	○	○	○		표지표제
동덕여대	○	○	○	○	○	○	○		○				○	○		다양한서명 개인저자 웹자원정보 키워드
서강대	○	○	○		○	○	○		○			○	○	○		
서울대 규장각		○	○		△	△	○								○	*1)
서울대	○	○	○	△	○	○	○	△	△	△		○		○	○	발행연도 주기사항 컬렉션경로 출처
성균관대	○	○	○		○	○	○	○					○	○		서지주기 주제명
숙명여대	○	○	○	○	○	○	○		○		○	○	○	○		비통제주제어
숭실대	○	○	○		○	○	○	○					○	○		
국립 안동대	○	○	○		○	○	○	○		○			○	○		
연세대	○	○	○		○	○	○		○			○	○	○		
영남대	○	○	○	○	○	○	○		○	○	○	○	○	○		

대학명	자료 유형	서 명	저 자	판 사 항	발 행 사 항	형 태 사 항	청 구 기 호	총 서 사 항	일 반 주 기	내 용 주 기	분 류 기 호	언 어	M A R C	등 록 번 호	디 지 털 원 문	기타 (공통항목이 아닌 항목)
용인대	○	○	○		○	○	○						○	○		KDC, 키워드, 가격, Control Number
울산대		○	○		○	○	○							○		표제, 기타표제 발행처, 발행일 형태, 출처 컬렉션경로
원광대		○	○		△	○							○	○		출판사항
이화여대	○	○	○		○	○	○				○	○	○	○		주제명 (개인명)
장로회 신학대		○	○		○	○	○							○		출판사항 총서명 부출개인
전남대	○	○	○	○	○	○	○		○		○	○		○		통일서명 주제명
전북대	○	○	○		○	○	○	○	○		○	○	○	○		
전주대	○	○	○	○	○	○	○			○				○		키워드
조선대	○	○	○		○	○	○	○			○	○	○	○		원서명 원본주기
충남대	○	○	○	○	○	○	○		○			○	○	○		일반주제명
충북대	○	○	○		○	○	○						○	○		
한양대	○	○	○		○	○	○						○	○		

△는 유사필드

③ 박물관, 기념관, 아카이브 등

박물관, 기념관, 아카이브 등의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표준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홈페이지에서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는 ‘서명’,

- 1)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메타데이터: 원서명, 현대어서명, 청구기호, 편저자(한자), 편저자(한글), 판본사항, 간행지, 간행자, 간행연도, 책권수, 광곽, 판심, 책크기, 표제지 내제지, 서, 발, 권수, 권말, 장서기, 내사기, 간기, 자료소개, 인기, 사부 분류, 기타, M/F번호

‘시대’, ‘재질’, ‘크기’ 등의 기본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 중에서는 국립고궁박물관의 메타데이터가 가장 상세하다. 특히 ‘조선왕조 기록문화유산’ 페이지에서는 왕실 관련 도서들의 메타데이터는 물론 서지사항, 해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는 ‘서명’, ‘제목’, ‘간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시대’ 등으로 세분화된 항목을 구성하여 이용자들에게 메타데이터를 상세하게 제공한다.

서명		간행사항	
한글	면암선생문집	간행년	1908년(융희 2)
한문	勉菴先生文集	간행처	미상
제목(題目)		형태사항	
표제	勉菴集	크기	31.0cm×20.3cm
권수제	勉菴先生文集	권책수(卷冊數)	46권(본집40권 속집2권 부록4권) 23책
편저자	최익현(崔益鉉, 1866~1906년)	장정(裝訂)	오침안정(五針眼訂)/선장(線裝)
		판종(版種)	목활자본
		광곽(匡郭)	사주쌍변(四周雙邊) 반곽(半郭) 20.9cm×15.4cm
		행자수(行字數)	10행 20자
주기사항		시대	
자료소개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은 조선 후기 문인이자 의병장인 최익현(崔益鉉)의 시문집이다.	세기	20세기
사부(四部)분류		왕대	미상
		분류	개인
		기타	

〈그림 21〉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기록문화유산 면암선생문집 메타데이터 화면

(출처:

<https://www.gogung.go.kr/gogung/pgm/cultureHeritage/view1.do?clturHrtgId=409&menuNo=800068>)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같은 국내 주요 박물관은 디지털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픈 API를 통해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문화공공데이터 광장을 통해 공유된다.

문화공공데이터 광장이란 누구나 쉽게 문화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오픈 API를 통해 문화산업, 공연, 전시 등 관련 정보 데이터를 제공한다. 주요 박물관에서 메타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면 외부 개발자나 이용자가 변수를 설정하여 특정 유물의 메타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추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사. 근대문헌의 온라인서비스 미제공 대학도서관

근대문헌을 소장하고 있지만 서비스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대학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근대문헌의 온라인 서비스 미제공 대학도서관

강남대, 경기대, 국민대, 동덕여대, 서강대, 숙명여대, 숭실대, 용인대, 울산대, 장로회신학대, 전북대, 전주대, 조선대, 충북대, 한양대 (총 15개 기관)

이들 대학도서관 중 울산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근대문헌의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위의 대학도서관 중에 유일하게 ‘근현대컬렉션’을 운영하는 등 높은 가치의 콘텐츠를 가진 기관이다. 울산대학교 외에도 국민대학교, 경기대학교, 숭실대학교, 강남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근대문헌의 오프라인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어 추후 디지털화 및 협력 사업의 주요 협력 기관으로 적합하다.

근대문헌의 아날로그 자료만 제공하는 대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디지털 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대학도서관의 단계별 협력 방안이 중요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표 7〉 대학도서관과의 단계별 협력 방안

구분	내용
단기 계획	온라인 서비스가 잘 되어 있고, 콘텐츠를 많이 제공하며, 이용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을 중점으로 협력 추진한다. 예)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단국대학교 천안울곡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중기 계획	단기 계획에서 협력하지 않았던 대학도서관을 중점으로 협력 확대 작고 영세하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콘텐츠적으로 가치 있는 대학도서관에 디지털 원문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 울산대학교 중앙도서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 숭실대학교 중앙도서관
장기 계획	디지털 원문서비스를 지원했던 대학도서관과의 협력 지속한다. 근대문헌을 소장한 모든 대학도서관이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단기 계획에서는 이미 온라인 서비스를 잘 구축하고 있으며,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학도서관을 우선적으로 협력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러한 대학도서관들은 이미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어 초기 통합서비스 구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들 기관과의 협력은 빠르고 안정적인 통합서비스 출범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중기 계획에서는 단기 계획에서 협력하지 않았던 대학도서관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화가 미흡한 대학도서관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디지털 원문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대학도서관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할 수 있지만, 보유한 근대문헌과 콘텐츠의 학술적·문화적 가치가 높다. 이에 디지털 원문서비스를 지원하여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에 참여시킨다면, 중장기적으로 통합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 계획에서는 디지털화 지원을 받았던 대학도서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며, 근대문헌을 소장한 모든 대학도서관이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국의 대학도서관이 보유한 근대문헌의 디지털 자원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술 연구와 대중적 활용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아. 종합분석 및 시사점

국립중앙도서관이 별도로 근대문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국내 서비스 기관들도 근대문헌만을 특화하여 서비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근대문헌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근대문헌의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용자들의 학술 연구와 근대문헌 활용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내 박물관에서는 문헌뿐만 아니라 유물도 수집하기 때문에, 디지털 컬렉션이 문헌 중심으로 제공되지 않고 다른 유물들과 함께 온라인 전시관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근대문헌을 검색할 때는 디렉토리 검색 기능에서 '지류'나 '문헌'을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는 이용자가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고문헌 원문검색과 같이 주제별, 유형별, 시대별, 인물별에 따라 검색 디렉토리화 컬렉션을 더 세분화해 직관적인 검색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대학도서관은 디지털 원문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교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거나 로그인 절차가 필요한 등 디지털 원문 접근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근대문헌 통합서비스 구축 시 디지털 원문 이미지 제공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자료와 메타데이터를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연구자와 일반 시민이 근대문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내 박물관은 오픈 API를 통해 유물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개된 메타데이터는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오픈 API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다.

각 기관마다 문헌 관리 방식과 메타데이터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근대문헌 통합서비스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자료 입력, 관리, 검색 방식에 대한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근대문헌 통합서비스는 단순한 근대문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학술 연구와 문화 콘텐츠 활용을 지원하는 강력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구축은 단순한 근대문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기술 지원을 통해 가치를 높여야 한다.

2.2.3 국외 서비스 기관 분석

가. 조사기관 선정 및 조사 방향

동아시아, 북미, 유럽권의 도서관 및 기록물 관리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근대문헌 관련 온라인 서비스 제공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를 위해 ‘한국고문헌종합목록’과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해외기관 목록을 참고하였으며, 각 대륙별로 평균 6~7개, 국가별 2~3개 기관을 선정하여 총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단, 미국은 12개 기관을 선정함).

조사 대상은 국가별 국가기록관, 대학도서관, 전쟁기록관, 영상기록관 등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들 기관의 자료 소장 및 서비스 제공 현황을 다음의 3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 자료 접근의 용이성: 온라인상 자료 검색이 수월한가?
- 소장자료 및 컬렉션의 다양성: 양질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가?
- 타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한국 기관을 포함 타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

조사 방식은 웹 검색 방식과 사서 문의 방식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였다. 먼저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문서를 열람하여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한 후, 웹 검색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 ‘Ask Librarian’ 서비스와 이메일을 통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였다.

총 9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외 기관의 자료 소장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 조사 항목은 이후 국외 기관 분석 시 활용한 4개 주요 기준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표 8〉 조사 항목 및 분석 항목

조사항목	분석항목
①수집 정책	자료 수집·관리의 체계성
②소장량, ③한국어 지원, ④부서 및 담당자, ⑤국내외 협력	타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⑥자료 검색 방식, ⑦온라인 서비스, ⑧디지털 자료	온라인 서비스 수준
⑨메타데이터 구성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수준

나. 자료 소장 및 서비스 운영 현황

① 동아시아

일본과 중국의 서비스 기관 6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나라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로서 한국과 근대 역사를 공유하고 있어, 한국 자료의 수집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기록관과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기관을 선정하였다.

조사 결과, 일본 서비스 기관은 한국 서비스 기관(국립중앙도서관, 대학교)과의 협력 경험이 비교적 활발하며, 한국 근대 시기 자료에 대한 웹사이트 검색과 사서 문의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서비스 기관은 웹사이트 내 한국 자료 검색이 까다롭고, 한국 문헌 수집과 관련된 자료나 정보가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대외적인 협력 경험을 소개한 경우도 드물어 다른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것 또한 어려웠다.

다음은 6개 기관 중 온라인상 한국 자료 검색이 수월하고 한국 기관과의 협력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의 주요 서비스 사항이다.

〈표 9〉 주요 동아시아권 서비스 기관

기관명	내용
국립국회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텍스트 검색 기능을 통해 디지털 컬렉션 자료를 확인 가능함 한국 소장자료를 담당하는 부서와 담당자가 별도로 운영됨 국내외의 기관들과 다양한 협력 경험을 공개함 (한국-한중일전자도서관 이니셔티브)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기관들과 다양한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이를 디지털 컬렉션에서 공개함 사이트 내 디지털 컬렉션을 운영하며, 키워드 검색과 디렉토리 브라우징 모두 가능하도록 함
도쿄대학 오구라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소장자료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기관은 없음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활발한 협력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화 작업을 추진함

② 북미

미국의 경우,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도서관과 한국학 서가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미권에서 가장 많은 기관의 서비스 사례를 조사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의회도서관과 국가기록원을 포함한 총 12개 기관의 서비스 현황을 확인하였다.

북미권 기관의 자료 소장에 대한 통계적 정보는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에 게재된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2022-2023 for North American Institutions(Ni, Dongyun, et al., 2024)을 참고하였다. 해당 자료는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에서 공개한 연례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북미 지역 동아시아 관련 자료 소장 현황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참고 지표를 제공한다.

다음은 조사 대상 북미권 12개 기관 중 다양한 형태의 한국 근대문헌 자료와 컬렉션을 제공하고 온라인상 자료 접근성이 높은 주요 기관의 서비스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0〉 주요 북미권 서비스 기관

기관명	내용
미국 의회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서가 내 한국 컬렉션에서 한국 자료를 관리함 • 국내외 다양한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 경험 및 교류 관계를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과 도서관 자료 교환 협정, 국제 교류 서비스 교환 조약을 맺고 있음을 밝힘
컬럼비아 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협력 경험이 매우 활발함. 한국 서비스 기관(국립중앙도서관, 한국영상자료원, 고려대학교)과의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 경험을 공개하고 있음. 또한 Brill International Publisher(독일)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신소설 컬렉션 디지털화 작업 경험이 있음 • 소장 중인 한국 자료에 대하여 디지털 컬렉션 및 온라인 전시를 운영함
워싱턴 대학교 타테우치 동아시아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서가 홈페이지 내 한국 근대문헌 자료를 다루는 별도의 카테고리 항목을 마련하고 있음 (‘Primary Sources’ > ‘Primary Source for Korea under Japanese Rule (1910-1945)’) • 한국 자료와 관련하여 11개 주제의 다양한 디지털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음 • 키워드 검색과 디렉토리 브라우징 모두 가능하며, 한국 근대문헌 검색에 필요한 키워드를 카탈로그 링크와 함께 제공함

기관명	내용
토론토 대학교 첵 유통 동아시아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소장자료에 대한 4개의 디지털 컬렉션을 안내하며 한국의 뉴스, 신문과 관련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 (신문 컬렉션, 민중신문 디지털화 작업 등) 한국 국립국사편찬위원회와의 협력 경험(민중 신문 디지털화)을 공개함

③ 유럽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서비스 기관 8곳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은 동유럽, 북유럽, 서유럽 국가의 기록물 관리 기관을 고루 포함하되, 특히 한국전쟁 참전국 및 지원 국가(영국, 프랑스, 헝가리 등)의 기록물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한국전쟁 관련 자료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한국 근대문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자료는 추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결과, 유럽의 서비스 기관들은 동아시아 및 북미 국가 기관들과 비교하여 한국 근대 시기 자료에 대한 명확한 수집 기준을 설정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자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서나 큐레이터를 배치한 사례도 드물어, 협력 방안에 대한 문의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음은 조사 대상 7개 기관 중 온라인상 자료 검색이 용이하고 한국 자료에 대해 별도의 도메인 및 컬렉션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주요 기관의 서비스 사항이다.

〈표 11〉 주요 유럽권 서비스 기관

기관명	내용
케임브리지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서가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음 (Korean Studies 에서 컬렉션을 관리함) 한국 신문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함 사이트 내 한국 자료 분류 체계를 안내하고 있음
프랑스 BUL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상 한국어 검색을 지원하며 한국 자료 페이지를 통해 수집 목적 및 방식을 상세히 설명함 한국 도메인 컬렉션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어 협력 가능성이 높음 디지털 컬렉션을 통해 소장 중인 한국 자료의 원문과 메타데이터를 제공함(평화회의, 정리의궤)

다. 자료 운영 지침

기관의 수집 정책과 자료 운영 지침을 통해 자료 수집 및 관리의 체계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근대문헌 수집에 대한 인식과 관리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외 서비스 기관은 수집 정책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았으며, 특히 ‘한국 근대문헌’과 같이 특정한 조건을 가진 자료에 대한 수집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외 서비스 기관의 자료 운영 지침 제공 현황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웹 페이지의 기관 소개 항목에서 해외 자료 수집 정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 둘째, 한국 서가 페이지 소개 중 한국 자료의 수집 목적 및 경로를 밝히는 경우였다. 이때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자료 수집 방침 제공

자료 수집 방침을 공개하는 기관의 경우, 전체 소장자료 또는 동아시아나 한국 자료에 대한 포괄적인 수집 방침만을 밝히고 있다. ‘한국 근대문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외 자료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설정된 항목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집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외국 출판물’에 대한 수집 방침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기본 방침의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에 따르면, 외국의 출판물의 경우 구입, 국제교환 및 기증의 방식을 통해 일본 국회 활동의 보좌나 학술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 일본에 관련되는 자료 등을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해당 방침은 특정 국가나 주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외국 자료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수집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한국 근대문헌의 수집 기준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국 하와이대학교 도서관은 한국 관련 장서 개발 정책 문서를 통해 수집 목적과 범위를 공개하고 있다. 해당 문서는 한국 자료의 장서 개발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며, 수집에 있어 고려되는 연대, 지리적 위치 등의 기준을 밝히고 있다. 문서를 통해 한국 근대문헌에 관련된 자료 운영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자료 수집 목적 및 경로 안내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학 서가의 소개 페이지를 통해 한국어 자료 수집 경로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기관은 공통적으로 한국학 연구와 수업 지원을 목표로 삼아 한국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은 한국학 서가의 소개 페이지에서 자료 수집 경로와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페이지는 한국 자료의 주요 수집 원천과 대상 자료 소장 기준을 설명하며, ‘한국학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을 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수집의 기본 방침
(1) 국회의원 및 행정 및 사법의 각 부문의 직무수행, 국민의 지적활동 등을 한다.
(2) 국내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지적활동의 소산으로서 가장 중. 형태 또는 매체를 불문하고 널리 수집한다.
(3) 국내 자료의 복제본은 이용제공의 필요성을 조사한 후 정비한다.
(4) 국내의 전자정보는 필요에 따라 수집 또는 이용권계약을 체결한다.
(5) 「국의 장서(내셔널 컬렉션)」를 구축하기 위해, 국외에서 발행된 일본에 하게 중요한 자료와 위치 넓게 수집한다.
(6) 외국의 자료 및 전자 정보에 대해서는, 최근의 정보 환경의 변화에 유의. 보의 이용 제공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국립의 도서관으로. 보 자원을 정비 한다.
(7) 전국의 각종 도서관 기타 자료소장기관과 연계하여 국가 전체로서의 정 한다.

COLUMBIA UNIVERSITY LIBRARIES

This page is also available in English.

컬럼비아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의 한국학장서는 1931년 유학생들 공식적으로 수집이 이뤄진 것은 1953년 한국전쟁 이후부터이다. 그 338여종의 정기간행물을 구독하고 있으며,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발행되는 도서 및 잡지, 영상자료등의 회귀자료들을 수집 및 소장하. 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학 장서중에는 여러 고서들과 회귀자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러낸 '선본' (善本) 등 700여종 (2,275책)의 한국고서, 1915년 이 후. 중 '화산문고본'은 총 517종 1,857책으로, 경부(經部) 52종 198책. 루어져 있다. 판종별로 구분하면 활자본 (금속활자본, 목활자본, 도. 한 활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코넬트 컬렉션"은 테오도로 리차드. 중의 책과 잡지, 130여종의 필름, 130여종의 오디오 CD, 1,300여종. 보관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학 장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북한관련등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 초점을 맞춰 중점적으로 개발되. 회학등 사회 과학 분야 관련 도서 또한 다양하게 수집하고 있다. 이. 버로 한국역사 (1864-1910), 순수 & 공연예술, 대중문화, 교육학, 심. 집중적으로 수집, 정리하고 있다.

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한국학자료는 온라인목록 [CUIO](#) 또는 국제종

<그림 22> 국외 기관 자료 운영 지침 사례 비교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자료 수집 기본 방침(좌)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의 자료 수집 관련 안내(우)

(출처: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및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 홈페이지)

라. 온라인 서비스 수준

자료 검색 방식, 온라인상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디지털 컬렉션을 통한 디지털 자료 제공 방식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온라인 서비스 수준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기관은 키워드 검색 방식을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컬렉션을 운영하는 일부 기관은 디렉토리 형태의 자료 일람이 가능하도록 검색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관의 온라인 서비스 수준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자체 디지털 컬렉션을 운영하는 경우로, 웹 페이지 내 다양한 디지털화 자료를 일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로 디지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컬렉션과 같은 서비스는 운영하지 않으나 외부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는 유형이 있다.

① 자체 디지털 컬렉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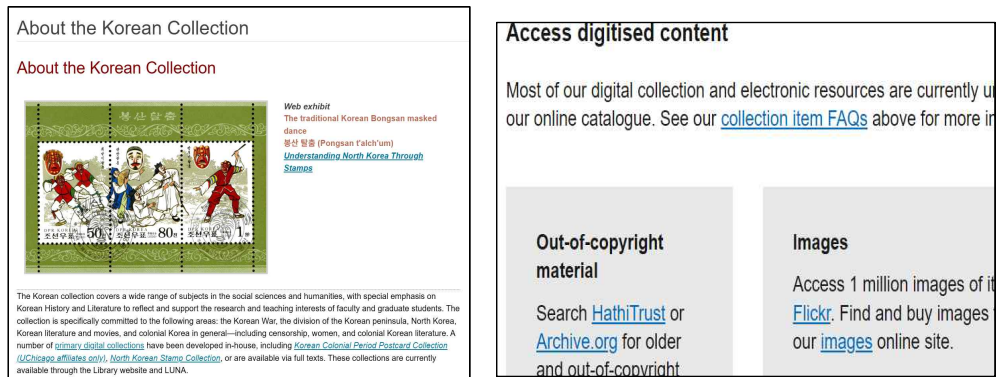
자체 디지털 컬렉션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이미지,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과 디렉토리 브라우징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키워드 검색 시 디지털 컬렉션 내 자료에 대한 텍스트와 이미지 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통합검색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도서관의 한국학 서가는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포함한 컬렉션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 및 브라우징 기능을 통해 손쉽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웹사이트 내 ‘Collection’ 항목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 자료의 컬렉션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제별로 특화된 디지털 컬렉션에 접속할 때 자료의 상세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② 외부 디지털 컬렉션 링크 제공

일부 기관은 자체 디지털 컬렉션을 운영하지 않으며, 디지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외부 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한다. 이러한 경우 온라인상 이용 가능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영국 도서관은 자체 디지털 컬렉션 대신 외부 디지털 콘텐츠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제공하며, 자료 열람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웹사이트의 온라인 서비스 안내 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열람이 어렵다는 점을 공지하고 있으며 외부 사이트의 링크를 안내한다.



〈그림 23〉 국외 기관 온라인 디지털 컬렉션 서비스 사례

미국 시카고대학교 동아시아 디지털 컬렉션(좌)과 영국 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안내(우)

(출처: 시카고대학교 도서관 및 영국 도서관 홈페이지)

마. 타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기관별 근대문헌 소장량, 한국어 검색 지원 여부, 한국 자료 부서 및 담당자 배치 여부, 국내외 협력 경험 유무 등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다른 기관(특히 한국 기관)과 협력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 근대문헌’과 관련된 특정 자료의 소장량은 기관 측에서 공개하지 않거나 별도로 측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확한 소장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조사한 모든 기관이 한국어 검색을 지원하고 있어 한국어 이용자들이 온라인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었다. 다만, 대륙별로 한국 자료 관리 방식과 자료 접근성에는 차이를 보였다.

① 동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의 기관들은 국내외 협력 관계를 비교적 확인하기 쉬웠으며, 한국의 다양한 기관(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경험이 풍부한 특징을 보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국제 협력 활동이 활발하며, 타 기관과의 최근 협력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일본 도쿄대학교 오구라문고는 고려대학교와 협력하여 디지털 컬렉션을 생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근대문헌의 디지털화와 공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다양한 국제 협력 활동 내역을 공개하며, 한국 자료와 관련한 협력 경험을 공식 웹사이트상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림 24> 일본 도쿄대학교 오구라문고 타 기관(고려대학교) 협력 사례

(출처: <https://iiif.dl.itc.u-tokyo.ac.jp/repo/s/ogura/item-set/408857>)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상호방문 프로그램

국립국회도서관(NDL)과 국립중앙도서관(NLK)은 1997년부터 직원을 파견하여 교류 활동을 해왔습니다. 두 기관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자를 사용하는 동아시아 이웃 국가의 국립도서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의(주로 세미나 형태)에서 참석자는 공통된 이슈를 발표하고 의견, 질의응답을 적극적으로 교환합니다.

▶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상호방문사업 연혁](#)

국립국회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상호방문 프로그램

국립국회도서관(NDL)과 국회도서관(NAL) 간의 상호 방문 프로그램은 200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의회에 도서관 및 연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두 도서관은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 질의응답을 적극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국립국회도서관\(NDL\)과 국회도서관\(NAL\)의 상호방문 프로그램 연혁](#)

NDL과 NAL은 과거에 2년간의 상호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각 도서관은 한 달 동안 다른 도서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직원 한 명을 파견했습니다. NLK에서는 2000년 9월에, NDL에서는 2001년 11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는 National Diet Library Monthly Bulletin No. 477(2000년 12월)과 No. 501(2002년 12월)에 실렸습니다. 영어 프로그램 개요는 [NDL Newsletter No. 123\(2002년 2월\)](#)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25>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국제 협력 내역

(출처: <https://www.ndl.go.jp/en/international/operating.html>)

② 북미

북미 기관들은 대부분 대학도서관 내 동아시아 도서관을 통해 한국학 서가(Korean Studies)를 별도로 운영하며, 한국어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들 도서관은 한국학 사서를 별도로 배치하여 한국어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은 한국어 검색 기능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한국어 자료 이용자들의 자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학 서가 페이지에 한국어 기능을 구현하여 한국어 이용자의 자료 검색이 수월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미국 예일대학교 도서관의 한국학 서가는 한국 근대문헌 관련 주요 자료를 소스로 제공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접근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26> 미국 예일대학교 도서관 한국학 서가 - 한국 근대문헌 리소스 소스 제공 사례

(출처: <https://guides.library.yale.edu/c.php?g=296323&p=1974423>)

③ 유럽

유럽권 대학도서관의 경우 북미 기관들과 달리 한국학 서가를 별도로 운영하거나 한국학 전문가를 배치한 경우가 드물었다. 대부분 아시아 부서 담당자가 한국어 자료를 포함한 아시아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한국 자료의 관리 및 접근 방식은 비교적 체계성이 떨어지고 자료 접근성 또한 제한적이었다.

프랑스 BULAC 도서관은 한국 도메인을 운영하고 한국 자료에 대한 전문가의 큐레이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럽권 기관과 차별된다. 또한 검색창에 ‘korea’ 또는 ‘한국’을 입력하면 한국 관련 국제 교류 자료와 보고서 리스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상세 페이지로의 접근이 어렵거나 검색 결과가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는 한국학 서가 또는 한국 자료 관련 도메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검색창에 ‘korea’ 검색 시 한국 관련 자료를 일부 제공하지만, 접근 가능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바. 메타데이터 구성

자료 검색 시 조회되는 메타데이터 구성 방식을 분석하여, 기관별 자료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수준을 확인하고, 나아가 온라인 통합서비스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모든 기관에서 웹 사이트 내 한국어 검색이 가능하였으며, 특히 한글과 한자, 영어를 활용한 자료 검색 기능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작가명과 작품명을 키워드로 활용한 카탈로그 검색이 가능하였다.

기관별 메타데이터 구성 방식은 상이하며, 한글과 로마자 병기와 관련하여 메타데이터 항목을 구분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한글(및 한자)과 로마자 표기를 구분하는 경우

메타데이터 항목을 구분하여 한글 표기와 로마자 표기를 별도로 기록하는 기관의 경우 키워드 검색을 통해 자료를 검색할 시 한글과 한자, 로마자를 이용한 검색이 모두 가능하다.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언어 표기를 독립적으로 다룬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의 카탈로그의 경우 키워드 검색 후 메타데이터를 조회할 시 한글과 한자, 로마자 표기가 명확히 구분되어 ‘Non-Latin Script Title’ 과 ‘Title’ 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버드대학교 옌칭도서관 또한 ‘Vernacular title’ 과 ‘Title’ , ‘Title(Uniform)’ 세 메타데이터 항목을 통해 한글 원제와 로마자 표기 제목을 따로 제공하고 있다.

Item Details	
Non-Latin Script Title	은세계 銀世界
Title	Ŭnsegye
Author	Yi, In-jik, 1862-1916. > 李人植, 1862-1916. >
Attribution	Yi Kukch'o [Yi In-jik] chŏ 李菊初[李人植]著.
Language	Korean
Format	141 pages ; 22 cm
Alternate Title	은세계 銀世界
Catalog Title	은세계 銀世界 / 李菊初[李人植]著. >

<그림 27> 미국 워싱턴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 한국근대문헌 메타데이터
(출처: <https://bit.ly/41yRAWP>)

Vernacular title	春香傳.
Title	Ch'unhyang chŏn
Title (uniform)	春香傳. Ch'unhyang chŏn.
Published	京城: 三文社書店, 昭和20 [1945] Kyōngsŏng: Sammunsa Sōjōm, Sohwa 20 [1945]
Description	147 p. ; 18 cm.
Language	Korean
Creation Date	Sohwa 20 [1945]
HOLLIS number	990079792860203941
Permalink	https://id.lib.harvard.edu/alma/990079792860203941/catalog
Source	HVD - Core

<그림 28>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도서관 한국근대문헌 메타데이터
(출처: <https://m.site.naver.com/lzbur>)

② 한글(및 한자)과 로마자 표기를 하나의 항목에 기록된 경우

일부 기관에서는 한글과 로마자 표기가 하나의 메타데이터 항목에 병기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문자별로 메타데이터를 구분하지 않지만, 하나의 항목 내에서 한국어와 영어 검색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일본 도서관의 경우 대부분 한글과 한자가 구분 없이 함께 기록되거나, 일부는 한글만 기록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의 카탈로그는 제목에 대한 메타데이터인 ‘Title’에 한글 원제와 로마자 제목이 병기되어 있고, 일본 교토대학교 부속도서관 역시 한국 자료의 메타데이터를 검색할 시 한글 원제와 한자가 하나의 항목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저자’ 항목의 경우 한국어 키워드만 표기되어 있다.

고본 춘향전

고본 춘향전 / 崔昌善 편

데이터 유형

도서

저자 표시

최, 창선<최창선>

출판정보

경성 : 신문館, 1913.12

소장 정보 숨기기

▼분류·서부 / 附지도

권자	배가 장소	청구 기호	자료 번호	상태	코멘트
	문장 II국본	8C[A1-24	199005928		

서지 세부정보 숨기기

데이터 유형

도서

출판정보

경성 : 신문館, 1913.12

본문 언어

한국어

별서명

안쪽 타이틀 고본 하루카덴
달리 액세스 타이틀 춘향전 고본

크기

240p, 22cm

저자 표시

최, 창선<최창선>

서지 ID

BB01833577

NCID

PA68833460

<그림 29>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고본 춘향전’ 메타데이터

(출처: <https://bit.ly/4izeP98>)

Unsegye	
Author	Yi, In-jik, 1862-1916 author. 이인직, 1862-1916, author.
Title	Ŭnsegye / Yi In-jik chiŭm ; Kwŏn Ch'ae-rin yŏkkŭm. 은세계 / 이인직지음 ; 권채린역음.
Edition	Ch'op'an. 초판.
Published	Sŏul-si : Chisik ŭl Mandŭnŭn Chisik, 2012. 서울시 : 지식올만드는지식, 2012.
Description	148 p. : ill. ; 19 cm.
Series	Chisik ŭl Mandŭnŭn Chisik sosŏl sŏnjip 지식올만드는지식소설선집.
Subjects (Genre)	Fiction.
Also Listed Under	Kwŏn, Ch'ae-rin, 1974- editor. 권채린, 1974- editor.
Language	Korean
LCCN	2012403508
ISBN	9788966803224 8966803229
Format	Book
Bookmark As	https://clio.columbia.edu/catalog/SCSB-1697609

<그림 30>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도서관 ‘은세계’ 메타데이터

(출처: <https://clio.columbia.edu/catalog/SCSB-1697609>)

사. 국외의 ‘근대’ 시기 자료 수집 및 서비스 사례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Modern Japan in archive(사료로 보는 일본 근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전쟁 이후 일본 정치 및 역사 자료를 온라인 전시 형태인 ‘Modern Japan in archive’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컬렉션은 일본의 근대 시기를 1853년 페리 제독의 내항과 일본 개국을 기점으로 설명하며, 메이지 유신 이후의 역

사적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해당 컬렉션 서비스는 문서뿐만 아니라 구전, 석비, 그림, 녹음, 이미지(사진, 영화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한다. 또한, 근대 시기의 주요 정치·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이를 카테고리화하였으며, 페이지별로 상세 설명을 제공하여 자료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컬렉션을 통해 주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손쉽게 탐색할 수 있다.



<그림 31>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Modern Japan in archive’

(출처: <https://www.ndl.go.jp/modern/e/index.html>)

□ 미국 하버드대학교 도서관 ‘Modern American Culture Collections’

미국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은 19~20세기의 저명한 작가들의 글을 컬렉션 형태로 제공하는 ‘Modern American Culture Collections’를 운영하고 있다. 이 컬렉션에는 특히 미국 남북전쟁에 관련된 자료가 풍부하며,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의 Houghton Library에서 보유 중인 인쇄물과 원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컬렉션 페이지는 주요 자료의 저자(작가) 리스트를 제공하며, 하단에 관련 온라인 컬렉션 링크를 추가하여 비슷한 시기의 다른 자료 목록을 확인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작가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부족하여 이용자가 도서관 사이트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별도로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구체적인 작품 목록이 제공되지 않아 근대문헌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브라우징이 어렵다.

AUTHOR COLLECTIONS

Houghton Library's American Culture Collections include the papers of some of America's most notable 19th-century authors, including:

- the Alcott family
- Emily Dickinson
- Ralph Waldo Emerson
- Margaret Fuller
- Thomas Wentworth Higginson
- Sarah Orne Jewett
- Herman Melville
- Oliver Wendell Holmes (Sr. and Jr.)
- the James family
- William Dean Howells
- James Russell Lowell
- Henry Wadsworth Longfellow
- Samuel Gridley Howe and Julia Ward Howe
- Edward Bellamy

FREDERICK DOUGLASS. LETTER TO CHARLES SUMNER, APRIL 29, 1865.

〈그림 32〉 미국 하버드대학교 도서관 ‘Modern American Culture Collections’
(출처:

<https://library.harvard.edu/collections/modern-american-culture-collections>)

아. 종합 분석 및 시사점

위 국외 서비스 기관의 사례조사를 통해 한국 근대문헌 통합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참고 사항 및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자료 수집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외 서비스 기관의 경우 한국 근대문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표준적인 정책이 부재한 실정으로, 이는 자료 연계성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 근대문헌 통합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국외 기관이 소장한 자료와의 연계율을 높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및 운영 방침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통합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의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국외 서비스 기관, 특히 유럽권의 대학도서관은 한국 자료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이나 전담 부서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협력 논의가 어렵다. 이에 따라 한국 자료를 수집·관리하는 담당자 또는 관련 문의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반해, 일본 및 미국의 기관은 대부분 한국학 서가를 별도로 운영하며 소장자료와 컬렉션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기에, 통합서비스 구성 시 이들 기관의 한국학 서가를

활용하여 자료 및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근대문헌 자료 관리에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항목과 구성이 기관별로 매우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비표준화된 메타데이터 구성은 효율적인 데이터 검색과 연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통일된 메타데이터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된 메타데이터는 정확한 자료 검색과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국외 기관과의 자료 연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2.3 통합서비스의 필요성

국내외에서 한국 근대문헌을 수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통합서비스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다양한 영역에서 근대문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제와 서비스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은 낮은 편이다. 통합서비스 구축은 이미 존재하는 역사정보자원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함으로써, 국내·국외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최대 근대문헌 소장 기관으로서, 향후 근대문헌 통합서비스를 구축해 전문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일원화된 자료 이용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합서비스는 근대문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근대문헌 통합서비스가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우리나라 근대문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지원 정책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근대문헌은 전국의 도서관, 박물관, 박물관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 문중, 개인 연구자 등 민간 영역에서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문헌의 미래가치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근대문헌 서비스는 망실, 훼손 위기 근대문헌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예방 조치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지식 자원 인프라로 기능할 것이다.

셋째, 1910년 이전 생산된 자료에 한정하는 고문헌과는 구분되는 근대문헌의 특성과 수요층이 명확하며, ‘가치 있는 정보 자원’으로서의 재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근대문헌은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사료이기도 하지만, 가까운 과거에 대한 다양한 서사와 역사적 증거를 담은 문화 콘텐츠의 원천 자원(original source)이다. 더 나아가 다양한 전공과 분야의 연구자와 창작자, 문화콘텐츠

생산자들에게 필수적인 원천적 문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 시기’에 산출된 각종 문헌과 자료의 수집, 관리, 체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유춘동, 2021),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실증자료로서 근대문헌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간기록문화법률안’)」은 민간소재 기록문화의 훼손·멸실 등 위험 요인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 또한, 근대문헌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 국가유산법에 따라 기록유산(근대문서)으로 지정될 잠재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근대문헌 통합서비스는 근대문헌의 유산적 가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근대문헌 이용 행태 및 서비스 제공 현황 분석

3.1 이용자 설문

3.1.1 분석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근대문헌에 대한 유산적 가치를 확장하고 근대문헌의 현황을 파악하여 근대문헌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근대문헌 서비스의 허브로서 역할/기능하기 위해서는 근대문헌을 이용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와 타 기관의 잠재이용자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근대문헌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용자 및 잠재이용자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문헌 연구, 국립중앙도서관의 현황, 국내외의 근대문헌 관리 기관의 사례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결과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4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15일 간 진행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웹설문 링크가 포함된 팝업창을 띄워 최대한 많은 근대문헌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 결과, 총 913명의 참여자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 중 근대문헌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총 619명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문헌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619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국립중앙도서관이 근대문헌의 통합검색 및 서비스를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하는 이용자 및 잠재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는 설문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과 현황에 대한 인식, 업무 및 연구 시 활용하는 정보자원 유형 및 특징, 근대문헌을 활용하는 주요 기관, 타 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전문인력, 희망하는 근대문헌 프로그램, 근대문헌의 디지털 기술 적용, 전반적인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잠재이용자가 근대문헌을 활용하는데 있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 방법, 교육, 개선점 등을 도출하여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3.1.2 분석 결과

가. 일반적 사항

본 연구의 설문 참여자인 이용자 집단과 잠재이용자 집단을 분석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국립중앙도서관 및 타 기관에서 소장하는 근대문헌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총 619명이며, 이 중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는 406명, 타 기관 이용자는 213명이다.

근대문헌 이용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38.1%, 여성 61.9%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30대(29.4%), 40대(27.8%)가 주를 이루고 그 뒤로 50대(15.8%), 20대(15.3%), 10대(1.1%)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49.6%, 대학원 졸업 이상이 39.1%로, 대학교 졸업 이상의 이용자가 과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졸업(6.1%), 전문대학 졸업(3.6%)이 그 뒤를 이었다. 전공에 있어서 인문·사회 계열의 분야가 63.2%로 나타나 이용자 대부분이 인문·사회 계열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공계열(16.5%), 교육계열(8.1%), 예체능계열(5.5%), 의학계열(5.3%)이었다. 직업은 사무직(25.5%), 일반시민(19.5%), 교육자(14.7%), 사서(12.3%), 학생(10.5%), 기타(5.7%)순으로 나타났고, 업무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21.2%), 2년 이상 5년 미만(15.0%), 2년 미만(14.9%), 10년 이상 15년 미만(14.2%), 25년 이상(13.2%), 15년 이상 20년 미만(10.8%), 20년 이상 25년 미만(8.9%) 순으로 응답 수가 나타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표 12〉 근대문헌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구 분	세부항목	응답 수(명)	비율(%)
성별	남성	236	38.1
	여성	383	61.9
연령	10대	7	1.1
	20대	95	15.3
	30대	182	29.4
	40대	172	27.8
	50대	98	15.8
	60대 이상	65	10.5
학력	고등학교 졸업	38	6.1
	전문대학 졸업	307	3.6
	대학교 졸업	242	49.6
	대학원 졸업 이상	22	39.1
	기타	10	1.6
전공	교육계열	50	8.1
	예체능계열	34	5.5
	이공계열	102	16.5
	인문·사회계열	391	63.2
	의학계열	33	5.3
	기타	9	1.5
직업	학생	65	10.5
	교육자(대학교수, 강사)	91	14.7
	전문연구자	53	8.6
	사무직	158	25.5
	사서	76	12.3
	학예연구원(기록관, 박물관 등)	20	3.2
	일반시민	121	19.5
	기타	35	5.7
업무경력	2년 미만	92	14.9
	2년 이상-5년 미만	93	15.0
	5년 이상-10년 미만	131	21.2
	10년 이상-15년 미만	88	14.2
	15년 이상-20년 미만	67	10.8
	20년 이상-25년 미만	55	8.9
	25년 이상	82	13.2
	기타	11	1.8
총 인원 수		619	

나.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서비스 이용 및 인식

① 근대문헌 자료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인지 정도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자료에 대한 이용과 자료 제공 서비스에 대한 406명의 이용자의 인지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응답자 중 ‘근대문헌 서비스에 대해 간단하게 알고 있다’가 44.33%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제공 여부만 알고 있는 정도이다’가 27.83%로 두 번째로 높았다. ‘제공서비스, 소장자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는 25.86%, ‘전혀 모른다’가 1.97%, ‘기타’ 답변은 0.49%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근대문헌 서비스에 대해서 인지하는 비율은 높으나 자세히 알고 있는 이용자의 비율은 높지 않으며 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이용자의 서비스 인지 정도 응답 결과

설문 문항	답변 수(명)	답변 비율(%)
서비스 제공 여부만 알고 있는 정도이다.	113	27.83
근대문헌 서비스에 대해 간단하게 알고 있다.	180	44.33
제공 서비스, 소장자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105	25.86
전혀 모른다.	8	1.97
기타	2	0.49



〈그림 33〉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서비스에 대한 인지 수준

② 이용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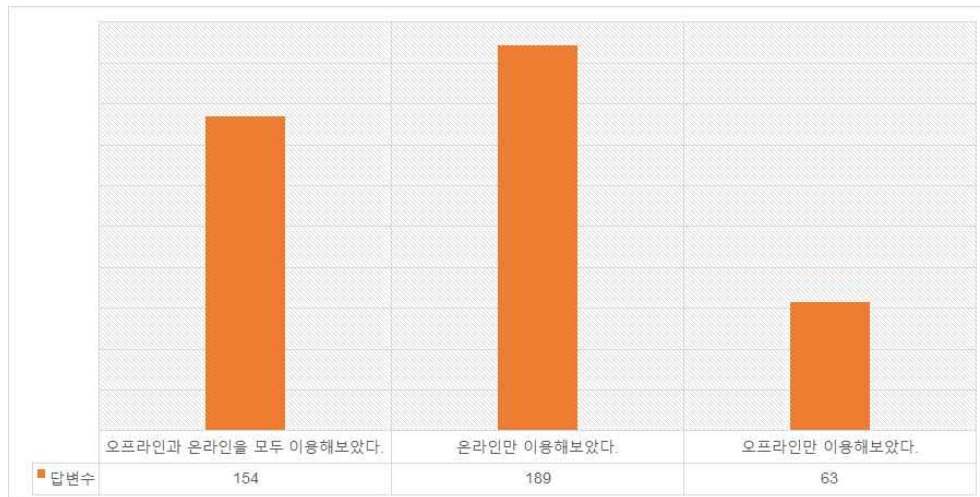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헌 자료를 이용하는 목적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설문 대상자에게 3개까지 중복 응답을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조사 결과, 역사 자료에 대한 관심이 27.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술연구(23.07%), 업무수행(18.8%),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수집(14.27%), 프로그램 참여(11.07%), 정책 정보 수집(4.67%)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 분야의 연구자 또는 교육자와 같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역사 자료에 대한 관심을 통해 근대문헌 자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근대문헌이 일반시민과 학생들까지 폭넓은 관심을 받는 분야임을 보여준다.

〈표 14〉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이용 목적

설문 문항	답변 수(명)	답변 비율(%)
업무수행	141	18.80
역사자료에 대한 관심	208	27.73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수집	107	14.27
전시, 견학,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	83	11.07
정책 정보 수집	35	4.67
학술연구	173	23.07
기타	3	0.40

③ 이용 경험

근대문헌을 획득·활용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이용자 경험과 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이용 경험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가장 높게 나타난 응답이 ‘온라인만 이용해보았다’로 전체 406명 중 189명이 선택하였다. 그 뒤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하는 이용자는 154명, 오프라인만 이용해보은 이용자는 63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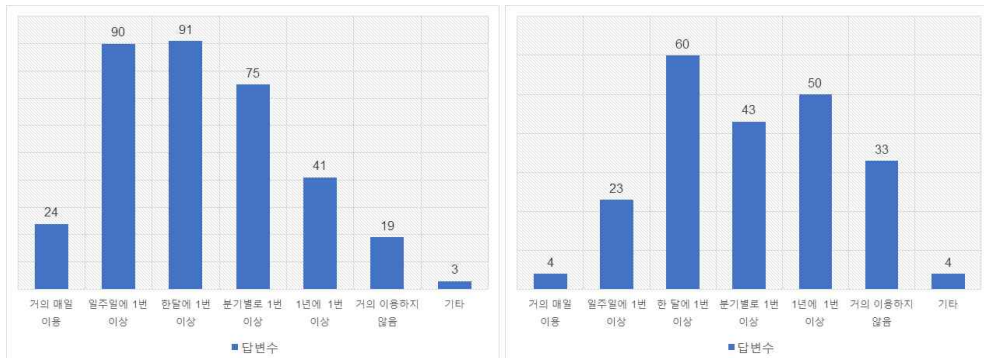
〈그림 34〉 근대문헌 활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이용 경험 유형

이 중 웹사이트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343명의 웹사이트 이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 ‘한 달에 1번 이상’ 이 91명, ‘일주일에 1번 이상’ 이 9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의 매일 이용’ 하는 이용자는 24명으로 드러났는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예상보다 더욱 높은 빈도로 근대문헌을 검색 및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기별로 1번 이상이 75명, 1년에 1번 이상이 41명, 거의 이용하지 않음은 19명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온라인은 이용해본 경험은 없으나 오프라인으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근대문헌을 이용해 본 이용자는 총 217명으로 ‘한 달에 1번 이상’ 이 6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1년에 1번 이상(50명), 분기별로 1번 이상(43명), 거의 이용하지 않음(33명), 일주일에 1번 이상(23명), 거의매일 이용과 기타가 4명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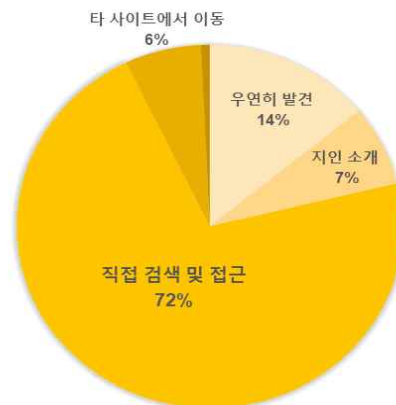
〈표 15〉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이용 방법

설문문항	온라인	오프라인
거의 매일 이용	24	4
일주일에 1번 이상	90	23
한 달에 1번 이상	91	60
분기별로 1번 이상	75	43
1년에 1번 이상	41	50
거의 이용하지 않음	19	33
기타	3	4
총인원 수	343	217



〈그림 35〉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이용 방법 분포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의 접근 경로는 주로 직접 검색하거나 접근하는 경향이 72%로 가장 높았으며, 우연히 발견(14%), 지인 소개(7%), 타 사이트에서 이동(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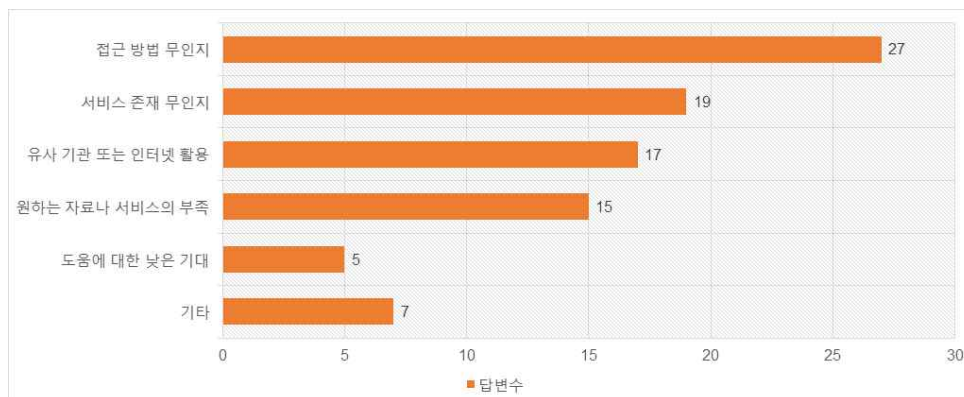


〈그림 36〉 국립중앙도서관 웹페이지 접근 경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웹사이트에서 근대문헌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3개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63명이 근대문헌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서비스 접근 방법을 모르고 있거나(30%),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21.1%)이 주요 원인이었다. 근대문헌을 활용하는 이용자를 파악하고 이들이 근대문헌과 관련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6〉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 근대문헌 서비스 비이용 이유

설문문항	답변 수(명)	답변 비율(%)
접근 방법 무인지	27	30.0
서비스 존재 무인지	19	21.1
유사 기관 또는 인터넷 활용	17	18.8
원하는 자료나 서비스의 부족	15	16.6
기타	7	7.7
도움에 대한 낮은 기대	5	5.5



〈그림 37〉 근대문헌 활용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④ 이용 자료 및 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근대문헌을 획득,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로 이용하는 자료와 서비스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3개까지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다. 이용자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의 유형을 살펴보면, 서적(30.2%)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뒤로는 근대 시기의 신문이나 잡지(22.4%), 학술 논문 및 연구보고서(14.1%), 사진 및 그림(13.4%), 정부 발행 문서(11.1%), 지도 및 도면(4.7%), 포스터 및 광고물(2.6%), 편지 및 일지(1.2%)의 순으로 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용하는 근대문헌 자료 유형

설문문항	답변 수(명)	답변 비율(%)
서적	277	30.17
신문 및 잡지	206	22.44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129	14.05
사진 및 그림	123	13.40
정부 발행 문서	102	11.11
지도 및 도면	43	4.68
포스터 및 광고물	24	2.61
편지 및 일지	11	1.20
기타	3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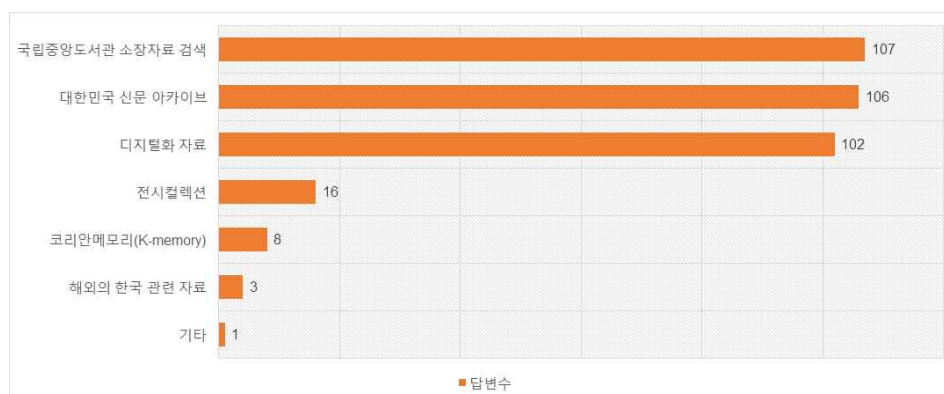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을 살펴본 결과, 근대문헌을 검색하기 위한 소장자료 및 디렉토리 검색(33.4%)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원문자료를 활용하거나(16.4%), 인물 검색(10.3%)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코리안 메모리 같은 디지털 아카이브 사이트(10.2%)를 함께 이용하는 모습도 포착하였다. 그 다음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한 간행물(6.9%)이나 주제명표목표(5.1%), 회원 기관의 소장자료 목록 사용(5.1%), 전시 및 행사 참여(4.7%), 연계기관 검색(4.4%), 신규구축목록(3.1%) 순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18〉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의 근대문헌 이용 서비스 유형

설문문항	답변 수(명)	답변 비율(%)
소장자료 및 디렉토리 검색	271	33.42
원문자료 활용	133	16.40
인물검색	84	10.36
디지털 아카이브(코리안 메모리)	83	10.23
국립중앙도서관의 발행 간행물	56	6.91
주제명표목표	42	5.18
회원기관의 소장자료 목록(국내외 126개 기관)	41	5.06
전시 및 행사 참여	38	4.69
연계기관 검색	36	4.44
신규구축목록	25	3.08
기타	2	0.25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 근대문학과 관련된 서비스는 근대문학종합목록이 특화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자료검색 메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근대문헌에서 문학 분야에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국내 도서관 및 문학관 등에 산재한 근대문학자료를 통합·관리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근대문학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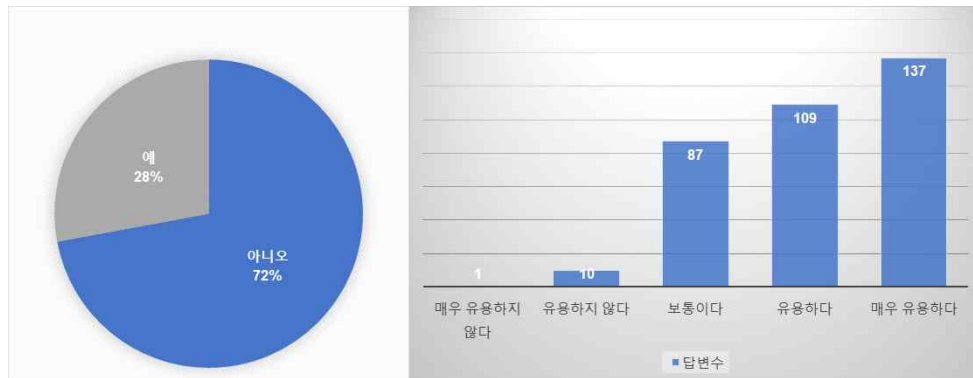
근대문학종합목록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근대문헌에서 문학 주제 분야에서만 근대문헌을 활용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근대문학종합목록 이외에 활용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근대문헌을 근대문학종합목록뿐 아니라 소장자료 검색(107명),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106명), 디지털화 자료(102명)를 통해 근대문헌에 접근, 활용하였으며 관련 전시컬렉션(16명)이나 코리안 메모리(8명), 해외의 한국 관련 자료(3명)도 함께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신문 아카이브의 활용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보아, 아카이브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코리안 메모리의 경우, 근대문헌과 관련된 아카이브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근대문헌을 활용한 아카이브가 많이 구축되지 않은 점을 미루어볼 때, 향후 근대문헌과 관련된 아카이브가 구축되면 이를 연계하여 이용자들이 통합검색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8〉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종합목록 이외의 이용 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근대문학종합목록 이외에 한국고문헌종합목록 서비스를 구축하여 독립된 웹페이지를 통해 고문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문헌 서비스의 현황과 이용자의 요구를 동시에 알아보고자, 한국고문헌종합목록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원문이 실제 활용에 있어 얼마나 편리한지, 이용자의 업무수행, 교육, 학습에 얼마나 유용한지에 관

한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이용자 343명 중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의 디지털 원문이 이용에 있어 편리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 수가 지배적이었다(72%). 반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원문의 유용성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근대문헌을 이용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이용자들은 디지털 원문을 활용한 경험이 있을 경우 그 유용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디지털 원문 이용이 편리하지 않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에 서술되는 ‘자료 이용 시 불편한 점’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도 디지털 원문 접근 불가인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표현되어 있다. 이는 한국고문헌종합목록에서의 디지털 원문이 이용자의 수요에 비해 많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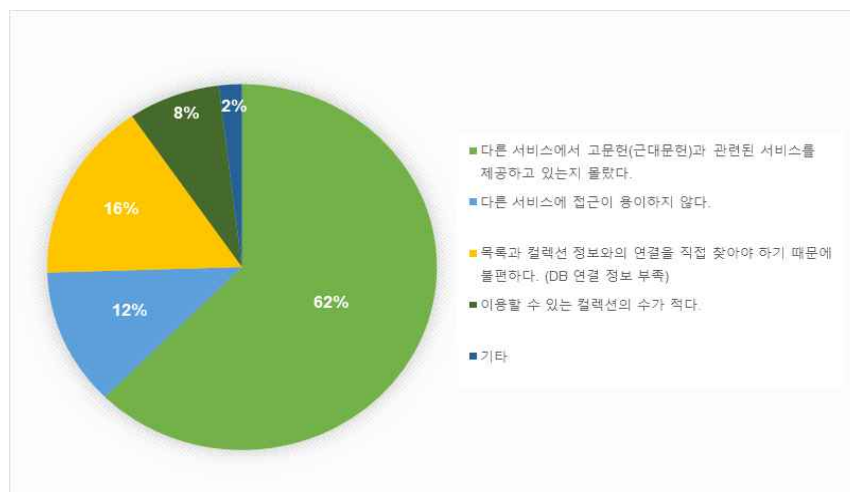


〈그림 39〉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의 디지털 원문 이용 편의성 및 유용성 인식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는 한국고문헌종합목록 뿐 아니라 코리안 메모리, 디지털 컬렉션 등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가 근대문헌을 이용할 때, 한국고문헌종합목록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의 다른 아카이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아카이브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이용자 요구 기반의 서비스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립중앙도서관 내의 아카이브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지 않는다’가 54%, ‘이용한다’가 46%로 비슷한 비율의 응답이 나타났다. 근대문헌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한국고문헌종합목록과 다른 아카이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경우 이점으로는 폭넓은 정보탐색이 가능하다는 점과, 한국고문헌종합목록에서는 한정적인 자료 검색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컬렉션, 아카이브, 전시 등의 콘텐츠가 부족하여 다른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반면, 코리안 메모리, 디지털 컬렉션 등과 같은 아카이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62%의 응답자가 ‘다른 서비스에서 근대문헌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부분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목록과 컬렉션 정보를 함께 보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으며(16%) 컬렉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컬렉션의 수가 적어 이용하지 않았다(8%)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구축되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데, 이를 통해 근대문헌 검색 시 그와 관련하여 구축된 컬렉션을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배치하고 링크를 통해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0〉 국립중앙도서관의 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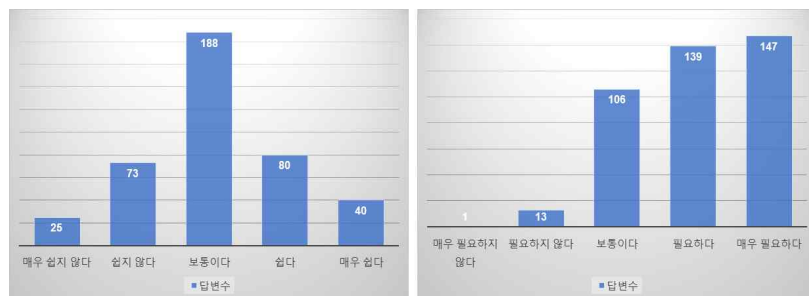
⑤ 타 기관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되어 있지 않은 근대문헌을 대학도서관, 역사관 등의 타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을 경우 근대문헌 이용자들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안내받기를 원하는지 파악하고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타 기관의 근대문헌 소장 정보를 볼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65%의 이용자들은 타 기관의 근대문헌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35%는 타 기관의 소장된 근대문헌을 접근, 획득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타 기관의 근대문헌을 이용하고 그것에 접근하는 것이 편리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406명 중 188명이 ‘보통이다’의 답변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국 근대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에서는 ‘매우 필요하다’ 147명, ‘필요하다’, ‘보통이다’가 106명으로 거의 모든 이용자가 타 기관의 근대문헌에 대한 접근을 요구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타 기관의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이 쉽게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한다고 판단되며, 향후 온라인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시 타 기관의 협력 확대를 필수 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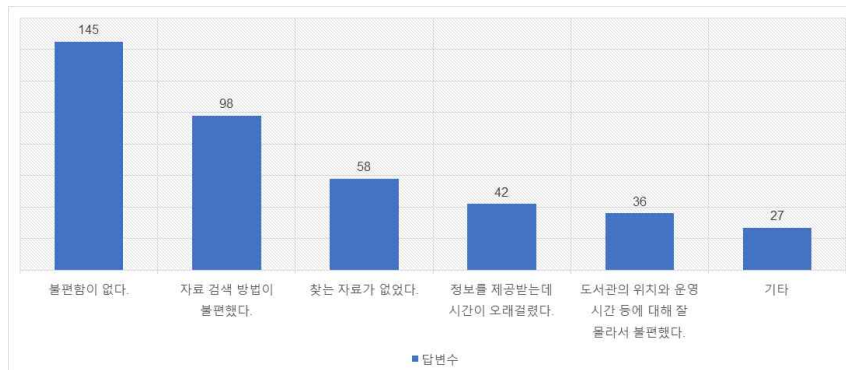
〈그림 41〉 국립중앙도서관의 타 서비스 동시 이용할 때의 이점



〈그림 42〉 타 기관의 근대문헌 이용 용이성 및 접근 필요성

⑥ 개선사항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근대문헌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하다고 느낀 점에 대한 인식을 개방형 질문과 함께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 이용에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으나, 자료 검색 방법이 불편하다는 의견과 찾는 자료가 없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림 43〉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자료 이용 시 불편한 점

개방형 응답에서는 전자자료의 접근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자료를 이용할 때 디지털 원문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접근할 수 있으나 디지털 원문 접근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정 협약도서관에서만 접근해야 하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또한 디지털 원문이 구축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방문해야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오래되어 불명확한 활자가 있고 자료의 손상으로 인해 가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다운로드 속도 문제, 해석본 검색에서의 시간 할애, 일반인 활용 범위 확대에 대해 고려되지 않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19〉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자료 이용 시 불편한 점(개방형 질문)

- 전자자료 접근 제한
 -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정협약도서관 제한
 - 직접 방문해야 열람 가능하여 불편함
 - 지방에 사는 이용자
- 작가 이름과 필명의 연동 필요
 - 서로 다른 한국어로 표기된 외국인 작가 및 외국어 작품 연동
- 원문제공 불가
 - 온라인 공개 안 되는 자료 많음
- 오래되어 불명확한 활자 및 자료 손상
- 근대문헌 원문 자료의 공개 기준이나 분류 원칙 미 제공
- 근대문헌의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활용 방법 등 예시 제공으로 일반인 활용 범위 확대
- 자료 검색할 때 한자(한글) 표기 제공
- 확실한 키워드가 아니면 연관 자료 검색이 어려움
- 다운로드 속도 느림
- 이미지 화질 개선
 - 이미지 파일 중 스캔 이미지 불량 많음, 한자 오식 오류
- 캡처가 안 되는 경우 매우 불편
- 한자 원문의 경우, 해석본을 따로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림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서비스의 개선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자료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인식(98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웹사이트 구성이나 접근 방법의 편의성이 87명, AI와 빅데이터 등의 최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목 요구는 65명, 검색 방법의 확대 59명, 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47명,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의 확대는 41명이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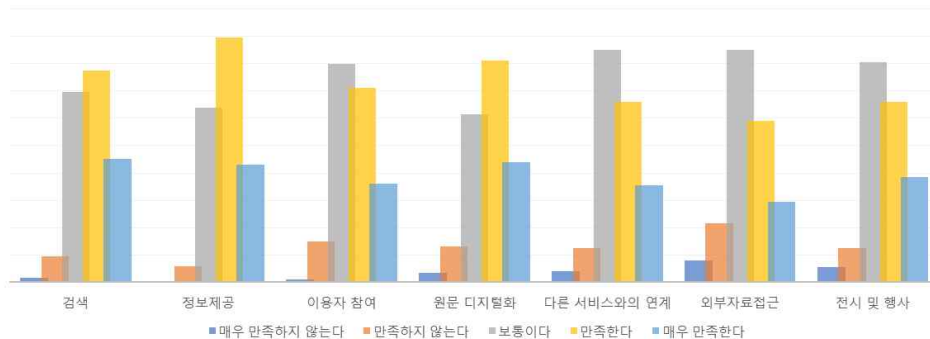


〈그림 44〉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서비스 개선사항

오픈형 응답인 기타 의견에 응답한 9명은 집에서 바로 연결되는 서비스 구축, 원문보기의 관외 무료 이용 확대, 발간연도의 오기재에 대한 점검 및 보완, 디지털화된 문헌 확대, 사진 형태의 스캔자료에 대한 문자화(OCR), 자료의 양 확대, 홍보 등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⑦ 세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대문헌 서비스를 7개의 카테고리로 유형화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근대문헌을 이용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 접근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다른 서비스에 비해 정보제공 서비스와 원문 디지털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검색에 있어서 ‘보통이다’의 비율이 함께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그 비율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머지 서비스 유형인 이용자 참여,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 외부자료 접근, 전시 및 행사에 대해서는 ‘보통이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대문헌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거나 아직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가 부족하여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자료 접근성과 전시 및 행사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림 45〉 국립중앙도서관 세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⑧ 제공되길 희망하는 서비스

앞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헌 기반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 및 만족도 인식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되지 않더라도 향후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근대문헌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요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대문헌을 이용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접근하는 이용자는 주로 원문서비스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였으며 시대별, 주제별 등 검색 접근성의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컬렉션 구축 확대, 교육지원, 타 기관 정보 접근의 확대 순으로 이용자 요구가 확인되었다.

즉, 이용자들은 단순한 자료 열람을 넘어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성을 기반으로 하는 원문서비스와 다양한 검색 옵션의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또한 근대문헌에 대한 컬렉션 구축을 강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타 기관의 정보와 연계된 자료 접근 등 보다 넓은 정보망과 지원 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가로,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구축한다면 이용할 의향이/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이용자는 이용할 의향이/의사가 있다고 표현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많은 이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자료 탐색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대문헌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갖춘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온라인 통합서비스가 구축되면 자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하나의 플랫폼만으로

다양한 자료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고, 디지털화된 콘텐츠와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근대문헌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함의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도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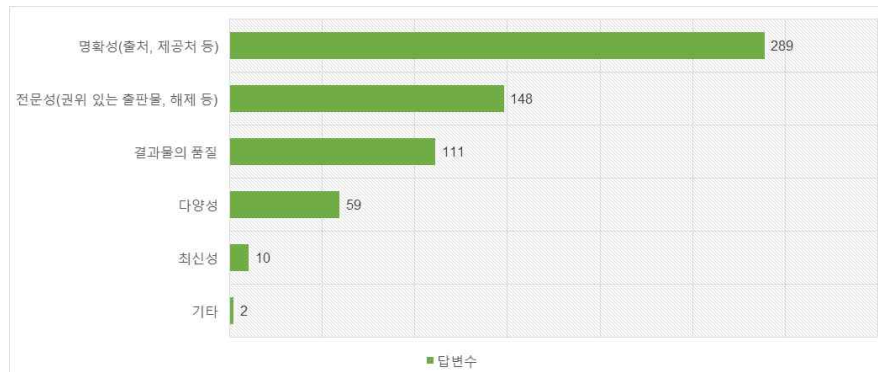


〈그림 46〉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구축 시 향후 이용 의도

다. 전체 근대문헌 이용자의 인식

① 근대문헌의 신뢰성 판단

연구, 업무, 학업을 위해 근대문헌을 활용하는 전체 이용자 619명의 인식을 기반으로 근대문헌 서비스 전반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연구나 업무, 학업에서 필요하여 수집한 근대문헌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한 결과 619명 중 289명의 이용자가 출처나 제공처의 명확성을 가장 높은 신뢰성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8명은 권위 있는 출판물 또는 해제와 같은 전문성이 높은 자료를 선호하였다. 이는 이용자들이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결과물의 품질, 다양성, 최신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대문헌 서비스 개발 시, 자료의 출처, 명확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하도록 지원하고, 연구나 학업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 근대문헌 정보의 신뢰성 판단 기준

② 검색된 정보자원과 관련 자료의 연결 필요성 및 선호 방식

근대문헌 소장기관에서 자료를 검색할 때 검색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 연계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선호하는 서비스 방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근대문헌 이용자 대부분 자료 연결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관련 소장 자료 목록과 전문 해제 또는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검색 결과와 관련 자료 연결 필요성 및 선호 방식

③ 문학 분야의 근대문헌 이용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한국 근대문학 종합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근대문헌 중 문학 분야의 자료에 대한 검색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대별 근대문학과 관련된 저자, 사건, 해제 등의 자료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대문헌의 통합서비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근대문헌 주제 중 문학 분

야에 대한 수요를(이용 비중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서비스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해당 분야의 서비스 범위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근대문헌을 이용하는 전체 이용자 619명 중 ‘보통이다’에 213명, ‘이용한다’에 161명, ‘많이 이용한다’에 101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용자들이 대체로 문학 분야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근대 시기의 문학 자료를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의 한 축으로 구성하여 함께 서비스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49> 근대문헌 주제 중 문학 분야의 이용 비중

④ 근대문헌 활용 기관

근대문헌 이용자들이 업무나 연구, 학업 수행 시 이용하는 근대문헌 서비스 기관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3개까지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안내하였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용자 중 27.3%가 국립중앙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공공도서관(11.9%), 국사편찬위원회(10.8%), DBpia(10.3%), 한국학술정보(9.4%), 웹 검색(9.1%), 한국학중앙연구원(7.8%), KERIS(5.8%), 대학도서관(4.1%), KISTI(1.2%), KISS(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근대문헌 활용에 있어 주요한 정보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DBpia, 한국학술정보 등의 디지털 학술정보 플랫폼 또한 업무, 연구, 학업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0〉 근대문헌 이용 기관

기관유형	중복 답변 수(명)	비율(%)
국립중앙도서관	431	27.33
공공도서관	189	11.98
국사편찬위원회	170	10.78
DBpia	162	10.27
한국학술정보	148	9.38
웹 검색 (Google, Naver 등)	144	9.13
한국학중앙연구원	123	7.80
KERIS (RISS 등)	91	5.77
대학도서관	64	4.06
KISTI (NDSL 등)	19	1.20
KISS	15	0.95
JSTOR	8	0.51
기타	13	0.82

대학도서관을 선택한 64명은 이용 중인 대학명을 기재하도록 안내하였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학도서관은 서울대학교(17명), 연세대(10명), 고려대(8명)였으며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외대, 경상국립대, 동국대 등의 대학도서관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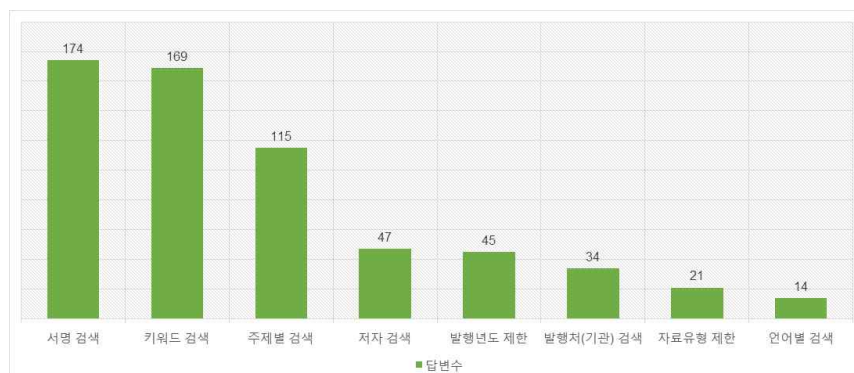
국내 근대문헌 서비스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서울대학교의 경우 근대문헌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고문헌 원문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제별, 언어별, 시대별, 유형별, 문고별 자료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이처럼 근대문헌 원문에 대한 접근과 유연한 검색 방식을 지원한 점이 높은 이용률의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근대문헌 이용 위한 대학도서관 및 기타 응답 기관

대학도서관	응답 수	기타 응답 기관
서울대학교	17	국회도서관
연세대학교	10	박물관자료
고려대학교	8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	기록원
한국외대학교	4	규장각
경상국립대학교	3	작은 도서관
동국대학교	3	한국은행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3	디지털장서각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개발할 때 검색 및 접근 가능한 정보의 범위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검색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했다. 주로 서명 검색, 키워드 검색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제를 검색하는 방식 또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저자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하거나 발행 연도, 발행처, 자료 유형, 언어 등 다양한 검색 설정 기능을 혼용하여 자료를 획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문헌종합목록에서 근대문헌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연도 설정 기능을 통해 근대에 해당하는 연도와 시기를 별도로 입력해야 하는데, 서명 또는 키워드의 정확도에 따라 출력되는 검색 결과가 상이하고 검색 방법 또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아 활용성이 떨어진다. 근대문헌 통합서비스 개발 시 기관 사이트의 검색 성능을 개선하고 높은 자료 접근성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능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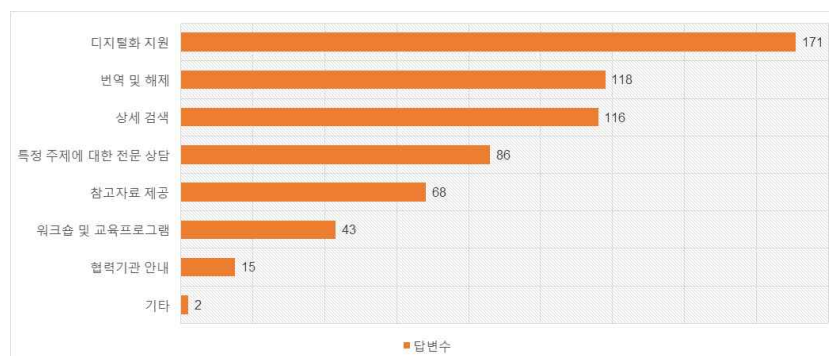


〈그림 50〉 정보 검색 시 선호 방식

⑤ 전문인력

근대문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그중 디지털화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서 확인한 근대문헌 통합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희망 사항에서도 알 수 있듯, 원문서 확대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높기에 현재 근대문헌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소장하고 있는 근대문헌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대문헌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해석하기 어려운 근대문헌의 번역 및 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며, 검색 접근성을 확대하여 상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들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와 관련 참고 자료의 검색 및 제공 서비스를 원하고 있었으며, 근대문헌과 관련된 워크숍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즉, 이용자들은 전문 학예연구사가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근대문헌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구는 근대문헌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단순히 자료에 대한 접근에 그치지 않고, 근대문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대문헌 서비스 기관들은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마련하여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예연구사를 비롯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 전문인력이 필요한 근대문헌 서비스

전문인력이 필요한 근대문헌 서비스에 대해서 개방형 응답을 수집한 결과, 전문직원과의 상담, 이해하기 쉬운 설명 및 번역, 해제 서비스, 검색 방법 교육, 디지털 아카이빙 등(*)에 많은 요구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용자들의 응답을 통해 자료 디지털화, 번역 및 해제 제공, 검색 확대 및 방법 교육, 주제 전문 상담 등이 현재 근대문헌 서비스에서 가장 요구되는 부분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2〉 전문인력이 필요한 근대문헌 서비스(개방형 질문)

- AI서비스활용 정보접근, OCR 텍스트
- 전문직원과의 상담(*)
- 이해하기 쉬운 설명, 해석, 번역 및 해제(*)
- 검색 : 방법, 정확성 향상, 교육, 자연어 검색(*)
- 관련 자료 안내
- 근대문헌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 전시 활성화
- 디지털 아카이빙(*)
- 디지털 복원
- 연관자료 연계
- 도면화 서비스 제공
- 도서 및 자료, 정보 추천
- 원문이용서비스 제고 및 확대
- 국내 자료의 해외 발굴 사례 제공
- 홍보
- 연구지원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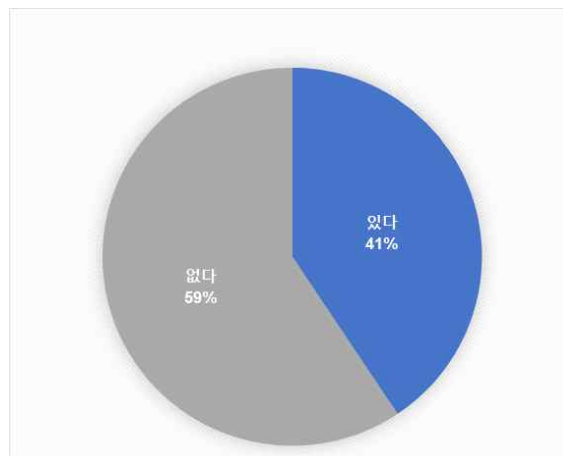
전문인력 직원이 제공하는 도움 및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매우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대문헌의 수집과 디지털화 작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자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근대문헌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또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단순히 근대문헌 자료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근대문헌 서비스 기관들은 전문인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의 강화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근대문헌 자료의 가치와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그림 52〉 근대문헌 서비스 이용시 직원 도움의 유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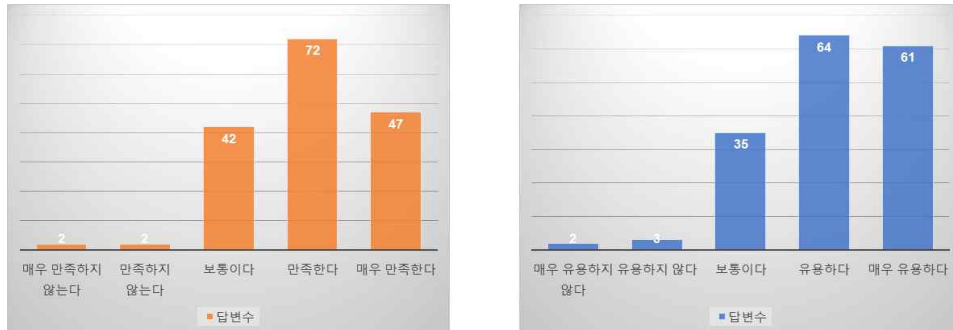
⑥ 근대문헌 프로그램

근대문헌 관련한 학술대회, 교육, 전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41%, 없는 이용자는 59%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이용자가 근대문헌과 관련한 교육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는 점은, 근대문헌을 개별 자료로서 서비스하는 기관이 적고 교육이나 전시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근대문헌의 가치를 알리고 활용을 촉진하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임을 보여준다. 이는 근대문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대문헌의 필요성과 가치를 고취하기 위한 학술대회, 교육,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3〉 근대문헌 프로그램 참여 여부

근대문헌 관련한 학술대회, 교육, 전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참여 만족도와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학술대회, 교육, 전시 프로그램이 학습,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근대문헌 교육, 학술대회, 전시에 대한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음에도, 참여한 사람의 만족도와 유용성이 높다는 점을 보면, 근대문헌과 관련된 행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4〉 근대문헌 관련 학술대회, 교육, 전시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유용성

추가로, 교육을 받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들은 전문 정보 검색 방법에 대한 교육, 읽기 및 번역 교육, 디지털 아카이브 활용법 등 근대문헌 자료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활용 역량을 함양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근대문헌의 특성상 과거에 쓰여진 자료이기 때문에 현대의 언어 및 문서 형식과 차이가 있어 해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이 자료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자 요구 기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은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이용자들이 근대문헌을 직접 분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5〉 근대문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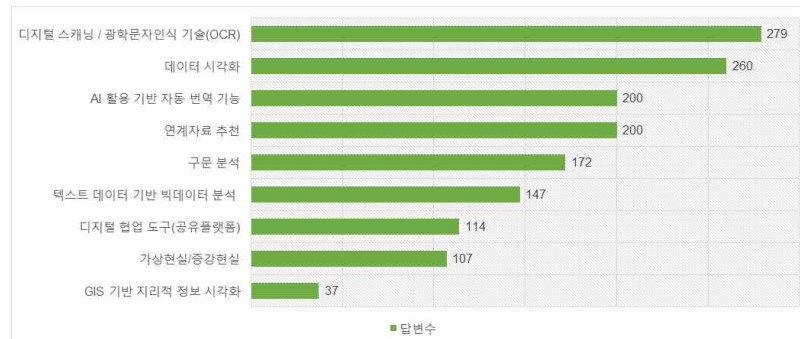
⑦ 근대문헌 디지털 기술 적용

근대문헌은 역사적인 기록이며 근대시기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된다. 근대문헌은 1945년 이전에 발행된 문헌이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기록관 등에서 이를 보존,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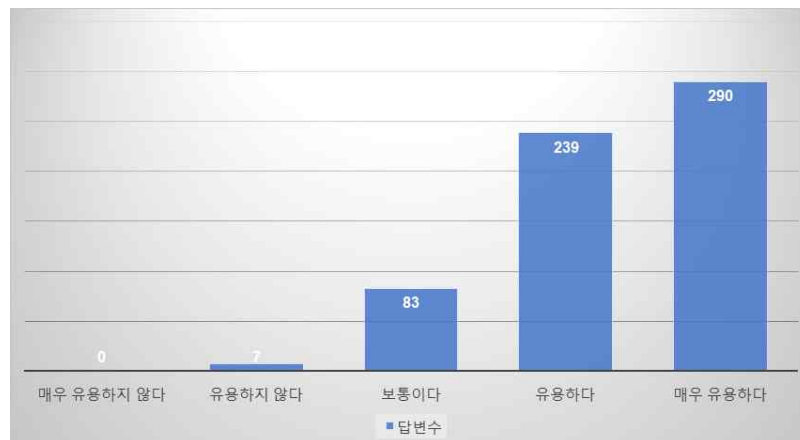
나 오래전 발행된 문헌의 노후화는 자료 보존에 있어 큰 장벽이 되고 있다. 현재 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디지털 분야뿐 아니라 도서관에서도 이를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도서관의 오래된 문헌과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도구이다. 이러한 디지털화 지원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여 이용자들이 문헌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며 생성형 AI, 텍스트 인식, 주제별 및 시대별 검색 접근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근대 시기의 정보를 탐색하는 학생, 연구자, 교수자, 일반 이용자의 정보탐색 범위를 확장해주고 쉽게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디지털 기술의 적용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유용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근대문헌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근대문헌을 획득하고 활용할 때 필요할 것 같은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3개까지 중복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조사 결과 디지털 스캐닝 및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인 OCR 기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근대문헌 데이터의 시각화, AI를 활용한 번역 및 해제 기능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디지털 스캐닝과 OCR은 근대문헌의 텍스트 인식을 유용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검색을 용이하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데이터의 분포와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으며 AI를 활용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한문을 자동으로 번역해 주는 기능을 구축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종합하면, 근대문헌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접목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유용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근대문헌 서비스에서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이용자들이 자료에 접근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서비스 개발에서 이용자 요구에 맞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림 56〉 필요한 근대문헌 디지털 기술 및 기능



〈그림 57〉 근대문헌의 디지털 기술 접목 유용성

3.2 근대문헌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인터뷰

근대문헌을 소장하거나 온·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11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면과 구술 방식에 의해 진행되었다. 서면 인터뷰는 기관의 근대문헌 소장자료 유형과 수량의 현황, 자료 수집 방법,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포맷, 기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관리 항목(필드), 근대문헌 주요 이용자군, 근대문헌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의 내용, 근대문헌 전담 인력의 현황, 향후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의사 여부 등으로 구성되었다(부록 1 참조).

구술 인터뷰는 기관의 근대문헌 관리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는 대부분 사서들이었다. 이들은 근대문헌 관리 현황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고 자신들의 견해가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하였다. 구술 인터뷰는 근대문헌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현황, 이용자 요구, 전문 연구사(사서)로서의 역할 인식,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의사, 목록과 메타데이터 현황, 자료 수집 및 반출 정책, 기능 분석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각 기관의 특성과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추가하였다.

가. 근대문헌 수집 방법

서면 인터뷰를 통해 각 서비스 기관의 근대문헌 수집 방법을 확인하였다. 근대문헌을 수집할 때 기증, 구입, 기탁, 이관 등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기증 방식을 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터뷰 참여 기관 중 4개의 기관이 기증을 통해 근대문헌을 수집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3개의 기관이 구입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일부 기관은 기증과 구입, 또는 기탁과 이관 등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통해 근대문헌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메타데이터 형식과 관리 항목

메타데이터 형식의 경우 인터뷰 참여기관 모두 MARC를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기관별로 메타데이터 항목이 상이하였으며,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관리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산자, 시기(생산년도), 명칭, 이명칭, 키워드 검색, 세부 출처(쪽수 등), 일련번호, 원문이용(부분 또는 전체), 주요 주제, 크기, 전문 해제, 공간 정보(장소 등), 내용, 자료출처, 유물번호(내부관리용), 테마 주제, 기타로 항목을 구분하고, 기관별 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기관이 생산자, 시기, 명칭, 세부 출처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원문 이용(전체), 전문 해제, 자료 출처, 유물 번호를 메타데이터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 기관 또한 상당수였다.

다. 이용자군

조사에 참여한 기관 담당자 중 다수(7명)는 근대문헌의 주요 이용자층을 교육자(대학교수, 강사, 교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다음은 전문연구자(5명), 학생(4명), 사서(2명) 순이었다.

라. 이용자 만족도

담당자들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만족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의 장점을 언급하였다. 온라인 방식으로 원하는 자료의 소장 여부 확인 및 검색, 대출 및 열람 서비스, 자료의 다양성, 고문헌에 특화된 서비스 등이 만족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마. 전담 인력

기관 담당자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기관에서 근대문헌을 전담하는 담당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사서 업무, 자료관리 및 열람 업무, 상호대차 업무, 원문 복사 업무,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고문헌 또는 근대문헌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심지어 근대문헌을 소장하지만 담당하는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바.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의사

근대문헌 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에 대해 아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강한 협력 의지를 보이는 곳은 찾기 어려웠다. 이는 담당자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대문헌 관련 업무수행과 협력을 통해 서비스 확대를 업무 가중의 부담으로 느끼기 때문이었다. 이는 근대문헌 자료의 특수성과 고유의 가치를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가진 전담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사. 근대문헌 관리 현황

대부분의 기관들은 기존 고문헌 관리 체계 내에서 근대문헌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료 훼손 및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폐가식서고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근대문헌 자료들이 '고서'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보물이나 국가유산을 지정되어 있는 귀중서, 국보급 자료들을 제외하고는 분류해서 고서실에 보관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900년대 초반 근대자료들은 서비스는 되고 있지 않은, 일반 이용자들로부터 접근이 안 되게끔만 관

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학도서관 A 사서)

현재 저희는 고서와 준고서를 별도로 관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고서는 고문헌실 내부에 조그맣게 서가로 보관하고 있어요. (대학도서관 B 사서)

아. 물리적 훼손과 멸실방지 차원의 보존과 관리 우선

근대문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를 관리하기보다는 물리적 훼손과 멸실을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 차원에서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기관에서의 근대문헌 관리는 적극적이고 안정적이기보다는 단기적이고 단발적인 조치 위주로 이행되고 있었다.

선별 기준은 물리적 훼손을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 대상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까지 파악해서 자료가치를 평가하지는 않고요. 오래된 책이니 부서질 수 있잖아요. 준고서실이 일반도서실에 비해 향온, 향습, 향균이 더 잘 되어 있으니, 보존하기에는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도서관 B 사서)

준고서실에서 관리하는 근대문헌의 경우 복사는 자료 훼손 우려 때문에 불가능해서 보통 필요한 부분을 사진 촬영 해가십니다. (대학도서관 B 사서)

자료 가치가 높다는 인식보다는 육안으로 봐도 손상이 큰 장서 중 오래된 것들을 중심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도서관 D 사서)

자. 사서의 개인 역량 중심의 관리

응답자 중 일부 사서는 바쁜 업무 환경 속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장서를 살펴보고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문예지, 창간호와 같은 오래된 장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분류와 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근대문헌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있어서 전문성과 노력이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한다.

준고서 선별 작업은 저희 사서들이 직접 합니다. 1959년 이전 발간도서 중 가치가 있다고 추정되는 도서만 거기에 넣습니다. (대학도서관 B 사서)

최근 도서관 예산이 크게 줄면서 전문 분야가 아닌 업무를 맡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대학도서관 D 사서)

체계적으로 골라내진 않아도 문예지와 창간호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사서들이 꼭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자료를 인식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이 있으니까요. 실무 수행 중 기회가 생길 때마다 주의 깊게 장서들을 살펴보는 상황입니다. (대학도서관 A 사서)

차. 제적·폐기의 위험성

근대문헌은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별도의 보존서고에 비치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일반 서가에 비치되는 근대문헌 자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 서가에 다른 자료들과 섞여서 서비스되는 자료는 분실·훼손의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폐기의 위험도도 높다. 최근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된 보존 환경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1910년 ~ 1945년 간행된 책들 중에서, 일반 단행본 형태의 책들은 일반도서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지요. 그중 희귀한 책들만 또 제가 관리를 하고, 유일본, 초본 등은 별도 구분해서 이쪽에도 있어요. 일반 장서로 분류된 근대문헌들은 나중에 폐기 될 가능성이 높죠. (대학도서관 C 사서)

일반도서 중 오래된 장서들, 주로 출판년도가 1980년대 이전인 자료들을 폐가식서가 형태로 보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가치가 높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도서관 리모델링 등 개편을 하면서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최신자료 위주로 공간을 재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도서관 C 사서)

카. 예산 확보 노력의 중요성

근대문헌은 기관의 자료예산만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근대문헌의 가치를 강조하여 국가유산 지정 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통해 아카이브 구축 등의 서비스 확장이 가능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 외에도 목적성 기금 등 비상시적 예산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대학교도서관은 불교 관련 국보급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보수와 관련한 부분들을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청 쪽 보존신청 예산편성을 통해 돈이 내려오면 중구청과 문화재청 예산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도서관 A 사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힘든 여건이어서, 기회가 생기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자체기금이라고 해서, 기부금 등 목적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학교에서 교비를 받아서 귀중본실 향온항습기 교체도 하고 그랬습니다. 비상시적으로 큰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보존 용품들은 교비에서, 큰 금액은 아니기에 일상적으로 예산 편성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도서관 A 사서)

오동나무 책장, 포갑처리(케이스 개선) 등을 예산 확보가 가능할 때마다 매년 조금씩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도서관 A 사서)

타. 해제 서비스의 필요성

근대문헌은 전문가 집단이 주된 이용자군이라는 하나, 일반 이용자의 관심도 존재한다. 그리고 전문가 중에서도 대학원생과 같은 학습자들은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학예사, 연구사에 의한 전문가 활용 서비스와 더불어 해제 서비스를 통해 자료의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 기증으로 근대문헌을 받기는 했지만, 일단은 그거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어떤 문헌인지 전공자가 없어서 파악이 어려웠어요. 내용도 다 한자에다가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자료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대학도서관 D 사서)

도서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헌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거나 학술 행사를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학도서관 D 사서)

사서가 자료 보관과 관리 업무만 담당하며, 도서관 이용자들이 자료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도서관 C 사서)

근대문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은 고문헌 관리 체계 내에서 근대문헌 관리도 포함하고 있으며, 자료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폐가식 서고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 활용보다는 물리적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오래되고 손상이 심한 자료를 향온·향습 조건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자료 관리 담당자들은 문예지, 창간호 등 희소성 높은 자료를 개인적 지식에 기반하여 선별·관리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분류 기준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료 가치 평가 및 연구 활용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특히 일반 장서로 분류된 근대문헌은 향후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전문적인 장서 분류 및 관리 체계 확보를 통한 보존력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근대문헌은 예산 확보가 용이하여 보존 및 아카이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사립대학 등 예산 확보 및 운영이 어려운 기관은 도서관 기금 또는 비상 예산을 활용하여 보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근대문헌의 연간 이용 건수는 연구자 중심의 이용으로 인해 적은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기관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근대문헌의 학술적 가치와 체계적인 보존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전문가 서비스나 해제 서비스를 통해 자료 이용의 수월성을 높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근대문헌 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서비스 기관의 현황과 담당자 의견을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문헌의 학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근대문헌은 대부분 기존 고문헌 관리 체계 내에서 물리적 훼손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관리되고 있으며, 자료의 학술적 가치 발굴 및 체계적인 분류·평가 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근대문헌에 대한 평가 및 해제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표준화된 관리 기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문인력 확보와 협업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대학도서관 등에서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료의 가치가 충분한 이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근대문헌 통합서비스 개발 시 학술적 해제 작성 및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근대문헌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근대문헌 이용은 주로 연구자에게 한정되어 일반 이용자의 접근성이 낮다. 따라서 통합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디지털 아카이브화를 통한 자료 접근성 향상과 이용자 친화적인 검색 및 열람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근대문헌 보존과 활용의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 근대문헌 관리가 물리적 훼손

손 방지에 치중되면서 연구 및 대중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통합서비스에서 보존과 활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기반으로 연구 및 대중적 활용을 위한 복제본, 디지털 이미지 제작, 온라인 열람 기능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통합적 데이터 수집 및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도서관 등 기관별로 분산된 근대문헌은 관리 방식이 상이하고 통합적 데이터가 부족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근대문헌 메타데이터 표준을 설정하고, 전국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료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예산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운 기관에서는 자료 보존 및 아카이브 구축이 일회적이거나 비상사적인 예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근대문헌 통합서비스를 위한 예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

4.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 및 운영방안

4.1 온라인 통합서비스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

근대문헌은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물으로써 근대사회의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지식과 사상을 담고 있어 학술적, 교육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크다. 특히, 근대문헌은 여러 분야에서 연구와 지식탐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에게 잊혀져 가는 역사적 흐름을 재조명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과거로부터 축적된 방대한 자료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보관되어 있거나 편리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근대문헌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근대문헌 제공기관의 사례를 보면, 통합서비스 구축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근대문헌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국내 박물관들은 유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특정 주제를 기반으로 아카이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근대문헌에 대한 총체적이고 망라적인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 일부 대학도서관에서의 경우 원문서비스와 같은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는 근대문헌의 원문을 교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거나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또한 온라인 카탈로그와 디지털 컬렉션을 통해 제공되는 장서의 메타데이터는 기관마다 설정된 항목이 상이하여 동일한 종류의 장서임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이는 기관 간 협업과 정보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별 기관들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문헌만을 별도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메타데이터 구축, 자료 해제 서비스, 그리고 원문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용빈도와 만족도가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대문헌 통합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국외 서비스 기관을 조사한 결과, 동아시아 도서관이나 한국 컬렉션을 보유한 일부 일본 및 북미권 대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한국 근대문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침이나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국외에서 제공되는 한국 근대문헌은 자료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국외 기관에서 한국 근대문헌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고급 검색 기능을 통해 날짜와 국가를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일부 기관에서 한국학 서가 내 일제강점기 관련 카테고리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한국 근대문헌에 초점을 맞춘 서비

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국외에 소장된 한국 근대 문헌의 목록을 탐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희귀본 컬렉션이나 특별 컬렉션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고문헌에 한정되어 있어 근대문헌, 특히 한국 근대문헌에 해당하는 장서나 컬렉션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외에 소장 중인 한국 근대문헌 자료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하며 이용자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존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근대문헌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국외에 산재해 있는 근대문헌 자료의 수집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국내외 문헌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지침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용자와 기관 담당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문헌 이용자 중 다수가 온라인 이용을 선호하며 응답자의 70% 이상이 웹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대문헌 이용 방식이 점점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과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쉽게 근대문헌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서비스의 구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용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및 기관에 접근하여 근대문헌을 활용할 때, 주로 소장자료 및 디렉토리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나 검색 방법에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자료 찾기에서 근대문헌을 검색할 수 있지만 근대문헌만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사이트나 메뉴가 없어서 각각의 근대문헌에 대한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해야 해당 근대문헌을 검색할 수 있다. 이에 이용자들은 근대문헌과 관련된 주제별, 시대별, 저자별 등의 디렉토리 방식으로 근대문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별도의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검색 접근점을 제공하여 근대문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근대문헌 이용자들은 디지털화된 원문 자료의 이용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다는 점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국내외의 기관들은 근대문헌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디지털화 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아 원문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접근성 확대는 국가 문화유산인 근대문헌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근대문헌의 디지털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화가 어려운 기관들을 지원하며 근대문헌의 디지털화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화는 근대문헌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제공을 가능하게 하며 더 나아가 연구자와 일반 이용자 모두의 접근성을 높여 근대문헌의 학술적·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넷째, 설문조사 결과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들은 타 기관이 소장한 근대문헌 자료에 대한 접근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즉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헌 소장자료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 소장되어 있는 근대문헌도 한 번의 검색만으로 연계되어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이용자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정제, 연계하여 효율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검색 과정에서의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통합된 메타데이터 시스템은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근대문헌 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용자와 기관 담당자 모두 근대문헌의 전문 해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기관 담당자는 체계적이고 상세한 정보제공을 통해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관리 항목에 전문 해제 필드를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용자들 선택형, 개방형 질문에서 근대문헌의 전문 해제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근대문헌은 한문으로 기술된 자료의 비중이 높고 문헌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자들은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근대문헌의 학술적, 교육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전문 해제 서비스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와 근대문헌의 활용 측면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섯째, 이용자들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 근대문헌 서비스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스캐닝, OCR(광학 문자 인식), 데이터 시각화, AI 기반 자동 번역 기능, 그리고 연계 자료 추천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근대문헌을 디지털화하고, 분석 방식을 더욱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최신 디지털 기술들은 근대문헌의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료 활용의 깊이를 더하여 새로운 연구와 창의적 해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는 향후 고도화된 AI 서비스 기반으로 하여 개인 맞춤형 자

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추천하거나 자동화된 분석 도구를 활용해 문헌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기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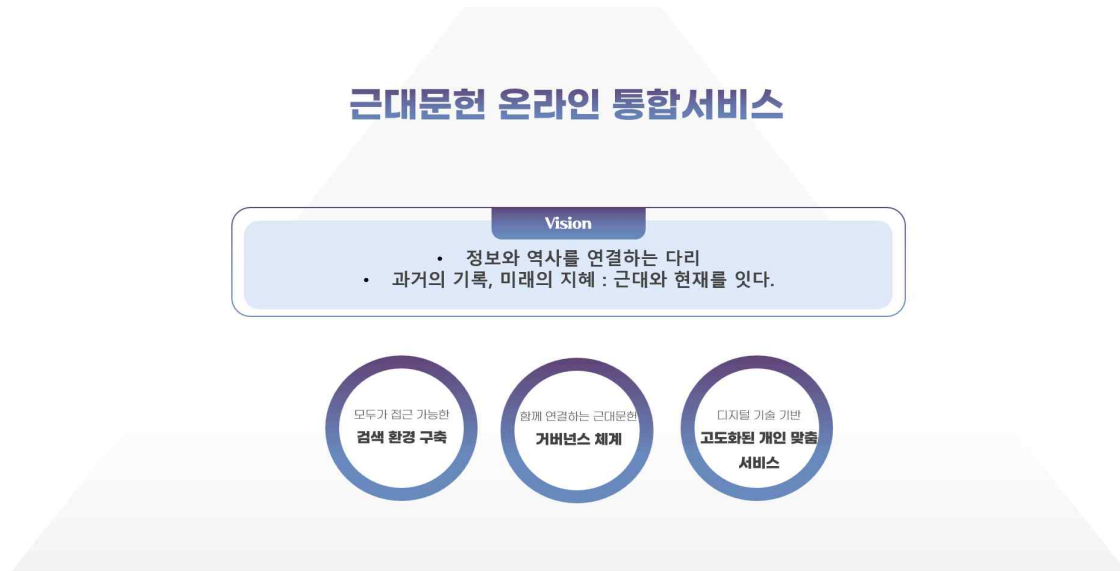
일곱째, 앞서 나타난 이용자들의 요구와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는 결국 근대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의 전문인력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소장자료를 관리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근대문헌의 가치적 측면을 전파하고 이용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인력 또는 사서가 각 기관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의 특화 교육을 개발하여 전문 해제 서비스 구축, 소장자료의 접근성 확대 방안, 이용자 교육 등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인력은 이용자들에게 보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 기관 내 전문성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근대문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근대문헌은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기록물로서 학술적, 교육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현행 서비스는 통합성, 접근성, 그리고 디지털화의 한계로 인해 이용자와 기관 모두에게 불편함과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한국 근대문헌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며 국내외 근대문헌에 대한 검색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통합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된다. 국내외에 산재한 한국 근대문헌을 포괄하는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한국 근대문헌의 범주를 확장하고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4.2 시스템 비전 및 목표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역사적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 발행된 역사 기록이 디지털화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중요한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근대문헌이 문화적, 역사적, 학문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용자들이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는 것에서 나아가 깊이 있는 지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근대문헌을 개별 관리, 통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근대문헌을 과거와 현재를 이을 수 있는 지식 연결고리로 인식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의 근대문헌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제공하여 학술연구와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산재되어 있는 근대문헌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비전과 세부 목표를 도식화하면 <그림 58>과 같다.



<그림 58>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 시스템의 목표 및 비전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외의 근대문헌 자료를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이용자들이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는 데 지원하는 통합검색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59>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비전

가. 정보와 역사를 연결하는 다리

국립중앙도서관은 과거에 생성된 근대문헌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보존·관리하는 주요 기관으로서, 근대문헌이 과거의 기록으로만 머물지 않고 현재의 지식 창출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나. 과거의 기록, 미래의 지혜 : 근대와 현재를 잇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과거의 기록을 현재와 미래의 지혜로 이어지도록, 단순한 자료 보존 및 관리를 넘어 역사적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현재와 미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활용 기회를 확대한다. 근대문헌 이용자 및 잠재 이용자들이 쉽게 근대문헌에 접근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

이상의 비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① 모두가 접근 가능한 ‘검색 환경 구축’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현재의 검색시스템은 간략한 키워드 검색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제별, 시대별 등의 근대문헌을 찾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불편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정확한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만 검색 결과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한문 중심의 디렉토리 검색 방식으로 인해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는 검색에서부터 진입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의 한계는 근대문헌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장애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일반 이용자들이 근대문헌을 보다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주제별, 시대별, 저자별 등 검색 접근점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들은 어려운 한자와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대문헌 검색

시스템의 디렉토리 검색 기능을 개선하거나 보다 직관적인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즉 정확한 정보를 모르더라도 다양한 검색 조건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다 손쉽게 탐색할 수 있는 디렉토리 방식의 검색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 설문에서는 근대문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제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해제 서비스란 어려운 한자나 학술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더불어 문헌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근대문헌을 처음 접하는 이용자들이 해당 자료의 의미와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자료의 배경지식이 부족한 일반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이해하기 어려운 과거 문헌이더라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이용자들의 요구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현황을 종합하면 근대문헌의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주제별, 시대별, 저자별 등 검색 접근점을 확대하여 보다 쉽게 근대문헌을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현재 한자로 구성된 디렉토리 검색에 한글 번역 기능을 추가하여 정보탐색의 용이성을 확대한다.
- 이해하기 어려운 근대문헌 내용에 대한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료의 의미와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검색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들이 근대문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현황과 국내외의 근대문헌 관리 및 운영체계 분석, 이용자 설문조사, 기관 담당자의 면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중점으로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를 도출하였다.

첫째,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인 검색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현재의 검색시스템은 한문으로 구성된 디렉토리 방식이거나 정확한 검색어를 입력해야 검색 결과가 나타난다. 이에 정확한 문헌명을 알지 못하거나 한문을 읽지 못하는 일반이용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검색의 UI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거나 필터링 기능 및 주제별, 시대별, 사건별, 저자별 등 폭넓은 검색의 접근점을 지원하여 이용자가 보다 쉽게 문헌을 탐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근대문헌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현대에 발행된 출판물의 검색 방법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많아 도서관에서는 이용자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근대문헌의 경우에는 근대 시기의 환경과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역사적 흐름에서 근대문헌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용자들이 능숙하게 근대문헌에 접근하여 자신의 과업에 맞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전문 주제 사서와 학예사와의 상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정보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요구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는 자신이 어떠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해야 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어디서 자료를 볼 수 있는지, 어떤 플랫폼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문 사서나 학예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보 획득 방법과 검색 전략 등을 안내받는다면 이용자의 정보 활용 역량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사서와 학예사의 전문성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온라인 통합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어려워하는 한자, 역사적 흐름, 배경 등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한다. 이해하기 어렵거나 생소한 문장이나 용어에 대한 해제 및 번역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문헌을 보다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근대문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근대문헌의 이용 활성화가 높아질수록 숨겨져 있는 근대문헌의 가치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실물 자료로 소장하여 관리하고 있는 근대문헌의 디지털화를 확대하여 국내외의 모든 근대문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기관뿐 아니라 한국 근대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국외의 기관과도 모두 연결하여 한국의 근대문헌에 대한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② 함께 연결하는 근대문헌 ‘거버넌스 체계’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 현황과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타 기관이 소장한 근대문헌 자료에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며, 검색 결과 내에서 타 기관 소장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이용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약된 특정 도서관의

자료만 접근할 수 있어서 지역적인 장벽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경험한다. 또한 소장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정보 접근 단계가 복잡할수록 이용자는 유용한 정보라도 정보 획득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근대문헌에 관심 있는 모든 이용자들이 쉽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디지털화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재 일부 기관 및 도서관에서는 디지털화 비율이 낮아 전국적으로 모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국내의 기관들이 보유한 한국 근대문헌이 각각 개별 기관 단위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한데 모아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나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 각 기관의 관리 방식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접근 방법과 검색 기능이 상이해 이용자들은 각 기관마다 다른 검색 인터페이스를 익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자료 접근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한 곳에서 한국의 모든 근대문헌을 통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자료 접근성을 높인다면 이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도하여 근대문헌 통합검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추진하고 근대문헌의 통합검색과 디지털화 추진을 위한 일관된 방향과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통일된 규정 및 규칙을 통해 근대문헌의 체계적인 디지털화와 온라인 접근성이 보장된다면 귀중한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고 자료 보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내외 이용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료를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목표를 실현하고 접근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할 구체적인 서비스 구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문헌의 필요성을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공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근대문헌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협력 체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고문헌과 구분되는 근대문헌만의 보존 및 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근대문헌의 보존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관련 기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 협의체는 근대문

헌의 디지털화를 중점으로 한 연계 협력에 중요한 기제 역할을 하며 필요한 인력, 조직체, 예산을 마련하여 서비스 구축의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조직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셋째, 참여기관 간의 데이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의 고문헌 관리 체계에서 다뤄지던 근대문헌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근대문헌만을 위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넷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근대문헌을 많이 소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과 우선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협력이 가능한 기관들과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기관 간 협력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협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통합검색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한다.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메타데이터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정제하여 통합함으로써, 일관된 형식을 유지하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근대문헌의 지속적인 디지털화를 통해 원문 스캔본을 확보하고, 디지털 원문 이용을 확대한다. 이를 기반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물리적 제약 없이 근대문헌을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축 방안을 바탕으로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근대문헌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이 역사와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디지털 기술 기반 ‘고도화된 개인 맞춤 서비스’

이용자들의 근대문헌 활용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 적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근대문헌 서비스 지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현재 디지털 기술이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대문헌을 활용하는 데 있어 AI, 광학 문자 인식, 데이터 시각화 등과 같은 근대문헌 분석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대문헌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하며 구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근대문헌 데이터 기반 AI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 챗봇 서비스를 통해 근대문헌 탐색 및 활용과 관련된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고 기본적인 정보 검색 방법이나 정보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로 제시한다.

둘째, 학생과 연구자, 일반이용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통계 및 분석 서비스이다. 현재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웹페이지에서는 키워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 통계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예로, 도서관 정보나루 홈페이지에서는 각 공공도서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위 주요 키워드를 분석해 주거나 도서관을 선택하여 선택한 도서관 간의 차이를 시각적인 차트로 보여준다. 이러한 기능은 단순히 근대문헌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여 이용자들이 특정 주제 및 트렌드를 파악하고 정보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인 API 개발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의 근대문헌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준다면 근대문헌 이용자, 연구자들이 효과적으로 근대문헌을 자신의 분야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AI 기반의 검색 기능을 기반으로 근대문헌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검색은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하여 관련성이 높은 자료를 먼저 제공해주고 직접 입력한 검색어에 대한 오타나 동의어, 유사어 등을 자동으로 교정해주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은 명확한 검색어를 알고 있지 않더라도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검색어를 추천 및 수정하기 때문에 정보 획득 과정에서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보안 및 접근 제어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여 문헌의 관리와 보존에서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디지털화된 자료는 해킹이나 악의적 삭제 등으로 인해 한순간에 정보가 없어질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이에 디지털화된 근대문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거나 외부의 해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이용자들이 근대문헌을 쉽게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도화된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자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정보와 지식을 연결하는 중심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3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방향

4.3.1 기존 시스템 분석

가. AS-IS vs. TO-BE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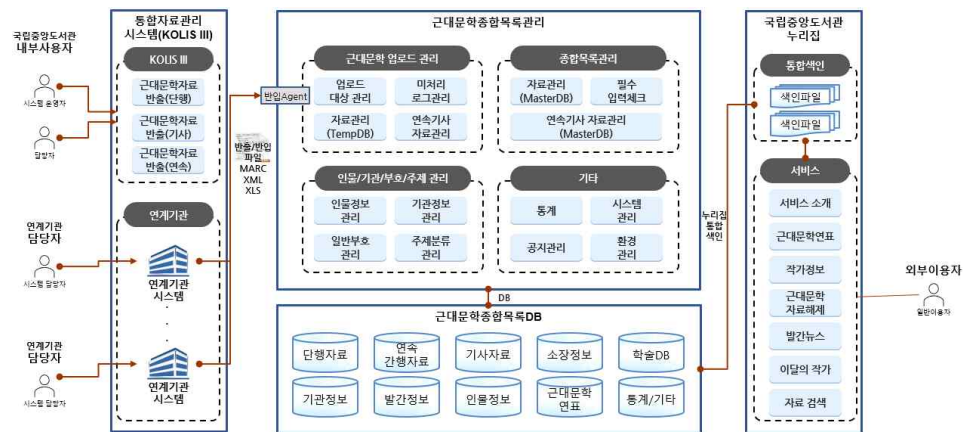


〈그림 60〉 국립중앙도서관 기존 시스템 분석 (AS-IS, TO-BE 분석)

기존 국립중앙도서관 서비스는 근대문헌에 특화된 서비스 채널의 부재로, 이용자들에게 정보탐색 노력과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유 유통 채널이나 근대문헌 정보의 이용을 위한 개별 기관 가입 및 검색 서비스 등이 부재하다.

한국 근대문헌 통합서비스는 근대문헌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유통, 활용하는 근대문헌 정보 고유의 지능형 통합 정보 포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수요자 및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서비스는 장벽 없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대국민 서비스나 연구자 및 근대문헌 소장 관련 기관들이 주요 수요자가 될 것이다. 주요 서비스는 ① 수집, 관리 서비스 ② 이용자 서비스, ③ 지능형 서비스로 구성이 되며, 주요 기능은 ① 최적화된 정보구조, ② 자료(원문, 문서, 영상) 관리, ③ 대용량 데이터 수집, 처리 엔진 ④ 디지털 콘텐츠 통합 관리 기능을 갖추기를 제안한다.

나. 현행 시스템 구성도



〈그림 61〉 국립중앙도서관 현행 시스템 구성도

현행 시스템 구성도는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작동 방식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도구로 활용된다.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 데이터 흐름, 네트워크 연결, 그리고 상호작용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시스템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현재 상태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현행 시스템 구성도는 서버,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계층, 이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주요 요소를 포함하며, 각 요소 간의 연계와 데이터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이에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설계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시스템은 KOLIS III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계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반입 받고 이를 다시 반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시스템은 근대문화 업로드 관리와 종합목록 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렇게 관리된 데이터는 별도의 색인이 아닌 누리집 통합색인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의 하부 메뉴로 서비스되고 있다.

다. 현행 시스템 문제점

① 관리 측면

관리적 측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화종합목록 시스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국립중앙도서관의 시스템은 TempDB(근대문화업로드관리)와 MasterDB(종합목록관리)를 혼용하고 있다. 업로드된 자료와 종합목록의 관리에서 두 개의 분

산된 시스템으로 자료를 관리할 경우, 데이터 동기화 또는 일관성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중복을 방지하고, 권한 관리와 데이터 흐름을 일원화할 수 있는 일원화된 DB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미처리 로그 관리의 역할이 불명확하다. 현재 로드 관리 섹션에서 “미처리 로그 관리”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미처리 로그가 발생하는 이유와 그 처리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면, 데이터 누락이나 유실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미처리 로그의 처리 절차와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스템 내부에 중복 기능이 존재하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 일부 기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속기사 자료 관리가 업로드 관리와 종합목록 관리에 중복되어 나타나 있다. 이는 담당자로 하여금 업무수행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및 개선 기능, 다양한 유형 관리 기능, 중복 데이터 감지 및 정리, 데이터 검증 및 오류 수정 등의 데이터 품질 관리 기능, 고급 검색 및 필터링 기능, 권한 관리 및 이용자 맞춤 서비스, 통합 및 분석 서비스, 기관 간 연계 등 통합 관리를 위한 많은 추가 기능이 필요하다.

현행 시스템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DB에서는 동기화와 일관성 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근대문학 자료 관리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를 설계하고, 추가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② 서비스 측면

서비스 측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학종합목록 시스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문학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가 부족하다. 도서관의 누리집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근대문학에 대한 전문적이거나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특히 검색 기능의 한계는 근대문학에 맞춘 세분화된 필터링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원하는 문헌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시각적 디자인의 측면 제한적이다. 누리집은 다양한 정보를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서비스로는 근대문헌을 위한 맞춤형 디자인이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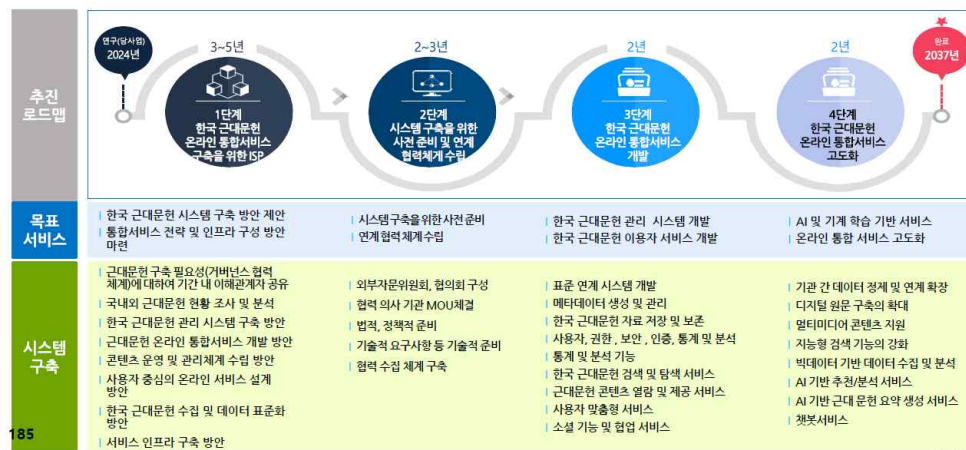
셋째, 자료 보존 및 관리 문제이다. 근대문헌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자료이므로 특별한 보존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은 자료의 체계적 관리나 보존을 위한 기술적 지원이 부족하다.

넷째, 중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 서비스가 부족하다. 근대문헌에 관심 있는 연구자나 학계 전문가들은 맞춤형 서비스나 심화 정보 제공을 필요로 할 수 있으나, 누리집은 대중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다섯째, 콘텐츠 집중도 저하가 우려된다. 누리집의 다양한 다른 콘텐츠와 함께 근대문헌이 제공되면, 해당 자료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희석될 수 있다.

4.3.2 시스템 구축 로드맵

4) 로드맵



〈그림 62〉 국립중앙도서관 시스템 구축 로드맵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포함하여 한국 근대문헌의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한국 근대문헌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 통합서비스 전략과 인프라 구성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근대문헌 구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한다. 국내외 근대문헌 현황 조사를 통해 자료의 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서비스 인프라 구성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 설계를 통해 초기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준비를 완료한다.

2단계에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와 연계 및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외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력 의사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법적·정책적 준비와 함께 기술적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시스템 설계의 기반을 마련한다. 협력 수집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연계하며, 표준 연계 시스템 개발과 메타데이터 생성 관리 방안을 구체화한다. 이 단계는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 이전에 협력 기반과 기술적 준비를 완료하는 데 중점을 둔다.

3단계에서는 한국 근대문헌 관리시스템과 이용자 서비스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통합 데이터 저장 및 보존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용자 인증, 보안, 통계 분석 기능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개발한다. 이용자 중심의 검색과 탐색 서비스, 근대문헌 콘텐츠 제공 기능을 구현하여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킨다. 또한, 소셜 기능 및 협력 서비스를 추가하여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자 경험을 강화한다.

4단계에서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고도화한다. AI 기반 검색과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여 검색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며, 디지털 원문 구축을 확대한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지원과 통합된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능을 통해 서비스를 발전시킨다. AI 기반 근대문헌 요약 서비스와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기관 간 데이터 정책 및 연계 확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 시스템 구성도

① 목표시스템 구성도



〈그림 63〉 국립중앙도서관 목표시스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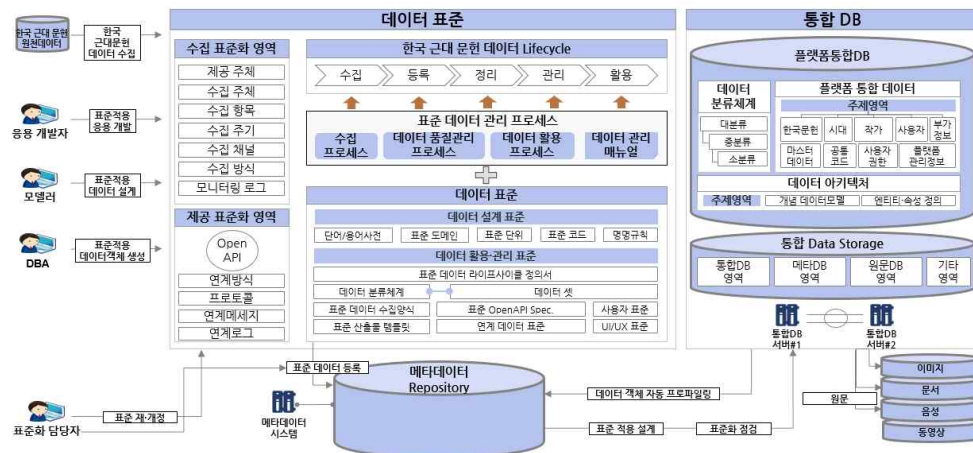
목표시스템 구성도는 시스템 개발 또는 프로젝트 수행 시 최종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시스템의 아키텍처, 구성 요소 간의 관계, 데이터 흐름 등을 한눈에 보여주어 기술적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의 동작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성능 최적화와 같은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시스템과 목표시스템 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효과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먼저, 이 시스템은 다양한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설계된다. 주요 이용자로는 일반 이용자, 학생, 연구자, 외국인, 기타 이용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디지털 인증을 통해서 특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멀티 디바이스 서비스를 통해 컴퓨터, 스마트폰 등 다양한 채널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한국 근대문학 온라인 통합서비스는 크게 서비스 Layer, 관리 Layer, 데이터/분석 Layer, 인프라 Layer, 거버넌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비스 Layer은 검색서비스, 근대문학서비스, 연구자 지원 서비스, 활동/유통 활용 서비스, 그리고 공통 서비스를 포함한다. 관리 Layer는 데이터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통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이용자 로그 및 활동 모니터링, 시스템 보안 및 유지보수 기능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데이터 Layer는 한국 근대문학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데이터 관리 기능은 중복 검증, 품질 강화,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한다. 인프라 Layer에서는 통합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의 저장, 검색, 공유가 이루어지며, 인프라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외부 인프라를 추가하여 AI 서비스 등 추가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시스템은 오픈 API 기능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내부 시스템(KOLIS III, 코리안 메모리, 누리집)

과의 연계뿐 아니라 반출-반입 기능을 통해 외부 기관과도 자료를 반입-반출 시스템을 통해 연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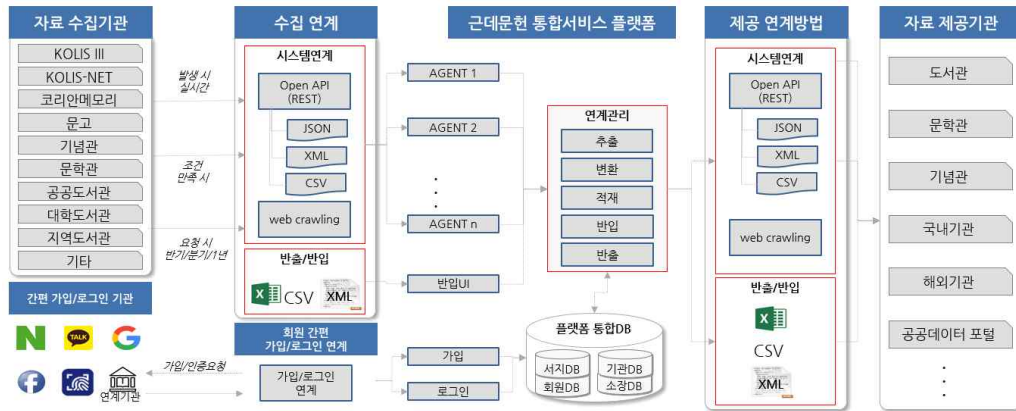
② 데이터 수집 · 관리 체계 개념도



〈그림 64〉 한국 근대문학 온라인 통합서비스 데이터수집 · 관리 체계 개념도

데이터 수집 · 관리 체계 개념도를 통해 데이터의 수집 경로, 저장 방식, 처리 단계, 그리고 활용방안을 명확히 정의하여 전체 데이터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다양한 출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표현되어 있다. 데이터 표준 영역에서는 데이터의 수집, 등록, 정리, 관리, 활용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표준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와 데이터 설계 표준, 활용 표준을 정의한다. 통합 DB에서는 통합 Data Storage를 통해 이미지, 문서, 음성, 동영상 형태의 원문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한다. 플랫폼 통합 데이터와 연계된 API 및 저장소 구조를 통해 데이터 접근성과 확장성을 개선할 수 있다.

③ 표준 연계 체계도



〈그림 65〉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표준 연계 체계도

표준 연계 체계도는 서로 다른 시스템,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 및 정보 교환을 표준화하여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데이터 교환의 규격, 프로토콜, 인터페이스에 의하여 시스템 간의 호환성을 높이고, 통합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근대문헌 통합서비스의 자료 수집기관은 도서관, 박물관, 기념관 등 국내외 기관으로 구성되며, 수집 연계 단계에서는 Open API(REST), JSON, XML, CSV 등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활용하거나 웹 크롤링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데이터 수집은 데이터 발생 시 실시간으로 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시 하거나, 기관에서 요청 시 반기/분기/1년 등 특정 주기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다.

근대문헌 통합서비스 플랫폼에서는 에이전트를 통해 데이터를 추출, 변환, 적재, 반출하는 연계 관리 과정을 수행하며, 이를 플랫폼 통합DB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이후 제공 연계 방법을 통해 Open API, JSON, XML, CSV 등의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며, 자료 제공기관은 기관별 필요한 방식으로 자료를 반출 받을 수 있다.

표준 연계 체계도에 나타나 있는 간편 가입/로그인 기관 기능은 수집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직접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통합서비스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서 데이터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다.

④ 표준 메타데이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지 메타 표준과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표준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서지 데이터의 경우

KORMARC을,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의 경우 MODS(최신 개정판 3.8)를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준을 통해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한다.

특히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는 디지털 자원에 특화된 메타데이터 표준으로, MARC와 비교적 간단한 Dublin Core(DC)의 장점을 결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MODS는 디지털 콘텐츠의 상세한 기록과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료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기존 MARC 레코드와 호환된다. 한국 근대문헌의 디지털 자료에 대한 표준 메타데이터로 권장되며,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 국내 주요 기관에 서도 활용되고 있다.

나. 독립형 서비스 구축의 장점과 고려 사항

① 장점

표준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독립형 서비스를 구현하면 정교한 검색 기능, 주제별 자료 분류, 심화된 메타데이터 활용 옵션을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으며, 맞춤형 기능 설계가 가능하다. 맞춤형 기능에는 근대문헌 연구에 적합한 고급 검색 알고리즘, 세분화된 주제 분류 체계, 심화된 데이터 활용 방식이 포함된다.

또한, 근대문헌 자료의 특성에 맞춰 설계된 데이터 구조는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맞춤형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자료의 신뢰도와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자료 보안을 강화한 플랫폼 설계가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전문적인 보안 체계를 포함한 독립형 시스템은 자료 손실 방지와 불법적인 접근 차단을 위한 접근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자료의 안전성과 장기적인 보존을 담보할 수 있다.

이용자 경험(UX)과 인터페이스(UI)를 근대문헌 자료 탐색에 최적화하여 플랫폼 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연구 기록 관리, 주제별 데이터 저장, 북마크 기능 등 이용자 맞춤형 도구를 통해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고려 사항

표준 메타데이터 기반의 독립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면 독자적인 플랫폼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버 인프라 설계, 도메인과 URL의 체계적 관리, 그리고 백엔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인프라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의 토대가 된다.

서비스에 특화된 프론트엔드 개발은 이용자 경험(UX)과 인터페이스(UI)의 최적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특히, 근대문헌 자료를 신속히 검색하고 탐색하는 기능을 강화하며,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해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고 직관적인 이용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플랫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관리와 보안 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제어와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백업 및 복구 프로세스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유실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불어, 이용자 인증 시스템을 통해 불법 접근을 방지하여 데이터의 무결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디지털화 및 메타데이터 관리는 플랫폼 운영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디지털 아카이빙과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체계를 활용해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콘텐츠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자료의 품질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용자 지원과 피드백 수집 체계 또한 필요하다. 이용자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피드백 채널을 구축하고, 연구에 활용 가능한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플랫폼의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의 목적과 가치를 담은 고유한 브랜드 이미지와 로고를 설계하고, 온라인 홍보 및 학술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더 폭넓은 이용자층을 확보해야 한다.

4.4 정보화전략계획 프로젝트 개요

4.4.1 기본개요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ISP 사업은 한국 근대문헌 자료 관리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립형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근대문헌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자와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인프라를 마련하고자 한다.

4.4.2 요구사항 및 범위

표준 메타데이터 독립형 서비스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요구사항 및 범위는 국내외 근대문헌의 소장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또한, 한국 근대문헌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설계·개발하며, 데이터 저장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 요구사항을 제안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안은 국내외 근대문헌 자료를 통합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검색, 열람, 다운로드 등의 주요 기능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 범위와 구조를 설계하며, 근대문헌 디지털 콘텐츠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메타데이터 표준과 보존 정책을 수립한다. 이용자 경험(UX)과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고려한 시스템 설계를 통해 이용자 맞춤형 검색 및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고, 근대문헌의 디지털화 및 데이터 표준화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자료 관리를 제안한다.

디지털화에서는 자료의 특성에 맞는 고품질 스캔과 메타데이터 태깅을 통해 효율적인 검색과 활용을 지원하며, 국내외 소장처와의 협력으로 자료 수집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도입 여부를 검토하여 최적의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4.4.3 예상 일정 및 예산

표준 메타데이터 독립형 서비스 구축을 위한 예산 제안에서는 프로젝트의 주요 단계별 필요 항목과 비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먼저, 요구사항 분석과 기획 단계에서는 국내외 근대문헌의 소장 현황을 조사하고, 서비스 개발을 위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연구 인력과 자료 조사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메타데이터 표준 설계와 기술적 요건 도출에 필요한 기본 예산을 산출할 수 있다.

시스템 설계와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는 독립형 플랫폼 아키텍처 설계, 서버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설계 전문가와 인프라 엔지니어를 투입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장비 및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설계와 인프라 구축은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서비스 개발 및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는 이용자 맞춤형 UI/UX 설계와 검색, 열람, 다운로드 등의 주요 기능이 개발된다. 디지털화와 메타데이터 태깅을 통해 자료의 품질을 높이고, 이를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개발 인력과 테스트 환경 구축 비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작업은 이용자 편의성과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배포와 이용자 교육 단계에서는 서비스 런칭과 이용자 피드백 수집, 초기 운영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용자 교육 자료 제작 및 홍보 캠페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서비스 초기 활용성을 높이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업데이트를 준비한다. 이러한 단계는 성공적인 서비스 도입과 초기 이용자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지보수와 콘텐츠 업데이트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추가하고, 메타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보안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지보수 인력과 보안 점검 비용을 포함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체계적인 예산 분류와 자원 배분을 통해 효율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며,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비해 예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5. 결론

근대문헌은 봉건 체제에서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문학적 발전을 크게 이룩한 시기에 발행된 우리나라의 지나온 역사적인 유산이자 가치를 지니는 기초 자료이다. 과거에서 축적된 방대한 문헌은 현재 국내외의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보관되어 있으나 디지털화가 되지 않은 문헌의 비율이 높고 근대문헌의 관리와 활용에서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나아가 기관의 보존 환경과 정책에 따라 귀중한 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대문헌을 토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통합검색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본 연구는 국내의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문학관, 대학도서관, 역사관 등의 근대문헌 소장 및 운영 현황, 서비스 등을 망라적으로 조사하였으며 한국의 근대문헌이 소장되어 있는 국외의 기관을 조사하여 근대문헌의 관리와 연계를 위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국립중앙도서관뿐 아니라 국내 기관도 근대문헌만을 특화하여 별도로 서비스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으며 고문헌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도서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일부 제공하는 기관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주제별, 유형별, 시대별, 인물별 등 직관적인 검색 환경을 제공하거나 타 기관의 자료를 연계하여 디지털 원문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각 기관마다의 메타데이터 형식에 차이가 있어 이를 통일할 수 있는 표준화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외의 기관에서도 근대문헌 자료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국외에 소장되어 있는 근대문헌을 접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문헌 이용자들의 근대문헌의 이용행태와 요구, 기술 접목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총 619명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근대문헌 이용자는 온라인을 주로 이용하며 주로 소장자료 및 디렉토리 검색서비스가 불편하여 다양한 검색 접근점이 필요함을 표현하였다. 디지털 원문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여 디지털 원문의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타 기관의 자료 접근 확대, 전문 해제 서비스 제공, 디지털 스캐닝, OCR, 데이터 시각화 등 디지털 기술의 접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근대문헌의 서비스의 한계를 진단한 결과, 총체적이고 망라적인 근대문헌 시스템을 구현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조사 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근대문헌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외에 산재된 근대문헌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여 자료의 접근성 및 연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구축할 당위성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된다. 근대문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학술적인 연구와 대중적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전과 세부 목표를 제안하였다. 세부 목표의 주요 항목은 **1) 지식의 연결고리, 검색의 접근성 확대, 2) 근대문헌 통합 검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3) 디지털 기술 기반 고도화된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이다. 홈페이지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검색 UI, 필터링 기능, 교육프로그램, 전문 주제 사서 및 학예사와의 상담 서비스, 전문 해제 및 번역 서비스, 디지털화 구축 확대 등에 대한 기능을 포함해야 하며 거버넌스 체계 구축 측면에서는 근대문헌의 활용과 공유, 보존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국내외의 기관들과의 연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수립, 협력 네트워크, 메타데이터 표준화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챗봇 서비스, 통계 및 분석 서비스, API 개발, AI 기반 검색 기능, 보안 및 접근 제어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ISP의 수립 방향을 제안하였다. 한국 근대문헌 정보를 수집, 유통, 활용하는 근대문헌정보의 고유한 지능형 통합 정보 포털 구축으로 인한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관리 측면과 서비스 측면으로 진

단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추진 로드맵을 제안하면서 목표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시스템을 수정하여 목표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이용자, 제공 채널, 연계 부분에 대한 시스템 구성도를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데이터 수집과 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데이터 표준과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도, 체계도를 구성하였다.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는 독립형 서비스로 구축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기능을 포함한 근대문헌 중심 허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2022).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14).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 보고서.
- 국립중앙도서관. (2015). 국내 근대문학 자료 소장 실태조사.
- 국립중앙도서관. (2022).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국사편찬위원회. (2020). 한국 고문서 입문.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 민족문화사연구소. (2000). 근대계몽기의 학술·문예사상. 서울: 소명출판.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14).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
- 신동민. (2001). 인터넷 검색엔진의 디렉토리 구성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8(2), 143-164.
- 유춘동, 오영식. (2021). 시대 변화에 따른 근대문헌 범주의 재설정 문제와 방안. 서지학연구, 87, 51-65.
- 이윤상. (2006). 역사용어 바로 쓰기: 한말, 개항기, 개화기, 애국계몽기. 역사비평, 300-304.
- 조연현. (1985). 한국현대문학사. 서울: 성문각.
- Ni, D., Ito, M., Kim, E., Yang, A., & Doll, V. F. (2024).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2022-2023 for North American Institutions.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178(7). 82-105.

국내 기관

- 국가기록원.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www.archives.go.kr>>
- 국립고궁박물관.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www.gogung.go.kr/gogung/main/main.do>>
- 국립민속박물관.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www.nfm.go.kr>>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www.nl.go.kr>>

국립중앙박물관.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www.museum.go.kr>>

국사편찬위원회.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www.history.go.kr>>

국회도서관.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www.nanet.go.kr/main.do>>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www.much.go.kr>>

문화공공데이터 광장.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www.culture.go.kr/data/main/main.do>>

법원도서관.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e-book.scourt.go.kr/main>>

서울기록원.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archives.seoul.go.kr>>

서울역사박물관.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www.museum.seoul.kr>>

아카이브814.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www.archive814.or.kr/main.do>>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도서관.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lib.aks.ac.kr/#/>>

국외 기관

국립국회도서관.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ndl.go.jp>>

교토대학교도서관기구.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www.kulib.kyoto-u.ac.jp>>
 도쿄대학교 문학부 소장 오구라문고.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iiif.dl.itc.u-tokyo.ac.jp/repo/s/ogura/page/home>>
 중국국가도서관.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www.nlc.cn>>
 북경대학교도서관.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www.lib.pku.edu.cn>>
 상하이도서관.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www.library.sh.cn>>
 Australian National War Memorial.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www.awm.gov.au>>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www.lib.cam.ac.uk>>
 Columbia University Library (East Asia Library).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library.columbia.edu/locations/eastasian.html>>
 Library of Congress.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www.loc.gov>>
 National Archives.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www.archives.gov>>
 The British Library.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www.bl.uk>>
 The British Museum.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www.britishmuseum.org>>
 The Royal Library.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www.kb.dk>>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V. Starr East Asian Library).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www.lib.berkeley.edu/libraries/east-asian-library>>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www.lib.uchicago.edu>>

University of Toronto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east.library.utoronto.ca>>

대학 기관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www.konkuk.ac.kr>>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lib.gnu.ac.kr>>

고려대학교 도서관.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library.korea.ac.kr>>

단국대학교 도서관.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library.dankook.ac.kr>>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library.dongguk.edu>>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kyujanggak.snu.ac.kr>>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library.snu.ac.kr>>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웹사이트]. [인용일자: 2024.11.15.].

<<https://library.yonsei.ac.kr/>>

인터넷 기사

김도연, 구동완, 박정훈 (2024.11.02.), 5년간 900만원 대학서 버려졌다. 조선일보,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11/02/62DU2IAE35DV5BCJI05US42I3A/

[부록 1]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이용자 설문지

본 설문지의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제 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의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근대문헌 이용자/잠재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성된 연구 설문조사서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평소 느끼고 생각하신 의견에 근거하여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자료 내용은 일체 공개 되지 않으며 자료는 익명을 보장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적으로만 처리됩니다. 또한 연구의 학문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을 경우,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이지연 교수

연락처 : 이고은 연구원(ggoni3530@yonsei.ac.kr)

이용 경험 (경험유무에 따라 설문 종료 및 진행 결정)

1. 본 설문에서의 근대문헌은 1945년 이전에 근대적 출판인쇄술(양장본)로 간행된 문헌을 의미합니다.
2. 근대문헌의 이용, 검색, 정보 활용, 평가 등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3.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헌 자료는 누리집(홈페이지), 근대문학종합목록, 한국고문헌종합목록, 코리아 메모리, 디지털 원문 활용 등의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 서비스란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할 국내외 근대문헌 통합 검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 국립중앙도서관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서비스에서 근대문헌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① 예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용한 경우 선택) ▶ 이용자

② 아니요(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이용해보지 않은 경우 선택) ▶ 비이용/ 설문 종료

: (근대문헌 시기 이외의 이용자는 종료)

2.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헌을 이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① 예 ▶ 3번 이후 모든 문항에 응답

② 아니요 ▶ 3번, 19번, 21번, 22번, 23번, 25번, 26번, 30번, 31번, 32번, 36번, 37번, 38번, 41번 응답

* 온라인 설문의 경우, 여기서 페이지가 구분

3. 최근 1년 이내에 근대문헌 자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상세) 1번의 문항에서 보기 1번을 선택한 경우

① 예 (이용자)

② 아니요 (잠재이용자)

4. 이용 경험의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상세) 앞의 문항에서 보기 1번을 선택한 경우

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이용해보았다. ▶ 5번, 6번, 9번, 10번부터 끝까지 응답

② 온라인만 이용해보았다

▶ 5번, 6번, 7번, 9번, 11번부터 끝까지 응답

③ 오프라인만 이용해보았다

▶ 5번, 6번, 8번, 10번, 11번, 13번, 14번 17번부터 끝까지 응답

5.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근대문헌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① 제공 서비스, 소장자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 ② 근대문헌 서비스에 대해 간단하게 알고 있다.
- ③ 서비스 제공 여부만 알고 있는 정도이다.
- ④ 전혀 모른다.
- ⑤ 기타(자유기술)

* 온라인 설문인 경우, 여기서 페이지가 구분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이용 관련

6.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헌을 이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3개까지 선택 가능)

- ① 업무수행 ② 학술연구 ③ 전시, 견학,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
- ④ 역사자료에 대한 관심 ⑤ 정책 정보 수집 ⑥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수집
- ⑦ 기타(자유기술)

7.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헌 관련 서비스(누리집, 한국고문헌종합목록 또는 근대문학종합목록, 코리안 메모리, 디지털 원문 등)를 웹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까지 선택 가능)

* 4번에서 보기 3번을 선택한 경우 필수

- ① 서비스 존재를 모른다.
- ② 접근 방법을 모른다.
- ③ 연구와 학습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 ④ 원하는 자료나 서비스가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된다.
- ⑤ 유사 기관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헌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 ⑥ 기타 (자유기술)

8.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헌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빈도는 어떠한가요?

* 4번에서 보기 1,2번을 선택한 경우 필수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1번 이상 ③ 한 달에 1번 이상
④ 분기별로 1번 이상 ⑤ 1년에 1번 이상 ⑥ 거의 이용하지 않음

9.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헌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이용하는 빈도는 어떠한가요?

* 4번에서 보기 1,3번을 선택한 경우 필수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1번 이상 ③ 한 달에 1번 이상
④ 분기별로 1번 이상 ⑤ 1년에 1번 이상 ⑥ 거의 이용하지 않음

10. 근대문헌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 접근경로는 무엇입니까?

* 4번에서 보기 1,2번을 선택한 경우 필수

- ① 직접 검색 및 접근 ② 타 사이트 활용 도중 이동 ③ 지인 소개
④ 우연히 발견 ⑤ 기타 (자유기술)

11.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헌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은 무엇인가요? (3개까지 선택 가능)

* 4번에서 보기 1,2번을 선택한 경우 필수

항목(설명)	
소장자료 및 디렉토리 검색	<input type="checkbox"/>
신규구축목록	<input type="checkbox"/>
주제명표목표	<input type="checkbox"/>
연계기관 검색	<input type="checkbox"/>
인물검색	<input type="checkbox"/>
자료실 내 자료 활용	<input type="checkbox"/>
국립중앙도서관의 발행 간행물	<input type="checkbox"/>
회원기관의 소장자료 목록(국내외 126개 기관)	<input type="checkbox"/>
전시 및 행사 참여	<input type="checkbox"/>
디지털 아카이브(코리아메모리)	<input type="checkbox"/>
기타(자유기술)	<input type="checkbox"/>

12.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헌 소장자료 이용 시, 주로 이용하는 자료유형은 무엇입니까? (3개 까지 선택 가능)

항목(설명)	
사진 및 그림	<input type="checkbox"/>
서적	<input type="checkbox"/>
신문 및 잡지	<input type="checkbox"/>
정부 발행 문서	<input type="checkbox"/>
지도 및 도면	<input type="checkbox"/>
편지 및 일지	<input type="checkbox"/>
포스터 및 광고물	<input type="checkbox"/>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자유기술)	<input type="checkbox"/>

13.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헌 자료 이용에 있어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이유였습니까?

- ① 불편함이 없다.
- ② 자료 검색 방법이 불편했다.
- ③ 도서관의 위치와 운영 시간 등에 대해 잘 몰라서 불편했다.
- ④ 정보를 제공받는데 시간이 오래걸렸다.
- ⑤ 찾는 자료가 없었다.
- ⑥ 기타 (자유기술)

14.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학종합목록 이외에 근대문헌을 보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① 소장자료 검색
- ② 코리안 메모리(K-memory)
- ③ 디지털 원문
- ④ 전시컬렉션
- ⑤ 해외 한국 관련 자료
- ⑥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 ⑦ 기타 (자유기술)

16.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의 한국고문헌종합목록에서 근대문헌 디지털 원문을 이용하기 수월
합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17. 업무, 교육, 연구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의 원문(디지털)은 얼마나 유용한가요?

- ① 매우 유용하다 ② 유용하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유용하지 않다 ⑤ 전혀 유용하지 않다

18. 근대문헌 자료 이용 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리안 메모리, 디지털 컬렉션 등
의 서비스와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을 함께 이용하시나요?

- ① 예 (13-1번 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요 (13-2번 문항으로 이동)

18-1. 함께 활용할 경우 이점은 무엇인가요?

- ① 코리안 메모리에서 구축한 컬렉션이 많아 근대문헌 관련 내용 수집이 쉽다.
- ② 디지털 컬렉션 서비스(연관 자료 제시)를 함께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폭넓게 탐색할 수 있다.
- ③ 한국고문헌종합목록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코리안 메모리, 디지털 컬렉션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예: 관련 자료 연결)
- ④ 기타 (자유기술)

18-2. 다른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① 다른 서비스에서 근대문헌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몰랐다.
- ② 이용할 수 있는 컬렉션의 수가 적다.
- ③ 다른 서비스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 ④ 목록과 컬렉션 정보와의 연결을 직접 찾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DB 연결 정보 부족)
- ⑤ 기타 (자유기술)

* 온라인 설문지 경우, 여기서 페이지가 구분

업무/연구에 활용하는 정보 자원 관련

19.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근대문헌의 정보자원은 무엇인가요? (3개까지 선택 가능)

항목(설명)	
서적	<input type="checkbox"/>
신문 및 잡지	<input type="checkbox"/>
기관보고서	<input type="checkbox"/>
논문	<input type="checkbox"/>
지도 및 도면	<input type="checkbox"/>
사진 및 영상	<input type="checkbox"/>
개인 기록 및 일기	<input type="checkbox"/>
아카이브 자료	<input type="checkbox"/>
기타(자유기술)	<input type="checkbox"/>

20. 국립중앙도서관의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길 희망하는 근대문헌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① 시대별, 주제별 등 검색 접근성 확대
- ② 컬렉션 구축 확대
- ③ 디지털 원문 서비스 확대
- ④ 타기관 정보 접근 확대
- ⑤ 교육 지원
- ⑥ 기타 (자유기술)

21. 검색을 통해 찾은 정보자원에 대한 신뢰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시나요?

- ① 최신성 ② 다양성 ③ 명확성(출처, 제공처 등)
- ④ 전문성(권위 있는 출판물, 해제 등) ⑤ 결과물의 품질
- ⑥ 기타 (자유기술)

22. 검색된 정보자원과 관련이 있는 자료를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한가요?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23. 자료연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시나요?

- ① 컬렉션 (디지털컬렉션, K-memory 등)
- ② 관련 소장자료 목록
- ③ 논문 및 보고서
- ④ 전문 해제 혹은 번역
- ⑤ 기타(자유기술)

24. 교육·연구·업무 시,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헌 자료는 유용한가요?

- ① 매우 유용하다 ② 유용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유용하지 않다 ⑤ 전혀 유용하지 않다

* 온라인 설문 의 경우, 여기서 페이지가 구분

근대문헌 활용 기관 관련

25. 현재 이용 중인 근대문헌 분야 서비스/기관은 무엇인가요? (3개까지 선택 가능)

항목(설명)		
국립중앙도서관		<input type="checkbox"/>
국사편찬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한국학중앙연구원		<input type="checkbox"/>
대학도서관		<input type="checkbox"/>
대학도서관 선택 시, 주로 이용하는 대학도서관 기재 ()		<input type="checkbox"/>
공공도서관		<input type="checkbox"/>
학술기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Bpi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한국학술정보(KIS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KERIS(RISS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KISTI (NDSL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JSTOR	<input type="checkbox"/>
웹 검색(Google, Naver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유기술)		<input type="checkbox"/>

26. 주로 활용하는 기관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시나요?

- ① 서명 검색 ② 주제별 검색 ③ 키워드 검색
 ④ 저자 검색 ⑤ 발행처(기관) 검색 ⑥ 언어별 검색
 ⑦ 발행년도 제한 ⑧ 자료유형 제한 ⑨ 기타(자유기술)

타 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관련

27. 타 기관의 근대문헌 관련 정보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획득할 수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28.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근대문헌 정보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획득하기 쉬운가요?

- ① 매우 쉽다 ② 쉬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쉽지 않다 ⑤ 전혀 쉽지 않다

29. 한국의 근대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국내외 타 기관 이용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온라인 설문인 경우, 여기서 페이지가 구분

전문 인력 관련

30. 근대문헌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항목(설명)	
상세 검색	<input type="checkbox"/>
디지털화 지원	<input type="checkbox"/>
번역 및 해제	<input type="checkbox"/>
참고자료 제공	<input type="checkbox"/>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 상담	<input type="checkbox"/>
워크숍 및 교육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협력기관 안내	<input type="checkbox"/>
기타(자유기술)	<input type="checkbox"/>

31. 근대문헌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재 제공되지 않으나 전문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자유 기술)

32. 근대문헌 관련 전문인력의 지원은 귀하의 교육 연구 업무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 ① 매우 유용하다 ② 유용한 편이다 ③ 관심없다
④ 별로 유용하지 않다 ⑤ 전혀 유용하지 않다

근대문헌 프로그램 관련

33. 근대문헌 관련 학술대회나 교육, 전시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 ① 예
▶ 34번부터 모두 응답하도록 설정
② 아니오
▶ 36번부터 응답하도록 설정

34. 학술대회, 교육 또는 전시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33번에서 보기 1을 선택한 경우, 필수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5. 학술대회, 교육 또는 전시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로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3번에서 보기 1을 선택한 경우, 필수

- ① 매우 유용하다 ② 유용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유용하지 않다 ⑤ 전혀 유용하지 않다

36.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 제공받고 싶은 근대문헌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항목(설명)	
읽기 및 번역 교육	<input type="checkbox"/>
보존 및 관리 기술	<input type="checkbox"/>
전문정보 검색 방법 안내	<input type="checkbox"/>
디지털 아카이브 활용법	<input type="checkbox"/>
연구 방법	<input type="checkbox"/>
기타(자유기술)	<input type="checkbox"/>

* 온라인 설문지의 경우, 여기서 페이지가 구분

근대문헌의 디지털 기술 적용

37. 근대문헌 자료를 활용할 때 필요한 디지털 기술 또는 기능이 무엇인가요? (3개까지 선택 가능)

항목(설명)	
텍스트 데이터 기반 빅데이터 분석	<input type="checkbox"/>
구문분석	<input type="checkbox"/>
디지털 스캐닝 / 광학문자인식 기술(OCR)	<input type="checkbox"/>
AI 활용 기반 자동 번역 기능	<input type="checkbox"/>
GIS 기반 지리적 정보 시각화	<input type="checkbox"/>
디지털 협업 도구(공유플랫폼)	<input type="checkbox"/>
가상현실/증강현실	<input type="checkbox"/>
데이터 시각화	<input type="checkbox"/>
연계자료 추천	<input type="checkbox"/>
기타(자유기술)	<input type="checkbox"/>

38. 근대문헌 자료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면 교육·연구·업무에 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유용하다 ② 유용한 편이다 ③ 관심없다
 ④ 별로 유용하지 않다 ⑤ 전혀 유용하지 않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헌 서비스 만족도 및 개선사항

39. 귀하가 생각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헌 서비스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항목(설명)	
검색 방법 확대	<input type="checkbox"/>
웹사이트 구성 및 접근의 편리성	<input type="checkbox"/>
자료의 다양성	<input type="checkbox"/>
최신 디지털 기술 접목(AI, 빅데이터 등)	<input type="checkbox"/>
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input type="checkbox"/>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input type="checkbox"/>
기타(자유기술)	<input type="checkbox"/>

40.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인가요?

리커트 5점 척도

항목(설명)	평가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검색(간략, 상세 검색)	①	②	③	④	⑤
정보 제공 (국립중앙도서관 발간자료, 관련 자료)	①	②	③	④	⑤
이용자 참여	①	②	③	④	⑤
원문디지털화	①	②	③	④	⑤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코리안 메모리, 근대문학종합목록 등)	①	②	③	④	⑤
외부자료 접근(국내외 타기관)	①	②	③	④	⑤
전시 및 행사	①	②	③	④	⑤

41.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근대문헌에 대한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구축하면 많이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다.
- ② 이용할 의사가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이용할 의사가 없다
- ⑤ 전혀 이용할 의사가 없다.

* 온라인 설문지의 경우, 여기서 페이지가 구분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로 표기된 문항은 필수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필수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필수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을 표시해주세요. * 필수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학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석사) 졸업 이상 ⑤ 기타

4.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 필수

- ① 교육계열 ② 예체능계열 ③ 이공계열
④ 인문·사회계열 ⑤ 의학계열 ⑥ 기타

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필수

- ① 학생 ② 교육자(대학교수, 강사) ③ 전문연구자
④ 사무직 ⑤ 사서 ⑥ 학예연구원(기록관, 박물관 등)
⑦ 일반시민 ⑧ 기타(자유입력)

6. 귀하의 업무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필수

- ① 2년 미만 ② 2년 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15년 미만 ⑤ 15년 이상-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25년 미만
⑦ 25년 이상

7. 귀하의 연구(업무)분야는 무엇입니까? * 필수

* 자유기술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 근대문헌 서비스 기관 담당자 서면 인터뷰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에 관한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의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근대문헌 서비스 제공 기관의 자료 현황 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본 조사 대상인 근대문헌은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 출판된 자료를 의미합니다.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신 경우,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이지연 교수

연락처 : 이고은 연구원 (ggoni3530@yonsei.ac.kr)

1. 기관 현황

귀 기관에서 소장하고 계시는 근대문헌 소장자료 유형과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2. 근대문헌 자료 수집 방법

2.1. 근대문헌과 자료 수집과 관련한 기관의 활동에 해당하는 번호를 모두 써주세요.

- ① 자료수집정책 없음
- ② 구입
- ③ 수증
- ④ 위탁
- ⑤ 타 기관으로부터 반입
- ⑥ 기타: _____

3. 메타데이터

3.1 귀 기관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메타데이터 표준은 무엇입니까?

3.2 현재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 항목(필드)은 무엇입니까?

4. 서비스 이용자

4.1 귀 기관의 근대문헌 주요 이용자군은 누구입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답해주세요.)

- ① 교육자(대학교수, 강사, 교사) ② 사무직 ③ 사서
- ④ 전문연구자 ⑤ 학생 ⑥ 학예연구원(기록관, 박물관 등)
- ⑦ 기타: _____

4.2 위의 이용자군이 귀 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5. 전담 인력

5.1 귀 기관의 온라인 서비스 전담 인력의 규모와 담당 업무는 무엇입니까?

6. 국립중앙도서관 협력 의사 확인

6.1 향후 귀 기관이 국립중앙도서관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 서비스에 참여할 시 고려 및 요청사항이 있으십니까?

7. 응답자 인적 사항 수집

7.1 귀하가 재직하고 계시는 기관명은 무엇입니까?

7.2 귀하의 직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일반행정직
- ② 연구직
- ③ 정보기술직
- ④ 기타: _____

7.3 향후 정보 공유를 위한 연락처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또는 기관 전화번호)

서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 기관별 근대문헌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정리

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항목	내용
소장자료	고문헌(1909년 이전 간행): 133,000여 점 근대문헌(1910~1953년 간행): 213,000여 점
근대문헌 자료 수집 방법	■수집(기증)□미수집
메타데이터 포맷 및 관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RC 일련번호, 명칭, 이명칭, 시기(생산년도), 생산자, 세부출처(쪽수 등), 크기, 주요주제, 키워드검색, 내용, 전문 해제, 원문이용(부분)
이용자	교육자(대학교수, 강사, 교사), 전문연구자, 학예직
이용자 만족 및 요구사항	상세한 근대문헌 통합 검색(주제별/언어별/시대별/유형별/문고별) 서비스 제공 주요 근대문헌 해제 서비스 제공 관련 콘텐츠(전시, 영상, 인기자료 등) 통합 서비스 제공
전담직원 유무	■유(고문헌 원문검색 홈페이지 담당자)□무 (사서)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 서비스 참여시 의견	국립중앙도서관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 서비스의 참여 여부에 대한 서울대학교 차원의 정책적 결정이 선결되지 않았음. 이에 현 단계에서 고려 및 요청사항 없음

2.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항목	내용
소장자료	등록문화재 2점, 10,071점, 디지털 원문 166건 (근대문헌 도서 100여점)
근대문헌 자료 수집 방법	□수집 ■ 미수집
메타데이터 포맷 및 관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RC 일련번호, 명칭, 이명칭, 시기(생산년도), 생산자, 세부출처(쪽수 등), 크기, 공간정보(장소 등), 전문 해제
이용자	교육자(대학교수, 강사, 교사), 전문연구자, 학생
이용자 만족 및 요구사항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소장여부 확인 하여 이용
전담직원 유무	□유 ■ 무 (사서)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 서비스 참여시 의견	한국어문학, 한국학, 역사학 등 연구자료 확인 후 이용 가능 또한 보다 많은 자료를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면 연구자에게도 도서관 담당자에게도 큰 의의가 있을것같음

3. 단국대학교

항목	내용
소장자료	근대문헌 : 도서 4,111점, 비도서0점, 디지털 원문 95건
근대문헌 자료 수집 방법	■수집(기증) □미수집
메타데이터 포맷 및 관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RC • 일련번호, 명칭, 시기(생산년도), 생산자, 자료출처, 세부출처(쪽수 등), 크기, 공간정보(장소 등), 키워드 검색, 원문이용(부분)
이용자	교육자(대학교수, 강사, 교사), 학생
이용자 만족 및 요구사항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열람이 가능해서 만족해함
전담직원 유무	■유 □무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 서비스 참여시 의견	관리 및 열람

4.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항목	내용
소장자료	고문헌 14,365점 (근대문헌 : 도서 5,479점)
근대문헌 자료 수집 방법	■수집(구입, 기증) □미수집
메타데이터 포맷 및 관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RC • 유물번호(내부관리용), 명칭, 이명칭, 시기(생산년도), 생산자, 자료출처, 세부출처(쪽수 등), 크기, 공간정보(장소 등), 주요 주제, 키워드 검색, 내용, 원문이용(부분)
이용자	교육자(대학교수, 강사, 교사), 사서, 전문연구자, 학생
이용자 만족 및 요구사항	대출 및 열람 가능
전담직원 유무	■유 □무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 서비스 참여시 의견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5. 전남대학교 도서관

항목	내용
소장자료	고문헌 31,277책, 수탁고문헌5,392책, 디지털 원문 3,063건, 근대 별치 귀중본61책(근대문헌 : 파악 못함)
근대문헌 자료 수집 방법	<input type="checkbox"/> 수집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집
메타데이터 포맷 및 관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RC 유물번호(내부관리용), 명칭, 이명칭, 시기(생산년도), 생산자, 세부출처(쪽수 등), 크기, 주요 주제, 키워드 검색, 원문이용(부분)
이용자	교육자(대학교수, 강사, 교사), 전문연구자
이용자 만족 및 요구사항	빠른 서비스
전담직원 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 (전산담당 사서) <input type="checkbox"/> 무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 서비스 참여시 의견	상호대차및 원문복사

6. 조선대학교 도서관

항목	내용
소장자료	도서 16,474점(동장본7,384점 포함), 비도서49점 (근대문헌 : 도서 1,118점, 비도서49점)
근대문헌 자료 수집 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집(기증) <input type="checkbox"/> 미수집
메타데이터 포맷 및 관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RC 일련번호, 명칭, 이명칭, 시기(생산년도), 생산자, 자료출처, 세부출처(쪽수 등), 크기, 공간정보(장소 등), 주요 주제, 키워드 검색, 내용, 원문이용(부분)
이용자	교육자(대학교수, 강사, 교사), 전문연구자, 학생
이용자 만족 및 요구사항	본교생이 아니더라도 열람 의사가 있는 이용자 서비스 이용 가능 타 도서관 소장하고 있지 않은 문헌(죽보, 지리지 등) 소장
전담직원 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 (3명, 고문헌관리 서비스/대출/수서) <input type="checkbox"/> 무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 서비스 참여시 의견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 서비스를 누구나 제한없이 이용하기를 희망

7.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

항목	내용
소장자료	도서 33,789점, 비도서106점, 디지털 원문 5,677건 (근대문헌 :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정확한 수량 미파악)
근대문헌 자료 수집 방법	■ 수집(구입, 기증) □ 미수집
메타데이터 포맷 및 관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RC • 일련번호, 명칭, 이명칭, 시기(생산년도), 생산자, 크기, 공간정보(장소 등), 주요 주제, 키워드 검색, 전문 해제, 원문이용(전체)
이용자	교육자(대학교수, 강사, 교사), 전문연구자, 학생
이용자 만족 및 요구사항	자료의 다양성
전담직원 유무	□유 ■무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 서비스 참여시 의견	-

8.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항목	내용
소장자료	도서 10,389권, 디지털화 7,320권
근대문헌 자료 수집 방법	■ 수집(기탁, 이관) □ 미수집
메타데이터 포맷 및 관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RC • 명칭, 시기(생산년도), 생산자, 세부출처(쪽수 등), 내용
이용자	시민
이용자 만족 및 요구사항	빠른 서비스
전담직원 유무	■유 (전산담당사서)□무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 서비스 참여시 의견	참여의사 있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항목	내용
소장자료	도서: 22,011권, 디지털 원문: 16,781권
근대문헌 자료 수집 방법	<input type="checkbox"/> 수집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집
메타데이터 포맷 및 관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RC 일련번호, 명칭, 시기(생산년도), 생산자, 세부출처(쪽수 등), 크기, 주요 주제, 키워드 검색, 전문 해제, 원문이용(부분), 원문이용(전체)
이용자	교육자(대학교수, 강사, 교사), 사서, 전문연구자
이용자 만족 및 요구사항	많은 고문헌 소장, 고문헌검색시스템을 통한 열람
전담직원 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 (사서) <input type="checkbox"/> 무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 서비스 참여시 의견	참여의사 불분명

본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4 연구보고서

한국 근대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인 쇄: 2024년 11월 29일

발 행: 2024년 11월 29일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Tel. 02-590-0653 Fax. 02-590-0546

<http://www.nl.go.kr>

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ISBN 979-11-6513-479-2 [비매품/무료]

인쇄 : 학위사(02-719-9567)